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극문학 연구
-7차 개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고 수 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극문학 연구
-7차 개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김 명 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고 수 진

인 준 서

고수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7차 개정 교육과정이 전개되면서 국어과 교육과정 역시 변화를 맞이하였다. 실제로 7차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매체언어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매우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극문학의 수록양상도 많이 바뀌었다. 희곡이 주로 실렸던 과거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의 수록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러한 취지는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사이의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늘리고 매체 담화·글의 수용과 생산에 언어 환경이 점차 큰 폭으로 변화함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맞게 국어과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극문학의 작품들은 그 편중이 매우 심한 문제점이 눈에 띈다.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은 그 제재 활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문학 영역뿐만 아니라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까지 국어 교육의 전 영역에서 그 제재를 수록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나의 단원 전체에 구현되었거나 학습활동까지 토막으로 실려 있는 모습이다. 또한 수록된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는 작품세계도 넓고 다양하다.

그러나 희곡은 그 사정이 많이 다르다. 한 학기에 많이 실리면 2편 정도의 매우 적은 작품 수는 희곡의 의의를 충분히 분석하기에 부족한 현실이다. 희곡은 연극상연을 목표로 하지만 교실의 여건과, 수업시수의 상황적 불리함으로 수록된 작품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 수업시수의 불리함을 덮을 수 있는 작품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환경 속에서 작품의 줄거리 분석, 인물이나 사건구조 분석에만 치중하는 교육의 형태는 아직도 희곡만의 교육적 의의를 교과서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23종의 7학년 국어 교과서와 15종의 8학년 국어교과서, 16종의 10학년 국어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교과서에 실린 극문학 수록 현황을 살폈다. 거시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매체언어로서 극문학 제재 중 가장 많이 실린 작품과 새롭게 실린 희곡작품을 바탕으로 학습활동과 작품 분석도 함께 이루어 졌다.

본 연구를 통해 극문학 교육의 현황을 볼 수 있었고 이는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된다. 또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극문학 교육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본고의 목적을 두었다.

II장에서는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매체언어와 관련된 성취기준 중에 가장 많이 교육 제재로 삼은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의 작품을 알아보고 학습목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분석 하였다. 희곡은 기존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문학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목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좀 더 유의미한 분석이 되기 위해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생소한 매체언어의 정의 및 성취기준 조직과 체계를 다루었다. 이 과정을 통해 '매체언어'의 성취 기준에 대한 의의를 파악하였다.

III장에서는 7차 개정교육과정에 실린 극문학 작품들을 매체언어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한 후 유의미한 학습 활동이 구현되었는지, 작품의 성향과 주제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특히 희곡은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 시 상당부분을 자르고 신는다. 이때 교과서에 옮겨 실은 부분이 잘 구성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 새로운 희곡 작품은 작품분석이 함께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매체언어 성취기준의 제재로 쓰인 드라마 대본 및 시나리오 작품들 중 지나치게 중첩되어 작품이 수록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실린 작품들 중 가장 많이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각 교과서들마다 학습활동에서 차이점과 의의는 없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7차 개정 국어 교과서는 여전히 극문학교육에 있어서 기존교육과정과 다르게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시나리오, 드라마 제재를 활용하면서 ‘문학 영역으로서의 극문학작품’과 ‘매체언어 관련 극문학 작품’이 혼용됨을 알 수 있었다. 엄연히 분리해서 인식한 후 두 개의 다른 성취 기준을 균등하게 반영하는 교과서를 집필했어야 하고 교수, 학습 시에도 교과 내용을 조절하여 안내했어야 했지만 이런 점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결국 2010년 도입 국어과 교과서는 매체언어에 대해 교수 학습 방법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고 극문학 장르에 대한 이해에도 전반적인 보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7
3. 연구 범위와 방법	13
II. 극문학 성취 기준의 조직과 체계	17
1. 7차 개정 교육과정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	18
2. 7차 개정 교육과정 문학 성취기준의 범위	23
III. 개정 국어 교과서의 극문학	26
1. 개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극문학 양상	26
1) 성취기준에 따른 극문학 현황	26
2) 극문학 관련 단원의 편성과 한계	50
3) 작품 중복과 작품 성향의 문제점 및 대안	73
2. 극문학 작품 분석 및 학습활동 양상	78
1) 『말아톤』 : 성장서사의 영상화	78
2)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 새로운 희곡의 등장	104
3) 「양주 별산대놀이」 : 전통 가면극의 재인식	113
3. 극문학 수록의 특징과 의의	118
IV. 결론	121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학교육은 올바른 인간성을 함양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문학작품을 읽고, 느껴보고 말해보고, 또 자신만의 언어로 창조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이전과 다른 세계를 만들고 체험하며 나 아닌 타인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은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 그 속에서 나를 알아가는 심미적 활동은 문학교육의 가장 큰 가치일 것이다. 이러한 문학교육의 목표를 좀 더 전문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언어 능력의 증진'이다. 문학은 언어를 표현의 재료로 한다. 다시 말하면 문학 활동은 곧 언어활동이다. 어휘의 선택에서부터 문장의 구성 또는 화제의 전개에 이르기까지 문학은 가장 적절한 방식을 찾는 언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은 언어 관습에 적절한 언어를 찾는, 효율성을 위한 언어활동을 풍부하게 경험하도록 해준다. 또한 문학은 항상 새로운 언어를 통한 개별성을 지향함으로써 이러한 문학 능력은 개성적인 언어능력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 그러기에 문학 능력의 향상은 곧 언어 능력의 향상에 이를 수 있으며 따라서 문학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활동 전반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정신적 성장'이다. 문학의 소재는 인간의 삶 자체이므로 문학

1) 다음의 참고자료를 통해 정리하였다.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 대학교출판부, pp.38-67

김희라(2001), 「공연 중심의 희곡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pp.17-21

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과 만나게 되며 세상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시야를 확대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하나 하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생을 만나게 되는 체험의 확대와 심화는 인간의 삶과 세계를 두루 통찰 할 수 있는 안목의 포괄성을 확보해 주며 개인적 관점까지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문학은 다양한 삶을 만나는 정서적 체험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총체적 안목을 배양하고 인격을 함양함으로써 결국 개인의 정신적 성장을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상상력의 신장'이다. 문학은 상상력의 영역에 속하는 정신적 작업이다. 문학에서 문제 삼는 상상력의 의미는 복합적이지만, 일단 언어적 상상력으로 규정된다. 문학의 매개체가 언어라는 점에서 문학적 상상력은 논리와 정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상상력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는데 심화하고 인간적 가치의 체험과 실현을 도모하며 삶에 대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문화 계승과 창조 능력의 증진'이다. 문학은 어떤 공동체가 지닌 삶의 방식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가 되며, 문화는 삶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점과 관련해 문학 능력은 문화 창조의 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문학을 통해 공동체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 동참함으로써 연대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되어온 가치에 동참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전통의 계승과도 연결된다.

다섯째, '전인적 인간성 함양'이다. 인간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하지 않고 다양한 소질이 고루 조화를 이루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인의 개념이다. 문학 능력은 그 자체를 수행하는 능력에 머물지 않고 다른 능력으로 전이되고 확장될 수 있다. 인간에 대한 합리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체험의 확장을 통한 자기 쇄신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전인적 인간성 함양'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서의 순

화' 및 '전인적 인간성 함양'에 기여하는 문학 교육의 필요성이 한층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학 교육의 의의와 목표에 따라 극문학²⁾은 다른 문학 장르 보다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언어 능력의 증진' 및 '인간 삶의 총체적 파악을 통한 개인의 정신적 성장', 그리고 '상상력의 신장'에서 극문학이 기여하는 교육적 효용은 상당하다. 극문학은 서정문학이나 서사문학 교육과 달리 먼저 언어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대화체로 된 진술체계라는 점과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스토리를 진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화체로 된 진술체계는 작가의 생각이 담긴 인물의 목소리를 그대로 읽어 나가기 때문에 주제전달이 직접적이고 또한 감정이입이 시나 소설보다 빠르다. 즉, 극문학은 작가가 창조한 인물이 본인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투나 행위, 그리고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무대의 구성, 또는 지시문등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는 장르인 것이다. 이러한 극문학 특징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점차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다.³⁾

최근에 문학교육은 반응 중심 문학교육이나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문학 작품의 분석이나 문학적 지식을 강조하기 보다는 학습자의 생동감 있는 문학 체험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을 존중하고 허용할 것을 권장한다. 극문학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낭독하고 또는 연극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교육의 취지를 더욱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따라서 극문학 수업은 활력이 넘쳐야 하고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교사의 역할 역시 이러한 극문학의 특징에 따라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상호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학습자들의 언어활동을 장려하여 심미적 경험을 현상화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2) 무대 공연이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으로 본고에서는 희곡, (영화)시나리오·드라마의 대본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썼다.

3) 서종문, 「희곡문학 교육의 문제」 pp. 251-252, 2002.

7차 개정 교육과정이 전개되면서 국어과 교육과정 역시 변화를 맞이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고 그 개정 취지를 밝히면서 언어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매체언어'를 '국어과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⁴⁾ 실제로 7차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매체언어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매우 광활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어 역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매체 담화·글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능력 신장을 7차 개정 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극문학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다. 희곡이 주로 실렸던 과거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을 실어놓은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실제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창작극본 까지 확대되어 실렸다. 이러한 취지는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사이의 언어 사용 방식의 대한 이해를 늘리고 매체 담화·글의 수용과 생산에 언어 환경이 점차 큰 폭으로 변화함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맞게 국어과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극문학의 작품들은 그 편중이 매우 심한 문제점이 눈에 띈다.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은 그 제재 활용이 매우 광범위 하게 나타난다. 문학영역에서 멈추지 않고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까지 확대되어 그 제재를 실어 놓고 있다. 하나의 단원 전체에 구현되었거나 학습활동까지 토막으로 실려 있는 모습이다. 또한 실려 있는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는 작품의 세계도 넓고 다양하다.

그러나 희곡은 그 사정이 많이 다르다. 한 학기에 많이 실리면 2편 정도의 매우 적은 작품 수는 충분히 희곡의 의의를 분석하기에 부족한 현실이다. 희곡은 연극상연을 목표로 하지만 교실의 여건과, 수업시수의 상황적 불리함으

4) 노은희 외,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로 실리는 작품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 수업시수의 불리함을 덮을 수 있는 작품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려 있는 작품의 내용이 앞서 논의한 희곡문학의 특징을 발휘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닌 사회, 정치적 신념과 지나치게 결합되어진 지문, 혹은 지금 현재 학생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공감이 가지 못하는 주제라면 그 문제는 더 더욱 심각하다. 또한 수업환경 속에서 작품의 줄거리 분석, 인물이나 사건구조 분석에만 치중하는 교육의 형태는 아직도 희곡만의 교육적 의의를 교과서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듯하다.

앞서 언급한 매체를 강조하는 7차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문혀 지나치게 매체언어로서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을 위주로 극문학 교육을 이끌어 가는 것도 문제점이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면 학생들은 희곡과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의 각각의 특성을 배제 한 채 배우게 될 것이다. 결국 그동안 미흡했던 극문학 교육은 새롭게 개정된 국어 교과서에서 조차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셈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23종의 7학년 국어 교과서와 15종의 8학년 국어교과서, 16종의 10학년 국어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교과서에 실린 극문학 수록 현황을 살피겠다. 이 현황을 바탕으로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매체언어와 관련된 성취기준 중에 가장 많이 교육 제재로 삼은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의 작품을 알아보고 학습목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 희곡은 기존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문학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목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점을 두고 분석될 것이다.

좀 더 유의미한 분석이 되기 위해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생소한 매체언어의 정의 및 성취기준 조직과 체계를 다룬다. 그러나 그 먼저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매체언어 관련 성취 기준을 제정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본고의 연구 목적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는 이 과정을 통해 '매체언어'의 성취 기준에 대한 의의를 파악할 것이다. 7차 개정교육과정에 실린 극문학 작품들을 매체언어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한 후 유의미한 학습 활동이 구현되었는지, 작품의 성향과 주제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겠다. 희곡의 경우 문학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역시 현황을 분석한다. 특히 희곡은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릴 때 상당부분을 자르고 실는다. 이때 교과서에 옮겨 실은 부분이 잘 구성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새로운 희곡 작품이 등장했다면 작품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매체언어 성취기준의 제재로 쓰인 드라마 대본 및 시나리오 작품들 중 지나치게 중첩되어 작품이 수록됐는지 살펴본다. 실린 작품들 중 가장 많이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각 교과서들마다 학습활동에서 차이점과 의의는 없는지 역시 함께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극문학 교육의 현재 실태를 보여줄 것이며 이는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가 될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문학교육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시 교육이나 소설교육에 비해 극문학교육은 상대적으로 논의의 성과가 빈약하다. 특히 극문학 중 7차 교육과정부터 실렸던 드라마 극본이나 시나리오의 교육적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그나마 연구되었던 극문학 연구 중 희곡연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 극문학 연구 역사가 짧기도 하고 지난 교육과정에 실린 극문학은 지나치게 반공의 이념을 담고 있었기에⁵⁾ 논지는 국어교과서와 지배이데올로기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7차 교육과정에 오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드라마 극본으로 MBC청소년 드라마 '육체미 소동'이 실렸고, 이에 따라 최근에 와서야 시나리오까지 확장하여 극문학의 교육적 의의가 연구되고 있다.⁶⁾ 본고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희곡교육을 논의한 연구부터 살폈고, 그 결과 중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희곡들을 분석하여 현행 희곡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의 개선방향을 연구한 논문에서 점차 교육연극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극 갈래를 적용⁷⁾하는 것을 시도해 본 연구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 극 갈래 이외의 문학 작품에 교육연극을 접목한 연구⁸⁾도 있었으나 본고의 연구 목적에 맞게 교수법을 다룬 연구보다는 교육과정에 따른 희곡의 양상을 논의하는 연구로 검토해 보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작품이 실려 있는 방향성과 한계점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가장 주요 연구의 흐름이었고 특히 이러한 흐름의 연구는 교육과정에

5) 강진호 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상허학회, 2007. - 유치진의 「청춘은 조국과 더불어」, 방송규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김승규의 「등대」.

6) 박준일, 「중학교 교재수록 「육체미 소동」을 활용한 드라마 구조교육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7) 김순자, 「희곡 창작 및 극화 수업지도 방법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8) 김남희, 「교육연극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교수 학습방법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결합되어 논지를 이끌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주제들은 대체로 1차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의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희곡을 바탕으로 그 속에 숨겨진 반공이데올로기를 밝히고 비판하고 있다.⁹⁾ 이 시기에 실린 작품들을 바탕으로 희곡교육을 지도하기에 적절한 텍스트 인지를 검토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문학적인 가치보다는 교육적인 효과 쪽에서 분석하고 있다. 희곡은 단일한 시간 안에 발생하는 하나의 중점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주제가 명확하고 집중적으로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교육에 있어 가장 적합한 장르였다. 이러한 연구흐름의 선행주자인 이광국의 연구에서¹⁰⁾ 눈여겨 볼 부분은 누구의 작품을 실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시하여 작가의 문제부터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이 발표 되는 시기의 교육과정은 4차 교육과정 시기였다.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던 작가는 유치진 작품만 3편이 실렸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유치진 작가를 분석하면서 유치진 작가에 대한 인격적 흠을 지적하여 유치진 작품은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확장한 논의는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분명 유치진의 친일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의 작품은 그의 인격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삶과 불일치되는 작품이라 여겨 비판하는 구절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후 우미숙은¹¹⁾ 광복이후 교수 요목기에서 제 5차 교육과정기까지의 중, 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극 교재(방송극본, 시나리오, 희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의 지적과 학습활동의 변천양상도 살펴보고 있다. 교수 요목기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는 반공이데올

9) 이광국, 「국어 교과서에 실린 희곡작품에 대하여」, 배달말교육, 배달말교육학회, 1985
 우미숙, 「해방이후 중등 국어교재의 희곡작품 고찰」,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김예니,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교과서 구현 양상』, 글 누림.

10) 이광국, 「국어 교과서에 실린 희곡작품에 대하여」, 배달말교육, 배달말교육학회, 1985.

11) 우미숙, 「해방이후 중등 국어교재의 희곡작품 고찰」,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로기와 국가주의로 얼룩졌던 교육시기였다. 따라서 실려 있는 작품들도 '무찌르자 공산당', '북은 적 아군은 우리민족'이라는 극명한 선긋기의 목소리들로 얼룩졌던 시기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속에 숨겨진 이데올로기와 학습활동 역시 이념을 주입하려는 활동들임을 지적하고 이후에 교육과정은 국가주의 교육과정으로 충을 강조하는 작품들과 학습활동들 역시 함께 분석하여 교육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을 최종적으로 정리한 김예니¹²⁾는 3, 4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속에 담긴 희곡, 시나리오의 지문들은 반공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작품의 선정, 선정된 작품의 학습활동(3, 4차 국어교과서 에서는 '공부할 문제'로 제시)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논지를 정리했다. 2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반공주의는 3차 교육과정에 와서 더욱 견고해 졌는데 국민교육헌장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것이 3차 교육과정의 이념이 되었다. 3차 교육과정은 1) 창조와 힘과 개척의 정신, 2) 협동 정신, 3) 국민정신을 최대한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가치관 교육도 병행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제재 선정의 기준'으로 민족 주체성, 국가관등 가치 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을 국어과 교육의 제재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유치진의 「청춘은 조국과 더불어」, 방송극 「누가 우리를 지켜 줄 것인가」, 김승규의 「등대」 등 이 작품들은 반공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가 될 때 올바른 국민이 된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유신 시대의 장기 집권을 노린 박정의 정권의 정치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이데올로기는 표면적으로는 민족의 앞날을 위해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심화시키고 있었으나 그 이념에는 박정희 정권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연구 동향으로 희곡문학만이 갖는 의의를 살리지 못한 교실 수업의

12) 김예니,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교과서 구현 양상』, 글 누림, 2007. pp. 69

문제점을 고찰한 연구들도 있었다.

먼저 중, 고교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희곡문학 교육의 문제점을 논의한 연구는¹³⁾ 희곡문학 교육의 본질과 기능을 현재 국어교육 과정에서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현상론에 기초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리고 희곡문학만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인 '무대 위에서 재현되는 세계'를 바탕으로 희곡문학의 가치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교실 수업 상황을 희곡문학 교육의 현황, 실천과제와 수업 모형으로 나누어 논의를 확장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다른 연구 주제는 우리 희곡 교육의 소홀함과 궁벽한 현실을 지적하며 수업시수의 부족함으로 희곡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¹⁴⁾하고 있다. 무엇보다 희곡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연극성이 학습 활동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역을 정해 읽어 나가는 것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실정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다른 논의는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실려 있는 희곡의 현황과 희곡읽기의 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¹⁵⁾. 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유치진의 「원술량」, 실러의 「빌헬름 텔」, 이강백의 「들판에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희곡 교수-학습 방법을 기존의 문제점과 함께 점검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작품을 창작하여 공연하는 방법은 현재 실제 학교 수업에서 실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면이 있기에 과감히 삭제하고 입체 낭독하기, 해당 작품을 실제 공연해보기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한 점이 의의가 있다. 다만 작품의 내용을 분석할 때 교사용지도서와 함께 살펴보지 않고, 작품 자체의 문제점을 따졌고 이것을 교육학적인 논의로 확장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13) 서종문, 「희곡문학 교육의 문제-중, 고교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991, pp.249-270.

14) 유민영, 「홀대와 미숙의 희곡 교육」, 이응백 박사 고회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고회 기념 논문집』, 한샘, 1992.

15) 김재석,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재 희곡의 현황과 희곡읽기의 한 방법」, 문학과 언어학회, 문학과 언어 제 21집, 1999.

새로운 작품을 제시하며 논의를 확장한 연구도 있다.¹⁶⁾ 새로운 작품을 제시하는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 기준은 희곡의 분량과 수록방식, 주인공의 연령과 성장체험, 정서적 반응과 인지 발달 상황, 플롯과 대사, 우리말 표현 주제의식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작품으로 함세덕의 「동승」을 거론하고 있다. 이 작품을 바탕으로 제 7차 교육과정 중등학교 희곡교육의 적합한 교재로서 추천하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교육의 방법적 측면에 관한 고찰은 주로 공연이 어려운 학교교육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체낭독과 부분 연기, 상상하며 일기를 통한 희곡문학의 교수,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 들어와 희곡교육은 전환점을 맞이한다. 극문학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드라마 대본과 시나리오가 분석되고 교과서에 실리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희곡이 아닌 방송극 대본과 뮤지컬 극본을 수록한 의의를 짚어보며 그 수록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 해결책¹⁷⁾을 제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작품이 전달하는 바가 중학생 학습자들의 이니 발달과정에 부응하는지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또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극 문학 작품 중 텔레비전 방영물의 극본인 7학년의 <육체미 소동>을 바탕으로 연구¹⁸⁾된 논문은 중학교 교과서의 텔레비전 극본이 교육 이론과 함께 논의된 선행연구가 흔치 않았기에 영상 예술 분야에서 얻은 이론적 부분과 타 문학 갈래의 연극화에서 얻은 교육적 가치를 토대로 연구의 배경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수업모형을 구상한 후 다섯 차시의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수업의 설계는 크게 텔레비전 극본의 분석과 각색, 교육연극 방법의 활용과 연극화의 두 부분으로 구

16) 김남석, 「희곡교육의 새로운 지평- 「동승」을 중심으로」, 문학과 교육연구회, 문학과 교육 제 18호, 2001, pp. 136-152.

17) 박혜령, 「중학교 희곡교육의 개선을 위한 제언」, 부산외국어 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pp.25-38.

18) 박준일, 「중학교 교재수록 「육체미 소동」을 활용한 드라마 구조교육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성되었다. 단계화한 수업설계를 통해 실제 수업에 구현 했을 때 학생들에게 흥미를 이끌고 텔레비전의 극본과 희곡의 차이를 깨닫는 수업으로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되었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습하지 못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의 추측모형이기 때문에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 한 단원에 주어지는 수업시수는 일반적으로 3~4차시로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수업시수로 잡은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까지 교육 과정 속에 나타난 희곡의 변화 양상과 그 문제점을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새롭게 교육과정이 제정되지만 교과서 속에 담긴 희곡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범위가 매우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1차부터 6차까지의 교육과정 속 희곡교육을 살펴보는 논문들은 작품속의 대립구조나 인물의 양상, 보여주고 있는 사건의 구조 등을 논의하지 않은 채, 작품의 설정기준만을 논의하는 거시적인 관점으로만 확장한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증적인 교사용지도서를 함께 살펴보고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부족한 논의들을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 들어오자 드라마 대본이 실려 희곡교육은 극문학으로 확장된 변화를 맞이했고 최근 7차 개정교육과정안에 들어오며 그 변화는 더욱 커져 새로운 교과서는 그 전과는 매우 다른 극문학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국어 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 23종, 중학교 2학년 15종, 고등학교 1학년은 16종으로 새롭게 개편되었고 실려 있는 작품들 또한 다양하여 그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연구되었던 교과서를 벗어나 새롭게 개정된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살펴 그 안에 실린 극문학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연구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7차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7학년 교과서는 23종, 8학년의 교과서는 15종, 10학년의 교과서는 16종의 교과서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7, 8학년은 이전 교육과정의 '국어'와 '생활 국어' 분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각 종별로 7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4책, 총 92책과 8학년 1, 2학기 모두 4책 총60책, 10학년 상, 하권으로 총 32책이다.¹⁹⁾

19) ① 7학년 교과서 목록 (23종)

출판사, 대표저자	약자	출판사, 대표저자	약자
교학사, 김형철 외	교학사(김)	새롬교육, 권영민 외	새롬(권)
교학사, 남미영 외	교학사(남)	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외	좋은책(이)
금성 출판사, 윤희원 외	금성(윤)	웅진 싱크빅, 이충우 외	웅진(이)
대교, 박경신	대교(박)	지학사, 방민호 외	지학사(방)
대교, 왕문용 외	대교(왕)	지학사, 이용남 외	지학사(이)
두산 동아, 우한용 외	두산(우)	유웨이 중앙, 이숙 외	중앙(이)
디딤돌, 김종철 외	디딤돌(김)	창작과 비평, 김상옥 외	창비(김)
디딤돌, 이삼형 외	디딤돌 (이)	천재교육, 김대행 외	천재(김)
미래엔 컬처, 윤여탁 외	미래(윤)	천재교육, 박영목 외	천재(박)
미래엔 컬처, 이남호 외	미래(이)	천재교육, 노미숙 외	천재(노)
비유와 상징, 조동길 외	비상(조)	해냄에듀, 오세영 외	해냄(오)
박영사, 송하춘 외	박영사(송)		

② 8학년 교과서 목록(15종)

출판사, 대표저자	약자	출판사, 대표저자	약자
미래엔 컬처, 윤여탁 외	미래(윤)	미래엔 컬처, 이남호 외	미래(이)
교학사, 남미영 외	교학사(남)	지학사, 이용남 외	지학사(이)
지학사, 방민호 외	지학사(방)	금성 출판사, 윤희원 외	금성(윤)
천재교육, 노미숙 외	천재(노)	대교, 박경신 외	대교(박)
대교, 왕문용 외	대교(왕)	창작과 비평, 김상옥 외	창비(김)
디딤돌, 김종철 외	디딤돌(김)	새롬교육, 권영민 외	새롬(권)
비유와 상징, 조동길 외	비상(조)	해냄에듀, 오세영 외	해냄(오)
좋은책 신사고, 이승원 외	좋은책(이)		

③ 10학년 교과서 목록(16종)

출판사, 대표저자	약자	출판사, 대표저자	약자
금성 출판사, 윤희원 외	금성(윤)	유웨이 중앙, 박호영 외	중앙(박)
교학사, 조남현 외	교학사(조)	지학사, 조남현 외	지학사(조)

연구 대상은 7학년 국어 교과서 1, 2학기의 국어, 생활국어 각 23종과 8학년 국어 교과서 1, 2학기의 국어, 생활국어 각 15종, 10학년 국어 (상), (하)의 각 16종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본 연구의 목적이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극문학을 분석하여 극문학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때, 이를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분석하는 총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은 앞서 밝힌 것처럼 현재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7차 개정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를 모두 살펴 피며 이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교과서는 현 교육과정을 담고 있으며, 교실 수업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총체적인 집합체이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내용연구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작업은 본 연구의 목적에 인과관계를 밝혀 줄 것이다. 먼저 선행되어 실시될 내용연구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매체영역을 바탕으로 새롭게 매체언어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을 분석해야 한다. 이때 문헌고찰이 선행되며 이것은 '매체언어' 개념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집과 분석을 통해 본고에서 연구 목적인 교과서 속의 극문학 양상을 기술한다. 과거와 달리 교육과정은 바뀌어 가지만 극

디딤돌, 이삼형 외	디딤돌(이)	지학사, 방민호 외	지학사(방)
더 텍스트, 김병권 외	더 텍스트(김)	창작과 비평, 문영진 외	창비(문)
두산동아, 우한용 외	두산(우)	천재교육, 김대행 외	천재(김대행)
미래엔 킬처, 윤여탁 외	미래(윤)	천재교육 김중철 외	천재(김중철)
비유와 상징, 한철우 외	비상(한)	천재교육, 박영목 외	천재(박)
좋은책 신사고, 민현식 외	좋은책(민)	해냄에듀, 오세영 외	해냄(오)

문학 교육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고 매체를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제재 선택에 있어서 드라마나 시나리오에 치우쳐 버린 결과의 인과관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밝혀 줄 것이다. 좀 더 연구 절차를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본격적인 교과서 분석에 앞서 극문학 관련 성취 기준의 조직과 체계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우선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매체환경에서 다루는 언어활동, 즉 '매체언어'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본다. 이때 유의미한 분석이 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매체언어'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살펴 본 후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체언어'의 기준을 정의한다. 그리고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체언어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정리하고 그 성취기준에서 극문학 제재가 쓰였는지 기술적 연구²⁰⁾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극문학은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시나리오와 드라마 대본은 매체환경에서 언어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체언어관련 성취기준에서 그 제재가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희곡은 문학 영역에서 그 제재가 활용되기 때문에 문학영역의 성취기준 역시 분석한다.

III장에서는 II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개정 교과서(7학년:중1, 8학년: 중2, 10학년: 고1)를 바탕으로 극문학 제재를 각 출판사 별로 성취기준과 제재를 정리한다. 이 작업은 극문학 교육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단원 구성의 문제점과 및 대안점을 모색한다. 이 과정은 앞서 선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극문학 제재의 편중성과 불균형한 모습을 밝힐 수 있고 또 보완점 및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또 가장 많이 쓴 작품을 매체언어영역에서 극문학, 문학영역에서 극문학을 구별하여 분석한다. 이 때 학습활동도 함께 분석이 되어 7차 개정 교과서만의 차

20) 기술적 연구란 조사한 자료 또는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하여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자료를 바탕으로 실제의 정보를 구하고 결론을 내리는 실질적 연구방법을 말한다.

별성이 들어 났는지 혹은 여전히 상투성과 평이성이 드러나는지 그 문제점을 밝히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본고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교과서가 있다면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IV장에서는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논의를 요약, 정리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를 기술한다.

Ⅱ. 극문학 성취 기준의 조직과 체계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가 정보화·다매체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지식의 습득과 문화생활은 물론 일상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과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영화·인터넷·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과 정보·지식·문화의 수용·생산에 대해 이해하는 일이 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음을 지적하며 과거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매체 변화에 따른 언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국어 교육의 내용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의 매체 활용을 강조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다.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거 7차 교육과정에서 보였던 단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매체 담화·글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능력 신장을 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때 중점적으로 다룬 제재는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이다. 그리고 희곡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문학 성취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먼저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체언어에 대한 정의와 범위 및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극문학이 개정 국어 교과서에 매체언어 성취기준과 더불어 어떻게 학습제재로 활용되고 있는지 분석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을 제외한 희곡은 문학 성취기준에서 다루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 성취기준 역시 함께 분석이 이루어 질 것이다.

1. 7차 개정 교육과정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극문학 제재를 희곡,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로 나누고 있다.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의 각 성취기준의 '담화의 수준과 범위'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는 매체의 범주에 들어가서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다. 즉,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매체언어'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각종 매체에서 사용되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와 관련된 언어활동을 가리키며 이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현대 매체 환경 하에 창의적인 담화가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국어교육을 유도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매체언어의 정의와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좀 더 유의미한 분석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매체언어는 실제로는 기존 6개의 국어 하위 영역인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문학 문법에 이어 7번째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²¹⁾, 각종 담화의 생산적 비판적 활동을 보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각 영역의 하위 범주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은 현재로는 6개의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다.

1997년 제 7차 교육과정이 발표된 이후 '매체언어'에 관련된 성취기준이 일부 교과과정에서 포함되기에 이르렀지만 매체언어에 대한 논란은 완전히 불식되지 않았다. 매체언어를 국어교육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고 그러한 주장들은 매체에 대한 교육이 기본적으로 국어교육

21) 국어교육의 영역을 기존의 6개의 이외에 '보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보기' 영역이 설립될 경우 '매체언어'는 대거 '보기'영역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최병우, 이채연, 최지현,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연구보고서 2000-6), 서울대학교 교육종합 연구원 국어교육 연구소, 2000.) 실제로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매체언어 교육의 범위에는 '보기'도 포함된다.(김대희,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의 매체언어 교육의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2008.) 한편 2005년 11월 26일 한국어 교육학회 260회 학술대회에서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관련 의견으로 제시된 것 중에서 7영역 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6영역에 '매체'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기존의 주장들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매체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²²⁾ 그 결과 7차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다매체 시대로 일컬어지는 언어 환경의 변화는 국어뿐만 아니라 많은 교과목의 교육 내용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매체 언어 역시 기호라는 점에서 국어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 매체 담화·글의 수용과 생산을 국어과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극문학은 과거 희곡에만 머물지 않고 드라마, 영화로 까지 확장하여 담화·글의 다양성, 창의적, 비판적 수용을 강조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7차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성취 기준 중에서 매체언어 관련 성취 기준을 추출하여 극문학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³⁾

-	학년-영역 -일련번호	성취기준	담화(글, 언어자료)의 수준과 범위	극문학 관련
1	7-듣기-2	광고를 보거나 듣고 설득의 전략을 파악한다.	대중에 대한 호소력이 높은 광고	
2	7-말하기-3	인터넷 게시판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인터넷 토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토론	
3	7-읽기-5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잘 드러난 영화	○
4	7-쓰기-1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 있게 설명문을 쓴다.	원리나 현상을 설명하는 글	
5	7-문법-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사용된 다양한 매체언어 자료	

22) 김동환, 이도영, 염은열, 서유경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 연구소, 2000.

23) 다음의 표는 7차 개정안을 근거로 하여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을 추출하여 연구한 선행 논문으로 서유경의 「매체언어교육의 실행 방안 연구」, 『국어교육(제128호)』, 한국어 교육학회, 2009.

6	8-듣기-4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진행자의 말하기 특성과 효과를 평가한다.	참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7	8-말하기-1	공식적인 상황에서 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발표한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진, 그림, 도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발표	
8	8-말하기-4	드라마의 인물이 되어 반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가 잘 드러난 청소년 드라마	○
9	8-읽기-5	다양한 풍자물의 매체 특성과 그 효과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대상의 본질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풍자물	○
10	8-쓰기-4	목적, 독자, 매체가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	매체의 특성이 잘 반영된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11	10-듣기-4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특성을 이해한다.	언어의 관습성과 해학성이 두드러진 판소리나 가면극	○
12	10-말하기-1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기소개를 한다.	인터넷 상의 자기소개	
13	10-말하기-4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취재하여 보도한다.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송 보도	
14	10-읽기-4	면담 기사를 읽고 질문자의 질문 의도, 질문 전략, 질문 태도 등을 평가한다.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전하는 면담기사	
15	10-쓰기-5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드러내는 비평문을 쓴다.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드러내는 비평문	○

[표 1] 7차 개정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

이상은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을 정리하면 말하기·듣기 8개, 읽기 3개, 쓰기 3개, 문법 1개, 문학 0개 이다. 이러한 분포는 한 영역에 과도하게 많고 문법과 문학 영역이 지나치게 적은 분포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각 영역 별로 각 학년마다 매체언어 관련 성취 기준의 연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학년

별 연계 교수 학습 방법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고 모두 제각각의 분포는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년별 수준별 수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소 찾아내기 힘들다. 문학과 문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말하기·듣기에서는 학년 별 연계는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까지 함께 살펴보면²⁴⁾ '〈3-듣기-4〉: 애니메이션을 보고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 〈6-말하기-1〉: 연극에서 반언어적, 비언

24) 7차 개정 국어 교육과정- 초등학교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

	학년-영역 -일련번호	성취기준	담화(글, 언어자료)의 수준과 범위	극문학 관련
1	2-듣기-4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의하면서 인형극을 본다.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민 인형극	○
2	3-듣기-4	애니메이션을 보고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이해한다.	다양한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드러나는 애니메이션	○
3	3-읽기-4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안다.	인물의 성격이 잘 표현된 만화나 애니메이션	○
4	4-쓰기-4	글과 그림이 잘 어울리게 그림책을 만든다.	인상 깊었던 일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책	
5	5-듣기-1	발표를 듣고 매체 활용의 효과를 판단한다.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발표	
6	5-듣기-3	온라인 대화를 일상 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한다.	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친구들 간의 온라인 대화	
7	5-말하기-4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하여 촌극을 한다.	일상생활 경험이나 시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촌극	○
8	5-읽기-2	광고에 나타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등에 나오는 광고	
9	5-쓰기-1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는 기사문을 쓴다.	학교,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일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기사문	
10	5-문법-4	말하는 이, 듣는 이, 상황, 매체 등에 따라 언어 사용 방식이 달라짐을 안다.	의사소통 상황의 구성 요소를 고려한 여러 가지 언어 자료	
11	6-듣기-1	뉴스를 듣고 정보에 관점이 반영됨을 안다.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보도하는 뉴스	
12	6-듣기-4	드라마를 보거나 듣고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생활을	○

어적 표현의 특성을 살려 실감나게 연기한다. → <8-말하기-4>: 드라마의 인물이 되어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의 경우에는 연계성을 보이지만 이외에 체계와 맥락을 형성하며 조직된 매체언어 관련 성취 기준을 다시 찾기로 힘들다. 그러나 앞서 밝힌 그나마 연계성을 나타낸 영역도 그 구체적 상관성은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매체언어 관련 성취 기준에서 ‘매체’의 개념과 범위는 무작위로 사용되고 있다. 어떤 성취 기준에서는 해당 매체의 구체적인 실례가 직접 제시되어 있는데 반해, 어떤 성취 기준에서는 막연하게 ‘매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5-듣기-1, 6-쓰기-1, 7-쓰기-1, 7-문법-1) 매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화의 수준과 범위를 함께 검토해도 성취 기준의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상당하다.

본고에서 다룬 극문학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위의 표에서 극문학 관련 ○ 표시한 것처럼 매체언어 관련 성취 기준 중에는 극문학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 상당하다. 이로 인해 매체언어의 절반가량은 문학영역(극문학)과 직간접적으로 중복된다. 이러한 혼란은 교과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7차 개정 국어교과서에 매체언어를 도입하여 극문학에서 좀 더 다양한 텍스트를 싣고자 했으나 성취기준에서 보듯이 각종 범주에서 혼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다. 연극에서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의 특성을 살려 실감나게 연기한다.	소재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 학교생활 경험이나 시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즉흥극	○
13	6-말하기-1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는 글을 쓴다.	다양한 매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는 글	

2. 7차 개정 교육과정 문학 성취기준의 범위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학 성취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년-영역 -일련번호	성취기준	담화(글, 언어자료)의 수준과 범위	극문학 관련
1	7-문학-1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해결 과정을 파악한다.	소설이나 극 갈래를 선택 하되 갈등의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구조화되어 나타는 작품.	○
2	7-문학2	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	시가 권장될 수 있겠지만, 수필이나 소설을 제재로 하여 감상할 수도 있다.	
3	7-문학-3	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	특정한 시대, 예컨대 식민지 시대를 소재로 하여 그 시대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감상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시대에 순응하거나 시대와의 불화를 선명하게 보여 주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다.	
4	7-문학-4	시어와 일상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랫말을 쓴다.	시, 민요, 시조 등의 고전 시가와, 고전 시가나 현대 시가 가곡이나 대중가요.	
6	8-문학-1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특별한 제재의 제한이 주어지기는 힘들다, 특히 우리 고유의 정서나 언어 표현이 잘 드러난 작품이나 인간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 주는 작품을 제재로 감상하는 방법이 권장될 만하다.	○
7	8-문학-2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활용 가능한 제재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기는 힘들 것이나, 가능하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적은 ‘닫힌 텍스트(closed text)’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열려 있는 ‘열린 텍스트(opentext)’를 활용하여 비교나 토론의 여지를 주는 것이 권장된다.	
8	8-문학-3	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파악한다.	시적 화자나 소설의 서술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작품.	
9	8-문학-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주로 소설이나 극(연극, 영화, 드라마) 제재와 관련되며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을 선정하고, 등장인물이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행동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
10	8-문학-5	자신이 상상한 세계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	경험적인 서사물이나 허구적인 서사물을 포함한 다양한 갈래의 문학 작품이 사용될 수 있다.	
11	10-문학-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작품이나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
12	10-문학-2	문학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한다.	작가의 성격, 취미, 인생관이 드러나는 수필	
13	10-문학-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작품으로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비평문.	○
14	10-문학-4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춘다.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나 비평문.	
15	10-문학-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이나 비평문.	

[표 2] 문학 성취기준의 범위

문학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앞서 밝힌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보다 훨씬 연

계성과 체계성이 긴밀하게 조직되어 있다. 예를 들어 '<7-문학-2>: 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 →<8-문학-1>: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10-문학-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 →<10-문학-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또 <7-쓰기-5>: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쓴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9-문학-5>: 상의 가치 있는 체험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 →<9-쓰기-4>: 문체의 효과를 고려하며 조언하거나 충고하는 글을 쓴다. →<10-문학-2>: 문학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한다. 로 연계되어 지도할 수 있다. 이것은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연계성과 체계성이 갖추어져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연계성과 체계성은 갖추어 졌지만 문학 영역의 성취기준에서는 오직 희곡만을 제재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나 소설에 비해 매우 그 비중이 적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분석할 테지만 영역 별 안내에서 균형 잡힌 교과서 체제를 구현하는데 많은 부족함을 보였다. 그동안의 국어교육사에서 문학 영역 중 극문학은 그 의의를 제대로 빛내지 못하고 차가운 대접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체언어라는 보이지 않지만 강조된 영역을 만나 홀대받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말았다.

특히 과거 희곡으로 극문학을 말했다면 7차부터 극문학의 범위를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까지 확장하여 희곡은 더욱 그 빛을 잃어버렸다.

Ⅲ. 개정 국어 교과서의 극문학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현재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7, 8, 10학년의 7차 개정 교과서를 바탕으로 매체언어 성취기준과 극문학 제재의 연관성과 문제점 및 실려 있는 작품의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 질 것이다. 앞서 연구한 II장에서는 7차 개정교육과정에서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과 문학 성취기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7학년은 <읽기-5>영역에 8학년은 <말하기-4>영역, <읽기-5>영역, 10학년은 <듣기-3>영역에서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으로 교과서 단원을 구성하고 <듣기-4>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가면극 작품을 제재로 구성하고 있었다. 희곡은 7학년은 <문학-1>, <문학-3> 영역에서 8학년은 <문학-4>에서 다루어지고 10학년은 <문학-1>과 <문학-3>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학습활동의 심화하기 혹은 더 읽기자료로도 간혹 문법 영역, 쓰기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극문학이 실려 있다.

1. 개정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극문학 양상

1) 성취기준에 따른 극문학 현황

(1) 7학년 교과서

7차 개정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7학년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은 모두 5개였음을 앞서 확인했다. 이중 시나리오를 제재로 삼은 '<읽기-5>: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와 희곡을 제재

로 삼은 '〈문학-1〉: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해결 과정을 파악한다. 〈문학-3〉: 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⁵⁾

교과서 종류		시나리오 성취기준 / 희곡 성취기준	시나리오 장르 : 드라마, 영화 【학년-학기- 대단원-(중단 원)】	희곡 【학년-학기- 대단원-(중단 원)】	특징 및 비교
교과사 (김)	국어	읽기-5 /문학-3	【1-2-6-(1)】 시나리오 『집으로』 【1-2-6-(2)】 시나리오 『말아톤』	【1-2-5-(2)】 희곡 「빌헬름 텔」 일부(3막3장)	<읽기-5>와 관련하여 두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수 록. <문학-3>과 관련하여 희 곡 작품을 수록함.
	생활 국어	-	-	-	생활국어에는 <읽기-5> 성취 기준 반영 안 됨.
교과사 (남)	국어	읽기-5	【1-2-6-(1)】 영화에 대해 설명하는 제시문	-	<읽기-5>나 문학과 관련 된 극문학작품 수록하지 않음.
	생활 국어	-	-	-	<읽기-5>나 문학과 관련 된 극문학작품 수록하지 않음.
금성 (윤)	국어	읽기-5 + 문학-1	【1-2-7-(2)】 영화에 대해 설명하는 제시문, 시나리오	【1-1-8-(2)】 희곡의 갈등을 설명한 제시문, 희곡 「오아시스」	<읽기-5>와 관련하여 두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수 록 하였고, <문학-1>과 관 련하여 별도의 희곡작품을 수록하였음.

25)예외: '좋은책 신사고'와 '해냄' 교과서는 시나리오가 아닌 드라마 극본을 실었고 그 이유는 표에서 밝
힘

			『말아톤』	세탁소 습격사건」 결말부분	
	생활 국어	읽기-5	【1-2-7】 시 나리오 『말아톤』	【1-1-8】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심화 활동	국어와 마찬가지로 생활국어에서도 시나리오와 희곡을 수록하고 이를 심화하였음.
대교 (박)	국어	읽기-5 +문학-1	【1-2-4-(1)】 시나리오 『말아톤』 【1-2-4-(2)】 소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영화 평론	【1-1-5-(2)】 희곡 「원술랑」 부분(3막 2장)	<읽기-5>와 관련하여 시나리오, 영화화된 소설, 그리고 영화 평론을 수록하였고 <문학-1>과 관련하여 별도의 희곡 작품을 수록.
	생활 국어	읽기-5 단독	국어에 실린 작품들에 대한 실제 활동	-	국어와 달리 생활국어에는 문학 영역에서 극문학 영역을 다룬 단원이 구성되지 않았음.
대교 (왕)	국어	읽기-5 +문학-1	【1-1-5-(3)】 시나리오 『말아톤』	-	<읽기-5>가 <문학-1>과 결합되면서 시나리오 대본이 문학의 영역으로 흡수되는 구성.
	생활 국어	읽기-5 +문학-1	【1-1-5-(2)】 활동 위주의 구성	-	국어와 구성면에서 동일하되, 시나리오 작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활동위주로만 구성.
두산 (우)	국어	읽기-5 +문학-3	【1-2-2-(2)】 시나리오 『열세 살, 수아』	-	시나리오 한 편으로 <읽기-5> 구현.
	생활 국어	읽기-5 +문학-1 +문학-3	【1-2-2-(1)】 시나리오 『말아톤』 감상문 제시	-	<읽기-5>에 대한 관련 단원 비중 대거 축소.
디딤돌	국어	읽기-5	【1-1-4-(2)】	-	시나리오가 한 편으로 <읽

(김)		+문학-1	시나리오 『꽃 피는 봄이 오면』		기-5> 구현.
	생활 국어	읽기-5 +문학-1	【1-1-4-(2)】 「아홉 살 인생」의 소설 작품과 시나리오 대본 비교 수록 (활동 문제 중심)	-	각색 작품 「아홉 살 인 생」의 소설적인 측면과 영화적인 측면 비교 학습.
디딤돌 (이)	국어	읽기-5 +문학-1	【1-1-4-(3)】 시나리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수록	-	시나리오 한 편으로 <읽기 -5> 구현.
	생활 국어	읽기-5 +문학-1	【1-1-4-(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소설 작품과 시나리오 비교 수록, 시나리오 『말아톤』 (활동 문제)	-	활동 문제 형태로 두 편의 시나리오와 원작 소설을 수록.
미래엔 킬처 (윤)	국어	읽기-5 단독	【1-1-7-(1)】 시나리오 「아홉 살 인생」	-	시나리오 한 편으로 <읽기 -5 >구성/<말하기-2> '대 화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호소력 있게 말한다.'를 구안하기 위해 서 영화 『언니가 이해하 셔야 돼요』 수록. 【1-2-2-(2)】
	생활 국어	읽기-5 단독	【1-1-7】 영화에 관한 심화 활동	-	영화와 관련된 활동으로 <읽기-5> 구현.

미래엔 컬처 (이)	국어	읽기-5 +문학-1	【1-1-5-(2)】 시나리오 『말아톤』	-	시나리오 한 편으로 <읽기-5> 구현.
	생활 국어	읽기-5 +문학-1	【1-1-5-(2)】 시나리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생활국어로는 시나리오 지문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읽기-5> 구현.
박영사 (송)	국어	읽기-5	영화에 대해 설명하는 제시문 두 편, 【1-2-6-(3)】 시나리오 『집으로』 (중략을 사용하여 거의 전문 수록)	【1-1-6-(2)】 각색 희곡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매체언어의 성취 기준과는 별도로 희곡 작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수록했으나, 극문학 장르의 특징이 분명하게 두러나지 않음.
	생활 국어	읽기-5	【1-2-6】 영화 이해를 위한 제시문 두 편, 『집으로』 감 독과의 인터뷰	【1-1-6-(3)】 희곡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극히 일부	국어와 매체언어의 연계학습이 강조되어 국어에 제시되었던 시나리오 『집으로』의 감독 인터뷰가 수록되었고, 「아기장수 우투리」와 연계시킬 수 있는 희곡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가 수록되었음.
비상 (조)	국어	읽기-5 +문학-1	【1-1-5-(3)】 장길수 각색 『초승달과 밤배』, (선택학습) 시나리오 『집으로』	-	매체언어 관련 작품으로 시나리오 『초승달과 밤배』를 수록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작품의 장르가 분명하지 않음.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로 판단되지만 애니메이션 시나리오와 관련된 학습활동은 이루어 지지 않음. '선택학습'으로 시나리오 『집으로』를 수록할 때, 작품의 흐름을 고심하지

					않고 임의로 발췌하여 수록했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특징을 학습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음.
	생활 국어	-	-	-	국어에 해당하는 생활국어 단원이 없음.
새롭 (권)	국어	읽기-5 +문학-1	【1-2-2-(2)】 시나리오 『말아톤』	【1-2-2】 (더 읽을거리) 회곡 「동승」	<읽기-5>를 구현하기 위해 시나리오 『말아톤』을 수록하였고, '더 읽을거리'로 「동승」을 수록했으나 「동승」은 <읽기-5>의 성취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생활 국어	읽기-5 +문학-1	【1-2-2-(2)】 시나리오 『열세 살, 수아』, 시나리오 『서편제』, 시나리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세 편의 시나리오를 수록하고 이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시.
좋은 책 (이)	국어	문학-1	【1-1-3-(2)】 드라마 대본 『라이벌』 한 회 방영분	-	<문학-1> 성취 기준을 위해 드라마 대본을 수록.
	생활 국어	읽기-5 +문법-5	【1-2-2-(1)】 시나리오 『집으로』를 부분적으로 발췌 수록	-	『집으로』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심하지 않고 수업을 위해서 기능적으로만 발췌, 읽기 영역임에도 생활국어에만 반영.
용진 (이)	국어	읽기-5 +문학-1	【1-1-6-(2)】 시나리오 『말아톤』	-	시나리오 한 편으로 <읽기-5> 구현.
	생활 국어	읽기-5 +문학-1	【1-1-6-(2)】 영화 제작과 관련된 활동	-	국어에서의 제시문을 활용하여 영화 관련 심화 활동을 제시.
지학사	국어	읽기-5	【1-1-5-(2)】	-	시나리오 한 편으로 <읽기

(방)		+문학-1	시나리오 『상록수』		-5> 구현.
	생활 국어	읽기-5 +문학-1	【1-1-5-(2)】 시나리오 『아홉 살 인생』, 시나리오 『내 마음의 풍금』, 시나리오 『슈퍼스타 감사용』, 시나리오 『꽃 피는 봄이 오면』	-	국어 교과서와 달리 4편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 나 작 작품은 매우 일부분 만 수록.
지학사 (이)	국어	읽기-5 +문학-1	【1-1-6-(2)】 시나리오 『달리는 차은』 (전문 수록)	-	단편 영화를 선정하여 전 문을 수록할 수 있었음. 시 나리오 한 편으로 <읽기 -5>구현.
	생활 국어	읽기-5 +문학-1	【1-1-6-(2)】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과 시나리오 대본 비교 수록 (활동문제 중심)	-	시나리오와 소설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음.
창비 (김)	국어	읽기-5 +문학-3	【1-2-5-(2)】 시나리오 『식객』	-	시나리오 한 편으로 <읽기 -5> 구현.
	생활 국어	읽기-5 +문학-3	【1-2-5-(2)】 『식객』 에 관련된 심화 활동	-	국어에 실린 시나리오 작 품을 중심으로 활동 전개.
천재	국어	읽기-5	【1-1-6-(1)】	-	두 편의 시나리오 작품으

(김)		단독	시나리오 『빌리 엘리어트』, 【1-1-6-(2)】 시나리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로 두 개의 중단원 구성. <읽기-5> 구현.
	생활 국어	-	-	-	생활국어에서는 <읽기-5> 성취 기준을 반영하지 않 음.
천재 (노)	국어	읽기-5 +말하기- 2	【1-2-5-(1)】 시나리오 『아홉 살 인생』	-	시나리오 한 편으로 <읽기 -5> 구현.
	생활 국어	읽기-5 +말하기- 2	【1-2-5-(1)】 시나리오 『집으로』, 시나리오 『말아톤』	-	생활국어 임에도 『말아 톤』을 길게 수록하고 있 음.
천재 (박)	국어	읽기-5 +문법-1 +듣기-2	【1-1-4-(2)】 단편 애니메이션 필름 『그 여자의 집』 (스틸 컷으로 수록)	-	매체관련 성취 기준으로 대단원을 구성했음. 시나리 오 텍스트가 아닌 필름(사 진)을 수록했고, 영화 시나 리오가 아닌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수록했지만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향을 제 시하지는 못했음.
	생활 국어	-	-	【1-2-3】 연극 활동과 관련된 대단원 편성	<읽기-5> 성취기준을 위 한 영화 시나리오 단원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학 -1>과 <쓰기-4>의 복합단 원으로 연극관련 대단원 편성.
해냄 (오)	국어	읽기-5 +말하기-	【1-2-3-(1)】 시나리오	-	<읽기-5> 성취기준을 충 족하기 위해 두 편의 시나

		3	『초승달과 밤배』, (심화학습) 시나리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1-1-5-(1)】 드라마 대본 『말아톤』 (부분 #1-20)		리오 수록, 매체언어 성취 기준끼리 결합하여 대단원 구성 <문학-1> 성취 기준을 위해 드라마 대본 수록.
	생활 국어	읽기-5 +말하기-3	【1-2-3-(1)】 시나리오 『집으로』	-	생활국어에도 시나리오 수록.
중앙 (이)	국어	읽기-5 +문학-1	【1-1-5-(3)】 시나리오 『꽃 피는 봄이 오면』	-	시나리오 한 편으로 <읽기-5> 구현.
	생활 국어	읽기-5 +문학-1	【1-1-5-(3)】 시나리오 『꽃 피는 봄이 오면』 관련된 심화활동	-	국어에 실린 작품을 이용한 활동 제시.

[표 3] 7학년 교과서의 극문학 제재 양상

매체언어 성취기준(읽기-5)을 교과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극문학 장르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7학년은 전체 23종 교과서 가운데 읽기-5의 성취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품을 수록한 특징을 제외하고 희곡을 수록한 교과서는 7종에 불과하다. 그나마 ‘좋은책 신사고’ 국어 교과서에는 읽기-5와 관련된 단원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교과서에 수록된 드라마 대본 『라이벌』은 유일하게 수록된 극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금성’과 ‘박영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5종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 중 어느 한 쪽에만 극문학 제재를 수록했

으며, 그것도 대개 중 단원 한 당원정도의 비중으로만 극문학 영역을 다루고 있다.

교과서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개는 1개의 대단원에 1~3개 정도의 성취 기준이 1~3개 정도의 학습목표로 반영되었는데,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화 관련 성취 기준(읽기-5)은 23종 교과서에서 총 40개의 단원으로 편성되었다. 40개 중에서 11개의 단원이 읽기-5 단독 단원이고 나머지 29개 중에서 문학영역 성취 기준(문학-1 연계가 21개, 문학-3 연계가 4개)과 결합된 단원이 23개이다. 다시 말해서 읽기-5와 관련된 단원 중 절반 이상이 문학영역 성취 기준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과서 집필자들은 읽기-5를 구안하면서 문학 장르에서 극문학작품(시나리오 혹은 드라마 대본)을 이미 다루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문학영역 성취 기준을 구현할 때는 별도의 극문학작품을 취택하지 않았다.(주로 시, 소설, 수필, 고전소설, 설화 등을 채택했다). 이것은 극문학작품의 본질과 특색에 대해 교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추후에 논의하겠지만, 그나마 실려 있는 극문학 제재들은 중복이 심하다. 이것은 다른 학년을 보아도 비슷한 실정이다.

(2) 8학년 교과서

7차 개정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8학년 매체언어 관련성취기준은 5개였고, 이 중 드라마 대본을 제재로 삼은 것은 ‘<말하기-4>: 드라마의 인물이 되어 반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와 부분적 이지만 ‘<읽기-5>: 다양한 풍자물의 매체 특성과 그 효과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를 바탕으로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제재로 활용하고 있다. 희곡은 ‘<문학-4>: 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를 바탕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종류		시나리오 성취기준/ 희곡 성취기준	드라마, 시나리오 【학년-학기-대 단원-(중단원)】	희곡 【학년-학기-대 단원-(중단원)】	특징 및 비교
교학사 (남)	국어	말하기-4+문 학-4	【2-1-2-(1)】 드라마 대본 『최강 울 엄마』 (아버지와 아들 편) (스스로 학습) 라디오 드라마 『몽실 언니』 【2-2-3-(1)】 (스스로 학습) 시나리오 『아홉 살 인생』	【2-1-2-(1)】 (스스로 학습) 뮤지컬 「천상 시계」 【2-2-3-(2)】 희곡 「새야 새야 파랑새야」	1학기는 <말 하기-4>를 성취하기 위 해 드라마 대 본을 수록하 고 2학기에는 <문학-4>를 성취하기 위 해 희곡을 수 록.
	생활 국어	-	-	-	<말하기-4>, <문학-4> 성 취기준 구현 하지 않음.
금성(윤)	국어	말하기-4	【2-1-6-(1)】 시나리오 『달리는 차은』	-	<말하기-4> 를 성취하기 위해 단편영 화 시나리오 를 수록.
	생활 국어	-	-	-	
대교(박)	국어	말하기-4	【2-2-2-(2)】 드라마 대본 『챔피언』	-	<말하기-4> 를 성취하기 위해 청소년 드라마 『반

					올림』에서 에 피 소 드 『챔피언』을 선택하여 수 록.
	생활 국어	-	-	-	-
대교(왕)	국어	말하기-4	【2-1-4-(2)】 드라마 대본 『내 편이 되어 줘』	-	<말하기-4> 를 성취하기 위해 청소년 드라마 『반 올림』에서 에 피 소 드 『내 편이 되 어 줘』를 선 택하여 수록.
	생활 국어	말하기-4	-	-	학생활동 중 심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 다. (예: 사진 을 보고 인물 의 감정 추측 하기, 어울리 는 대사 만들 기 등)
디딤돌 (김)	국어	읽기-5 +말하기-4	【2-2-5-(3)】 드라마 대본 『유리 구두를 찾아서』	【2-1-7-(2)】 뮤지컬 「시집가는 날」	<읽기-5>를 성취하기 위 해 1학기에는 희곡→뮤지컬 로 재해석된 「시집가는 날」을 실었 고 2학기에는 <말하기-4> 를 성취하기 위해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의 에피소드인 「유리 구두를 찾아서」를 수록함.
	생활 국어	말하기-4	【2-2-5】 (활동-1) 애니메이션 『오세암』 일부 수록	【2-2-5】 (활동-2) 희곡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짧게 일부 수록	<말하기-4>를 성취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의 대본과 희곡을 각각 짧게 지문을 구성하여 수록하고 있음.
미래엔 컬처 (윤)	국어	말하기-4	【2-2-5-(1)】 드라마 대본 『쌍둥이의 겨울나기』	-	<말하기-4>를 성취하기 위해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중 에피소드 『쌍둥이의 겨울나기』 수록.
	생활 국어	말하기-4	【2-2-5-(1)】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활동	-	<말하기-4>를 성취하기 위해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활동을 수록.
미래엔 컬처 (이)	국어	말하기-4 +읽기-5	【2-1-5-(2)】 드라마 대본 『10년 후의 약속』	-	<말하기-4>와 관련하여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

			<p>【2-2-2-(2)】 애니메이션 『동물농장』 삽화로 수록</p>		<p>림』의 에피 소드인 『10 년 후의 약 속』을 수록. <읽기-5>를 성취하기 위 해 애니메이 션 『동물농 장』을 삽화 로 수록하고 삽화를 바탕 으로 애니메 이션 속 풍자 내용을 이해 하고자 함.</p>
	생활 국어	말하기-4	<p>【2-1-5-(2)】 시나리오 『집으로』 (# 83 일부 수록), 시나리오 『동승』 (일부 수록), 드라마 대본 『비밀의 교정』 (일부 수록)</p>	-	<p>다양한 지문 들을 통해 <말하기-4> 를 이해하고 자 하는 학습 활동을 수록</p>
비상 (조)	국어	말하기-4 +문학-4	<p>【2-2-3-(1)】 (선택학습) 시나리오 『YMCA 야구단』</p>	【2-2-3-(1)】 희곡 「들판에서」	<p><말하기-4> 를 성취하기 위해 시나리 오를 수록, <문학-4>를 성취하기 위 해 희곡을 수 록함.</p>
	생활 국어	말하기-4	<p>【2-2-3-(2)】 드라마 대본 『선죽교의</p>	-	<p><말하기-4> 를 성취하기 위해 국어3단</p>

			핏자국, 정몽주의 충절』		원에서 다른 역사적 사건 을 드라마로 제작한 사극 의 대본을 수 록함.
새롭 (권)	국어	말하기-4	【2-1-6-(1)】 드라마 대본 『대왕 세종』, (학습활동1) 드라마 대본 『한여름 낮의 꿈』, (학습활동2) 소설을 드라마 대본으로 만들기 『자전거 도둑』	-	<말하기-4> 를 성취하기 위해 드라마 대본을 수록 함. 학 습 활 동 을 통해 <말하기 -4>를 좀 더 확장하여 성 취하고자 또 다른 드라마 대본을 짧게 학 습 활 동 에 수 록 하 였 고 소설 「자전거 도둑」을 바 탕으로 직접 드라마 대본 을 각색해보 는 활동 제시.
	생활 국어	-	-	-	-
좋은책 (이)	국어	문학-4 +말하기-4	【2-2-5-(1)】 드 라마 대본 『사랑과 우정 사이』	【2-1-4-(2)】 희곡 「맹 진사 댁 경사」 (1막1,2장 수록)	1 학 기 에 는 <문 학-4>를 성취하기 위 해 희곡을 수 록. 2 학 기 에 는 <말하기-4> 를 성취하기

					위해 드라마 대본을 수록 함.
	생활 국어	-	-	-	-
지학사 (방)	국어	말하기-4 +읽기-5	【2-1-3-(1)】 드라마 극본 『챔피언』, 【2-2-3】 (더 읽을거리) 라디오 드라마 『양반전』	-	<말하기-4> 와 관련하여 드라마 대본 을 수록. 이 드라마는 청 소년 드라마 『반올림』 중 『챔피언』 에 피소드 수록 <읽기-5>의 풍자물과 관 련하여 라디 오 드라마 수 록.
	생활 국어	말하기-4	【2-1-3-(1)】 시나리오 『집으로』 한 장면 (# 72 일부 수록)	【2-1-3-(1)】 희곡 「세종대왕」 일부(3막2장)	<말하기-4> 를 성취하기 위해 시나리 오와 희곡을 수록. (각각 극히 일부만을 수 록)
지학사 (이)	국어	말하기-4	【2-1-3-(1)】 드라마 속 인물의 말과 몸짓에 관한 설명문, 드라마 『반올림』	-	<말하기-4> 를 성취하기 위해 설명문 과 그 설명에 맞는 장면을 드라마 『반 올림』의 에 피소드들을 인용하여 함

					게 제시하고 있는 복합지문의 형식.
	생활 국어	말하기-4 +문학-4	【2-1-3-(1)】 드라마 대본 (작품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	【2-1-3-(1)】 희곡 「원술랑」 (짧은 단락 수록)	<말하기-4>와 <문학-4>의 복합 활동으로 희곡을 수록함.
창비 (김)	국어	말하기-4	【2-2-6-(2)】 드라마 대본 『동행』 【2-2-6】 (적용 활동) 드라마 대본 『베토벤 바이러스』 (일부 수록)	-	<말하기-4>를 성취하기 위해 드라마 대본 수록. 한 단원을 끝내는 (적용 활동)에도 짧게 『베토벤 바이러스』를 수록함.
	생활 국어	-	-	-	<역할극 하기>로 소단원이 제시되어 있으나 임의의 지문을 수록하고 학생들이 직접 창작하는 활동
천재 (노)	국어	말하기-4	【2-2-5-(1)】 드라마 대본 『개성과 콤플렉스』	-	청소년 드라마를 채택하여 <말하기-4>를 성취하고자 함.
	생활 국어	문학-4	【2-2-1-(1)】 시나리오 『태극기 휘날리며』	-	활동1)중 시나리오를 선택하여 <문학-4>를 성취하고자 함. 이

					때 선택한 시나리오는 특별한 상황(전쟁)속에서 인물의 행동이 잘 드러나는 시나리오를 선택.
해냄 (오)	국어	읽기-5 +문학-4 +말하기-4	<p>【2-1-6-(1)】 드라마 대본 『핸드스프링으로 날다』, 【2-2-4-(1)】 시나리오 『당신과 나 사이』</p>	<p>【2-1-4-(1)】 희곡 「시집가는 날」 (2막 2장 수록) 【2-1-6-(1)】 희곡 「꿈꾸는 별들」</p>	<p><읽기-5>와 <문학-4>을 성취하기 위해 희곡을 수록. 다만, 희곡 「꿈꾸는 별들」은 <말하기-4>를 성취하기 위해 드라마 대본과 함께 실렸다. <말하기-4>를 성취하기 위해 드라마 대본이 아닌 시나리오를 수록하였다.</p>
	생활 국어	말하기-4	<p>【2-1-6-(1)】 드라마 대본 『표류』</p>	-	생활국어에는 라디오 대본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학생중심 활동을 통해 인상 깊었던 연극을 정리하고

					<말하기-4> 를 이해하도 록 하였다.
--	--	--	--	--	-----------------------------

[표 4] 8학년 교과서의 극문학 제재 양상

드라마 대본 관련 <말하기-4>성취기준만을 반영한 교과서는 전체 15종 교과서 가운데 5종이고 나머지는 다른 성취기준과 연계되어 수록되어 있다. 8학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7학년 영화 시나리오와 다르게 다양한 드라마 대본들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에서 각각 에피소드들을 교과서마다 다르게 택하여 실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올림』은 유니버스 구조의 드라마이다. 한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은 같지만 주제와 사건이 다르지만 청소년 드라마답게 커다란 주제는 사춘기 고민, 첫사랑, 성적, 우정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담화의 범위에서 위배되지 않은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 또한 흥미로운 학습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7학년에서는 희곡의 수록이 현저하게 낮았고 이러한 이유를 앞서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이후 출판된 8학년은 수록된 희곡은 많은 개선이 보였다. 아직도 극문학이라는 커다란 영역 안에서 빛을 잃어버린 희곡의 양이지만 수록된 제재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작품이 실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분석을 하면서 밝히겠지만 7학년 때 언급되었던 희곡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을 비롯해 「대왕 세종」, 「천상시계」, 「꿈꾸는 별들」은 과거의 작품세계에서 새로운 얼굴로 나타났다. 「원술랑」과 「빌헬름 텔」로 얼룩졌던 희곡교육에서 벗어나 현재 무대에서 공연되어졌던 창작극을 검토하고 교과서에 실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3) 10학년

7차 개정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10학년 매체언어 관련성취기준은 5개였고, 이중 드라마 대본 및 시나리오를 제재로 삼은 것은 '<듣기-3>: 사회 방언을 듣고 언어적 다양성을 이해한다.' 이었다. 그리고 '<듣기-4>: 공연 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특성을 이해한다.'는 우리 고유의 가면극으로 제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문학-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 와 '<문학-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를 바탕으로 한 제재안에서 듣기영역과 문학영역을 함께 성취하고자 하였다. 또 '<문학-2>: 문학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한다.'의 성취기준을 위해 극문학 제재를 수록하였는데 7차 개정 국어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담화의 범위는 작가의 성격, 취미, 인생관이 드러나는 수필로 지정한 것에 위배되는 오류를 범한 교과서도 있었다.²⁶⁾

교과서 종류		시나리오 성취기준 / 희곡 성취기준	드라마, 시나리오 【학년-대단원 -(중단원)】	희곡 【학년-대단원 -(중단원)】	특징 및 비교
교학사 (조)	상	듣기-4	-	【1-3-(2)】 가면극 「봉산탈춤-제 7과장 미알춤」, (생각 넓히기) 희곡 「춘풍의 처」	「봉산탈춤」의 제7과장인 「미알춤」을 수록하여 <듣기-4>를 성취하고자 함. (생각 넓히기)의 대단원 마무리 활동에 희곡을 수록.
	하	듣기-3	【1-2-(2)】 드라마 대본	-	<듣기-3>영역을 성취하기 위해 드라마 대

26) 금성(윤)출판사의 국어(하)

			『외과 의사 봉달희』 시나리오 『동감』 (매우 짧게 수록)		본과 시나리오를 매우 짧은 단락 수록.
금성(윤)	상	듣기-4	-	【1-6-(3)】 가면극 「양주 별산대놀이」	<듣기-4>영역을 성 취하기 위해 가면극 수록.
	하	문학-2	-	【1-1-(3)】 희곡 「결혼」	<문학-2>와 제제가 올바르지 않음.
두산 (우)	상	듣기-4	【1-2-(3)】 시나리오 『서편제』	-	<듣기-4>를 성취하 기 위해 시나리오를 수록.
	하	듣기-3	【1-5】 설명문+ (대단원 통합하기) 드라마 대본 『베토벤 바이러스』	-	대단원 통합하는 학 생중심의 활동에 시나 리오를 일부 수록. (총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 3개의 단원은 모두 설명문으로 본고 에서는 언급하지 않겠 다.)
중앙 (박)	상	듣기-4		【1-2-(3)】 가면극 「봉산탈춤-제 6과장 양반춤」	<듣기-4>를 성취하기 위해 「봉산탈춤」 중 제6과장 「양반춤」 수록.
	하	-	-	-	-
디딤돌 (이)	상	듣기-4	-	【1-4-(1)】 가면극 「봉산탈춤-제 6과장 양반춤」	<듣기-4>를 성취하기 위해 「봉산탈춤」 중 제6과장 「양반춤」 수록.
	하	쓰기-5	【1-3-(2)】 비평문 『영화로 읽는 세상-영화 '웰컴 투	-	<쓰기-5>를 구현하고 자 비평문과 비평문에 서 제제로 쓰인 시나 리오를 함께 수록함

			동막골', 시나리오 『웰컴 투 동막골』		
미래엔 컬쳐 (윤)	상	-	-	-	-
	하	듣기-3 +듣기-4	-	【1-4-(2)】 가면극 「봉산탈춤-제 6과장 양반춤」	<듣기-4>와 <듣기-3>을 성취하기 위해 「봉산탈춤」 중 제6과장 「양반춤」 수록.
좋은책 (민)	상	듣기-4 +문학-1	-	【1-6-(1)】 가면극 「봉산탈춤-제 6과장 양반춤」, 【1-6-(2)】 희곡 「결혼」	<듣기-4>와 <문학-1>을 성취하기 위해 「봉산탈춤」 중 제6과장 「양반춤」 수록.
	하	듣기-3	【1-1-(2)】 시나리오 『킹콩을 들다』	-	<듣기-3>를 성취하기 위해 시나리오 수록.
비상 (한)	상	듣기-4	-	【1-6-(1)】 가면극 「봉산탈춤-제 6과장 양반춤」	<듣기-4>를 성취하기 위해 「봉산탈춤」 중 제6과장 「양반춤」 수록.
	하	듣기-3	【1-1-(2)】 만화 『네가 있어서 좋아』	-	<듣기-3>을 성취하기 위해 만화를 삽입.
천재 (김대행)	상	문학-1	-	【1-1-(3)】 희곡 「햄릿」	<문학-1>을 성취하기 위해 희곡 수록.
	하	-	-	-	-
천재 (김종철)	상	-	-	-	-
	하	듣기-4	-	【1-6】 (대단원 학습활동) 가면극	학생중심 학습활동에 「봉산탈춤」 중 제6과장 「양반춤」 일부 수록.

				「봉산탈춤-제 6과장 양반춤」 (일부 수록)	
천재 (박)	상	듣기-4	【1-5】 (더 읽을거리) 시나리오 『왕의 남자』	【1-5-(3)】 가면극 「봉산탈춤-제 6과장 양반춤」	<듣기-4>를 성취하기 위해 「봉산탈춤」 중 제6과장 「양반춤」 수록.
	하	문법-3	-	【1-1-(3)】 희곡 <결혼>	<문법-3>을 성취하고자 희곡을 수록.
창비 (문)	상	듣기-4	-	【1-4-(2)】 가면극 「봉산탈춤-제 7과장 미얄춤」	<듣기-4>를 성취하기 위해 「봉산탈춤」 중 제7과장 「미얄춤」 수록.
	하	-	-	-	-
해냄 (오)	상	듣기-4	-	【1-7-(2)】 가면극 「봉산탈춤-제 7과장 미얄춤」	<듣기-4>를 성취하기 위해 <봉산탈춤> 중 제7과장 「미얄춤」 수록.
	하	문학-1+3	-	【1-3-(2)】 희곡 「결혼」	문학1+3의 복합 활동으로 희곡제재 수록.
지학사 (조)	상	듣기-3	【1-4-(1)】 드라마 대본 『도시락 절도사건』	-	<듣기-3>를 성취하기 위해 청소년 드라마 「학교」의 한 에피소드인 「도시락 절도사건」 수록.
	하	문학-3	-	【1-5】 (작품 더 읽기) 희곡 「동승」	<문학-3>를 성취하기 위해 희곡 수록.
지학사 (방)	상	듣기-4	-	【1-5】 (선택학습) 희곡 「신」	<듣기-4>를 성취하기 위해 마당극 극본을 수록.

				이춘풍전」	
	하	-	-	-	-
	상	-	-	-	-
더 텍스트 (김)	하	듣기-4	-	【1-4-(2)】 가면극 「봉산탈춤-제 7과장 미알춤」, (생각 모으기) 희곡 「결혼」	<듣기-4>를 성취하기 위해 <봉산탈춤>중 제7과장 <미알춤> 수록. 학생중심 활동에 희곡을 수록.

[표 5] 10학년 교과서의 극문학 제재 양상

매체언어 성취기준 <듣기-4>는 교과서에 총 16종중 14종에 실렸다. 즉 모든 교과서에 걸쳐 반영된 모습이였다. 그리고 매체언어 성취기준은 아니지만 <듣기-3>을 구현하기 위해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 중에 제재를 택하여 수록한 교과서는 7종이 있었다. 이것은 앞서 7, 8학년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한 문제점 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가 극문학 범주에 들어가 있지만 문학적 효용성을 뒤로한 채 광범위하게 학습자료 로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매체언어라는 보이지 않은 영역 때문에 겉보기에는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가 많이 실린 것 같지만 극문학자체의 본질과 특색에는 맞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10학년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제재는 「봉산탈춤」이다. 10학년 매체언어 성취기준에 공연예술을 위해 우리 고유의 가면극인 「봉산탈춤」을 제재로 택하여 수록한 것은 과거 6,7차 교과서들과 크게 차이는 없다. 공연예술의 제재로 다른 연극도 찾아 볼 수 있으나 「봉산탈춤」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실은 것은 우리 고전문학에서 「봉산탈춤」이 고전 가면극 중에 잘 짜여 있고 교육적 극 제재로 손색이 없기 때문일 것이며, 지나치게 현대극만 제재를 신는다면 우리 극문학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방침으로 여겨진다. 다

만 아쉬운 점은 언제까지 제6과장 「양반춤」만을 가지고 「봉산탈춤」을 얘기할 것인지 아쉬움이 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7과장인 「미알춤」을 선택하고 「양주별산대놀이」를 활용한 교과서들도 보이는데, 이 교과서들이 적절한 대안점이라고 보여 진다.

2) 극문학 관련 단원의 편성과 한계

(1) 7학년 교과서 단원 구성의 편성과 한계점

① 영화관련 단원 구성의 문제점

23종 교과서에서 읽기-5와 관련되어 편성된 단원은 총 40개이다. 이 40개의 단원을 분석하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40개의 단원에 제시된 지문(작품, 제시문 포함)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40개의 단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영화 관련 작품(주로 시나리오)을 수록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영화에 관련된 제시문(영화의 이론과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글 또는 영화 비평문)을 수록하는 방식이며, 셋째는 작품과 설명하는 글을 함께 수록한 방식이다.

교과서 별로 체계가 다르고 성취 기준과 학습 분량을 안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식이 일방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영화의 미학과 형식에 생소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작품만을 제시하고 기계적인 학습활동을 배치하는 것은 교과서 성취 기준 생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다. 많은 교과서들이 영화는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익숙한 장르라는 선입견에 따라 작품을 수록하고 학습활동을 제시하면 영화에 대한 이해가 손쉽게 가능할 것이라고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것은 영화의 미학과 형식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인 영화에 대해 설명하는 글만 제시한 교과서는 '교학사(남)' 한 종뿐이다. 셋째 유형인 영화작품과 영화 설명글을 동시에 수록한 교과서는 '금성, 대교(박), 박영사'로 모두 3종이다. 이 세 교과서는 국어 교과서에서 시나리오와 영화 이론에 대한 설명하는 글을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국어에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심화활동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금성' 교과서는 국어 교과서에서 실었던 『말아톤』을 생활국어 교과서에 다시 수록하여 심화학습을 유도했고, 박영사 교과서는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집으로』와 연계하여 생활국어 교과서에 『집으로』 감독의 인터뷰를 수록하여 심화학습을 유도했다. 이러한 두 교과서의 체계는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다양한 측면에서 영화 관련 성취 기준을 충족하도록 이끌었다.

총 40단원 중에서 7단원을 제외한 33단원은 첫 번째 유형인 작품 수록형에 해당된다. 작품 수록 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국어 교과서에서만 읽기-5를 구현하고 생활국어 교과서에서는 이를 제외한 유형이다. '교학사(김), 비상, 천재(김), 천재(박)'이 여기에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국어 교과서가 아니라 생활국어에서만 읽기-5를 구현한 '좋은책 신사고'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총 다섯 개의 단원이 국어 교과서 수록 형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생활국어 교과서에서는 별도의 작품 제시 없이 학습활동만 제시하는 유형이고, 마지막 하나는 생활국어 교과서에도 작품을 제시하고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유형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교과서는 4종으로 모두 8단원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교과서는 10종으로 모두 20단원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교과서는 '대교(왕), 두산동아, 미래엔컬처(윤), 웅진'이고 후자에 속하는 교과서는 '디딤돌(김), 디딤돌(이), 미래엔컬처(이), 새롬, 중앙, 지학사(방), 지학사(이), 창비, 천재(노), 해냄'이다.

유형	교과서 종류와 해당 단원 수(23종 40단원)	세부유형	해당 교과서	통합 유형 번호
1. 작품만 수록	19종류 33단원	① 국어와 생활국어 중에 서 한 쪽에서만 읽기-5 구현 (5종 5단원)	교학사1(김), 비상, 천재(김), 천재(박), 좋은책(생활국어)	1-①
		② 생활국어에서 학습활 동 (실제 활동)만 제시(4종 8단원)	대교(왕), 두산동아, 미래엔컬처(윤), 웅진	1-②
		③ 생활국어로 작품 제시 하고 새로운 이해 요구 (10종 20단원)	디딤돌(김), 디딤돌 (이), 미래엔컬처(이), 새롬, 중앙, 지학사 (방), 지학사(이), 창 비, 천재(노), 해냄	1-③
2. 영화 설명 글만 수록	1종 1단원		교학사(남)	2유형
3. 작품과 영화 설명 글 동시 수록	3종 6단원		금성, 대교(박), 박영 사	3유형

[표 6] 읽기-5영역의 교과서 단원 유형

위의 표를 참조하면 2010년에 도입되는 7학년 국어과목 교과서에서 읽기-5를 구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영화와 관련된 작품을 국어 교과서에서 수록하고 생활국어에서도 작품을 별도로 제시하거나 혹은 국어 교과서와 같은 작품을 수록하여 내용이해를 돕는 (1-③유형)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전체 교과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가장 친절한 유형이라고 여겨지는 영화 작품과 설명 글을 동시에 수록하는 3유형은 전체 교과서의 1/10, 전체 단원의 1/7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읽기-5를 구현하는 데에 가장 적당하지

않은 유형으로 여겨지는 2유형은 1종 1단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지식, 기능뿐만 아니라 맥락을 중시하는 7차 개정 교육과정안에 제시된 단독 체제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1-①유형과 1-②유형, 1-③유형은 개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①유형은 국어 교과서나 생활국어 교과서의 한 쪽에서만 읽기-5를 구안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체계는 읽기-5에 대한 심도 있는 교수-학습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 교과서 별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한 쪽 교과서에만 반영된다면 심화학습이나 실제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책 신사고는 매우 우려스러운 체계를 표방하고 있다. 생활국어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취기준 읽기-5를 생활국어에만 구현하는 것은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좋은책 신사고의 경우에는 읽기-5와 문학의 복합적인 학습목표를 표방했고 읽기-5에 해당하는 단원 분량도 중단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학습량에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천재(박)교과서도 세 개의 성취기준을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국어 교과서에 읽기-5를 반영하지 않아서 학습 분량의 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1-②유형은 평범한 유형이다. 기존 교과서가 대체적으로 고수한 대로 국어 교과서에서는 내용 이해를 위주로 학습하고 생활국어 교과서에서는 실제 활동을 통해 이를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학습이 진행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보편적이어서 구태의연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닌다.

1-②유형 중에서 가장 문제적인 교과서는 두산동아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체 10단원 중에서 한 단원을 세 개의 성취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읽기-5에 해

당하는 단원은 국어 교과서의 경우에는 두 번째 중단원이었다. 하지만 생활국어에서는 읽기-5에 관련된 단원이 활동 문제 하나로 축소되었다. 읽기-5의 비중이 축소된 것도 문제이지만 국어와 생활국어의 연계도 불투명하다. 국어에서는 『열세 살, 수아』를 수록했는데, 생활국어에서는 『말아톤』의 감상문을 제시하여 두 교과서의 연계를 파괴했다. 생활국어에서 비록 감상문이라는 다른 형태의 제시문을 사용하여 변화를 꾀하였지만 오히려 학습 부담만 초래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1-③유형은 심화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내재하는 동시에, 과중한 학습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단점도 내재한다. 10종의 교과서 가운데 생활국어 교과서에서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시나리오 작품을 다시 수록한 경우는 중앙, 창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8종의 교과서는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 교과서에 실린 영화 작품이 다른데 특히 새롭고 지학사(방)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은 작품을 수록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새롭고 생활국어 교과서에는 세 편의 시나리오가 더 수록되었고(국어에 실린 더 읽을거리까지 합하면 4편의 시나리오), 지학사(방)은 생활국어에는 무려 4편의 시나리오가 더 수록되었다. 비록 실제 활동 위주로 편성되었고 선택학습도 고려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③유형은 장단점을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국어와 생활국어에서 성취기준 읽기-5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이다. 교과서 체계 중에서는 국어와 생활국어의 내용 편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교과서사 동일 편성을 한다고 할 때²⁷⁾, 두 교과서의 역할 분담과 비중 분산(체제 안배)은 처음부터 면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금성은 국어 교과서에 영화에 대한 제시문과 함께 (『말아톤』 부분)을 수록

27) 김정우, 「'국어'교과서의 영역 통합 양상 분석」, 『독서연구』(22호), 2009.

했고 생활국어에서는 『말아톤』의 다른 부분을 수록하여 그 이해를 넓히고 있다. 여러 종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한 편의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학습 분량을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아도 수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② 희곡 관련 단원 구성의 문제점

희곡작품을 교과서에 구현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적정 작품의 선정 여부이다. 희곡을 제재로 수록된 작품은 6작품이다. 그 중에서 「빌헬름텔」은 외국작품이고, 나머지 5작품은 한국 작품이다. 작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원술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 『라이벌』(2회) 그리고 작품은 아니지만 연극이론을 선정한 경우 등이다. 이 중에서 『라이벌』은 방송 드라마 대본이다. 7학년의 <읽기-5>의 담화성취기준의 범위는 영화 시나리오인데 이 경우는 담화기준이 잘못된 경우이다. 희곡을 제재로 삼은 경우를 살펴보면 「빌헬름텔」은 작품 성정이 잘못된 경우이다. 그것은 성취 기준과 관련이 있다. ‘교학사(김)’은 문학-3 “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택했다.

실제로 이 작품에는 이웃 나라의 정복되어 억압되고 있는 스위스 사람들의 고통과 역사적 상처가 담겨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서 이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상황은 대단히 낯선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장면 전개가 복잡하고 정서가 이질적이어서 학생들이 작품 자체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려 있는 부분은 인물들의 감정이 가장 고도에 도달해 있는 3막 3장으로 태수의 명에 따라 주인공이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떨어뜨리는 장면이다.

인물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이 회곡에서 가장 명장면을 수록하였으나 성취기준과 연결 지어 생각 했을 때는 오히려 거두절미한 꼴이 되었다. 이것은 내용 파악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고 (특히 전체 줄거리 파악을 위해 제시되는 앞 줄거리는 요령부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서는 학습목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인이 된다.

(앞부분 줄거리)

제1막: 바움가르텐이 자기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태수 '볼펜쉬센'을 죽이자, 태수의 기사들이 그의 뒤를 쫓는다. 호수에 도착한 바움가르텐은 사공에게 호수를 건너자고 부탁하지만, 사공은 폭풍을 이유로 거절한다. 그때침 사냥꾼 텔이 나타나 그를 도와준다. 한편 새로 부임해 온 태수 게슬러는 슈타우프파허의 집이 탐나 빼앗으려 한다. 슈타우프파허의 아내는 남편 슈타우프파허에게 자유를 위해 싸우라고 하자 그는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집을 떠난다. 한편 우리 주에서는 불쌍한 주민들을 동원하여 츠빙 우리라는 성체를 짓고 있다. 어느 날, 전령이 와서 긴 막대에 태수의 모자를 걸어 놓고는 사람들에게 지날 때마다 이 모자에 경의를 표하라고 말한다. 우연히 만난 텔과 슈타우프파허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슈타우프파허는 텔에게 함께 맞서 싸우자고 제안한다.

제2막: 아팅하우젠 남작의 저택에서 남작은 조카 루덴츠와 이야기를 나눈다. 남작은 스위스를 힘을 합쳐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하고 루덴츠는 스위스를 위하는 길은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여 숙부와 갈등을 빚고는 떠난다. 한편 운터발덴, 슈비츠, 우리 세 주는 동맹을 맺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자들 에게 맞서 싸울 것을 맹세한다.

제3막: 텔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텔이 장인 발터프뤼스트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아내는 가족을 위해 살라며 말리지만 텔은 둘째 아들 발터를 데리고 집을 떠난다. 한편 루덴츠는 오스트리아의 돈 많은 상속녀인 베르타에게 청혼을 한다. 그러나 베르타는 스위스 인이면서 오스트리아의 편을 들겠다는 루덴츠에게 스위스를 위해 싸우라고 하며 헤어진다.

「원술랑」 역시 과거의 교과서에서 여러 차례 수록된 작품인데²⁸⁾, 전체가 5

28) 3,4차 교육과정시기에는 반공이데올로기로 교과서가 제작되었던 시기이다. 이에 따라 「원술랑」은 충효사상이 높지 요구되는 시기에 발을 맞추어, 단원 설정의 취지 역시 국가관 확립에 효과를 올릴 수 있게 만들어 졌다. 「원술랑」의 내용 자체는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막 7장으로 되어 있는 긴 작품이다. 이것을 교과서에는 3막만 떼어서 실어 놓았다.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얼핏 보아서도 그 자체로도 하나의 완전한 작품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세히 보면 일어나는 사건들의 앞과 뒤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 앞부분의 줄거리를 짚막하게 제시한 것으로는 전쟁에서 지고 돌아온 원술을 보고 자결하라는 김유신의 명령과 어명으로 목숨만 살아서 쫓겨나는 원술의 비참한 처지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 3막을 처음 본 학생들은 '진달래'라는 인물에 대해 혼란스러울 것이다. 어떻게 해서 진달래와 원술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으며 이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 길이 없다. 또한 김유신의 명으로 그의 부인까지 원술을 들여보내지 않는 점은 원술의 비참함을 더욱 극대화시키기는 하나 이 또한 전체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궁이 가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3막만을 안겨주고는 이해시키기 어렵다. 이 사건은 이 후 4막과 5막의 복선이 되어 원술의 최후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하며 승리의 대가로 원술을 부마로 삼으려는 임금의 당부를 진달래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거절하는 원술의 사람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작품을 한 부분만 떼어서 실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문학-1 “문학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상태와 갈등의 해결과정을 파악한다.”를 성취하고자 했다면 5막이 교육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5막에서는 원술의 운명이 전환되는 데에 따르는 긴장감을 맛볼 수 있고 부마를 삼으려는 임금의 당부를 진달래와의 약속 때문에 거절하는 신의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가르치는 방법과 교사용지도서에서 밝힌 단원 설정의 취지는 3차, 4차 국어교육과정에서 중시한 국가안보, 조국에 헌신과 희생을 비장하게 강조하는 민족주의로 연결 짓고 있다. 3차에서는 공부할 문제 3-1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국토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싸웠는가' 생각하면서 구토 수호의 결의를 굳히자'를 통해 더욱 교과서에 실린 의도성이 명확해 진다. 4차에 실린 「원술량」 역시 국토 수호정신을 중요한 메시지로 밝히고 있지만 공부할 문제에서는 작품의 전반적인 특성 (등장인물의 성격 정리, 낭독하기, 연극으로 실현하기)을 물어보아 3차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원술량」은 6차 교육과정에 와서 한 번 더 교과서에서 국문학 제재로 활용되었다.

둘째, 교과 내용 구성 방안이다. 금성과 박영사는 국어와 생활국어에 희곡제재를 수록하여 내용 이해와 실제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안배했다. 특히 금성 국어 교과서는 내용 이해와 관련하여 ‘희곡의 갈등’에 대한 제시문을 미리 수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극문학의 특성을 선행학습하고 실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안배하였다. 이러한 안배는 희곡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관련 성취 기준(문학-1)에서 요구하는 갈등과 심리 상태를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장점을 발휘한다.

박영사 교과서 역시 국어에는 희곡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전설 「아기장수 우뚜리」를 수록하고, 생활국어에서는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아기장수 설화를 창작 모티프로 삼은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이」를 수록하여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안배했다. 다만 희곡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희곡교육의 특색을 학습하기에 적절한 작품이 아니라는 단점은 인정된다.

‘교학사’와 ‘대교(박)’ 출간 교과서에서 희곡작품의 내용이해와 관련되어 주목할 장점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도식적으로 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적당히 발췌하여 수록한 문제점이 노출된다. <빌헬름 텔>, <원술량>은 발췌 대목과 분량 역시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측면에서 ‘금성’ 출판사의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의 수록 방식은 새삼 주목된다. 이 작품은 단막극으로서 전문 게재가 용이하지 않은 희곡 작품으로는 대단히 효율적인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좋은책 신사고’ 역시 드라마 대본 전체를 수록하는 용단을 내려, 극문학을 읽고 감상하는 기쁨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과 내용 체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교과서는 ‘천재교육3(박영목)’이다. 천재교육3(박영목) 생활국어에는 연극을 준비하는 제작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연극을 위한 몸 풀기’→‘대사로 이야기 만들기’→‘연극 공연하기’로 이루어진 이 단원은 학생들에게 연극을 만드는 과정과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문학작품으로서의 희곡뿐만 아니라, 공연 예술로서의 연극을 학습하도록 돕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와 연관된 희곡작품을 소개하지 않은 점이다.

(2) 8학년 교과서 단원 구성의 편성과 한계점

① 드라마 관련 단원 구성의 문제점

15종 교과서에서 드라마 대본을 제재로 삼는 말하기-4와 관련되어 편성된 단원은 총 26개의 단원이고 드라마 제재를 삼지 않았지만 애니메이션을 제재로 활용한 교과서도 보인다.(디딤돌(김): 생활국어에 애니메이션 수록) 7학년과 다르게 8학년에서 매체언어 관련 성취 기준의 담화 범위나 기준은 시나리오가 아닌 드라마 대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대본을 제재로 성취기준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곳에 따라 시나리오를 수록한 교과서도 있다. 또 읽기-5영역인 매체를 통해 풍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시나리오나 드라마 제재를 삼아 성취하고자 한 교과서도 있다. 따라서 8학년 교과서 단원의 구성 유형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유형	교과서 종류와 해당 단원 수(15종 26단원)	세부유형	해당 교과서	통합 유형 번호
1. 작품만 수록	14종류 25단원	① 말하기-4영역: 국어 교과서 한 쪽에만 드라마 대본 수록.(시나리오 포함)	교학사(남), 금성(윤), 대교(박), 대교(왕), 새롭(권), 좋은책(이), 창비(김)	1-①
		② 읽기-5영역: 국어교과서에 함께 단원 구성	디딤돌(김), 미래엔컬처(이), 지학사(방), 해냄(오)	1-②
		③ 생활국어에도 작품 제시하고 새로운 이해	디딤돌(김), 미래엔컬처(윤), 미래엔컬처(이), 비	1-③

		요구	상(조), 지학사(방), 천재(노), 해냄(오)		
2. 작품과 드라마 대본 설명 글 동시 수록	1종 1단원		지학사(이)	국어: 2유형	2유형
				생활국어: 말하기, 문학 영역의 복합지문	

[표 7] 8학년 국어 교과서의 교과서 단원 유형

첫 번째 방식을 선택한 교과서는 15종 교과서 중에 총 14종이 선택하였다. 문제는 마지막 방식이다. 마지막 방식은 전체 교과서중 단 하나의 교과서(지학사(이))만이 그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많은 교과서들이 드라마 속 인물의 말과 몸짓에 관한 설명문을 신지 않고 드라마 대본을 수록한 것은 7학년에서 이미 매체와 관련하여 극문학의 특징을 충분히 배웠다고 판단하여 드라마 미학의 설명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나리오와 드라마는 장르적 특징의 차이²⁹⁾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매체라는 특성에 묶이는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

위의 표를 참조하면 말하기-4영역만 구축한 교과서와 말하기-4, 읽기-5영역으로 함께 구축한 단원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먼저 1-①인 말하기-4 영역 성취를 위해 국어 교과서에만 드라마 제재를 선택한 교과서는 금성(윤)을 제외한 교학사(남), 대교(박), 대교(왕), 새롬(권), 좋은책(이), 창비(김)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교과서는 생활국어에는 작품을 제시하

29)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 미학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드라마 대본과 시나리오는 대단히 많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드라마는 텔레비전과 함께 연결되어 설명해야 한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와 드라마 장르가 결합된 독특한 서사물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는 관심과 집중, 확산은 거의 실시간에 가깝다. 현대 사회의 텔레비전 드라마는 단순히 텔레비전 사각 안에 창조된 허구적 시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실제보다 더 한 실체로 존재하며 자신을 주축으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간다. 특히 교과서에 다루는 청소년 드라마는 학생들에게 더 깊은 공감을 안겨주고 어른들에게는 청소년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

지 않고 있으며 국어 교과서에만 작품을 제시하고 학습활동을 통해 드라마의 특성과 성취기준의 강조점인 반언어 비언어를 이해하고자 했다. 반면에 금성(윤)은 시나리오를 선택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영화는 인권영화로서 필리핀 엄마를 둔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영화이다. 성취기준의 담화기준과 범위는 청소년 드라마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로 규정짓지 않고 있고, 드라마란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기본 수단으로 하여 표현하는 예술 작품을 일컫기 때문에 단원 전체를 시나리오로 구성한 금성(윤)은 다른 교과서들 사이에서 독특성을 보여준다. 드라마 시나리오를 선택한 교과서들은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에서 각각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가지고와 교과서에 실었다. 『반올림』은 대표적인 청소년 드라마 이다. 따라서 이 역시 성취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만 우리나라 청소년 드라마가 한정되어 있기에 더 폭넓은 작품을 검토할 수 없는 현실이 아쉽다.

1-② 유형인 읽기-5 영역과 함께 국어 교과서 단원을 구성한 유형은 디딤돌(김), 미래엔컬쳐(이), 지학사(방), 해냄(오)교과서들이다. 이 교과서들은 읽기-5에서 가장 중요한 풍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디딤돌(김)에서는 희곡 「시집가는 날」이지만 이 작품을 바탕으로 뮤지컬로 각색된 뮤지컬 대본을 실었다. 뮤지컬은 배우들의 대사뿐만 아니라 음악적 요소도 내용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읽기-5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풍자물의 표현방식은 풍자물을 담은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를 성취하기 위해 실어놓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교과서에서는 뮤지컬 대본이라고 해도 교사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음악을 들을 수 없고 역시 배역을 정해 읽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희곡 「시집가는 날」이나 뮤지컬 「시집가는 날」은 큰 차이가 없어진다.

반면에 미래엔컬쳐(이)교과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동물농장』을 삽화로 실어 놓았다. 읽기-5의 성취기준을 가장 잘 반영한 교과서로 볼 수 있다. 만화를

삽화로 실어 놓아 대사와 대본이 없는 그림만 있는 만화라는 매체는 풍자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 차이점과 효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한 제재가 디딤돌(김)교과서 보다 성취기준을 잘 구현한 교과서로 판단된다. 지학사(방)는 고전소설 「양반전」을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한 대본을 실었다. 소설 「양반전」에서 드러나는 풍자를 라디오 드라마라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누군가 연기하는 그 음성을 듣고, 듣는 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서로 다른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는 구성으로 짜여 있다. 이 교과서 역시 앞선 디딤돌(김) 교과서와 같은 단점이 보인다.

다음으로 1-③유형인 생활국어에도 작품을 제시하고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 교과서는 디딤돌(김), 미래엔컬쳐(윤), 미래엔컬쳐(이), 비상(조), 지학사(방), 천재(노), 해냄(오) 교과서이다. 이 중 독특한 구성을 가진 교과서만 살펴보겠다. 디딤돌(김)은 생활국어에 애니메이션 『오세암』을 실어 놓았다. 애니메이션의 대본을 통해 텔레비전 드라마와 또 다른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했다. 미래엔컬쳐(윤)는 소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활동을 실었다. 특히 선택된 소설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기존에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의 작품과 기존의 시나리오를 비교하며 좀 더 시나리오와 매체언어의 특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심도 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미래엔컬쳐(이)는 시나리오 두 편과 드라마 대본까지 총 세 편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짧게 수록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며 국어 교과서와 작품의 연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말하기-4와 읽기-5의 영역을 잘 구현해 놓고 생활국어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작품을 실어 욕심이 과한 교과서가 되어 버렸다. 오히려 국어 교과서에서 쓰인 제재를 생활국어에도 그대로 가져와 좀 더 다각도로 이해하는 방식을 적용했다면 더 체계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천재(노)는 생활국어에 실린 『태극기 휘날리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른 교과서와 달리 문학-4영역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희곡 속에서 찾지 않고 시나리오를 통해 보다 확실한 성취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특별한 상황'을 위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인물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영화 시나리오를 과감하게 선택한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은 희곡교육의 약화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오히려 억지스러운 작품을 설정하는 것 보다 극문학으로 그 시야를 넓혀 작품을 고심한 점이 주목된다.

마지막 유형인 2유형은 국어 교과서에는 설명문, 생활국어에는 드라마 대본을 실은 유형으로 단 1종에 불과하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드라마 대본의 특징을 설명한 설명문을 제시한 하였다. 이것은 드라마 대본의 구성과 특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설명문 안에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의 여러 장면을 짚막하게 구성하여 예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생활국어로 가면 드라마 대본만 실어 놓고 학생활동 중심으로 꾸몄다. 이러한 체계는 드라마 대본에 대한 특징과 성취기준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잘 짜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작품만을 제시하고 기계적인 학습활동을 배치하는 것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시나리오의 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 교과서는 생활국어에 오면 드라마 대본과 희곡을 함께 수록하여 말하기-4영역과 문학-4의 복합 활동을 성취하고자 했다. 이것은 드라마 대본과 희곡의 차이를 함께 비교할 수 있고 희곡을 통해서도 반언어와 비언어의 표현 양식을 공부 할 수 있어 위축된 희곡을 바탕으로 충분히 말하기 교육도 함께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나치게 시나리오와 드라마 대본에만 눈을 돌리지 않아도 충분히 희곡작품으로도 표현교육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이다.

② 희곡 관련 단원 구성의 문제점

8학년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는 희곡은 뮤지컬까지 포함하여 총 10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을 살펴보면 희곡은 「새야 새야 파랑새야」,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일부)」, 「들판에서」, 「원술랑」, 「꿈꾸는 별들」, 「세종대왕」 총 6작품을 실렸고, 원작은 희곡 「맹 진사 댁 경사」인데 이후 현대극으로 재구성된 「시집가는 날」, 뮤지컬로 각색된 「시집가는 날」로 같은 작품이 다른 모습으로 총 3번이 실렸다. 그리고 뮤지컬 「천상 시계」로 총 8개의 작품이 실렸다.

실려 있는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희곡 「맹 진사 댁 경사」는 희곡작품 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고 6, 7차 교육과정에서 실렸던 「들판에서」를 비롯하여 2,3,4차 그리고 7차 개정에 오기까지 사라지지 않는 「원술랑」, 새로운 작품으로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 「세종대왕」, 「꿈꾸는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 7학년보다는 희곡의 단원이 늘어났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뮤지컬 작품이 두 작품이 실려 점차 희곡 제재선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기존에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렸던 작품에서 벗어나 현재 공연을 통해 검증이 된 뮤지컬, 창작극을 확대하여 작품 선정은 희곡교육을 좀 더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희곡 「맹 진사 댁 경사」를 바탕으로 문학-4성취기준을 짠 교과서는 좋은 책(이)이며 이 교과서는 1막을 실어놓고 있다. 1막은 맹 진사가 권세와 재물만 믿고 신랑의 선도 보지 않고 혼사를 치르려다가 신랑이 절름발이라는 얘기를 듣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문학-4의 성취기준이 인물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사회 문화적 상황과 관련짓기 위해 일방적인 부모님끼리 혼담으로 맺어지는 전통 혼례와 결혼문화를 통해 성취하고자 이 작품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혼례가 아니라 신분상승을 추구하는 맹 진사의 헛된 욕

심과 신분사회에 대한 풍자와 해학이 나타난 작품이다. 따라서 문학-4의 성취 기준을 위해 적합한 작품을 찾아보니 연애결혼이 불가능했던 시대를 극으로 표현한 이 희곡을 선택했고 주제와 다르게 학습되어져 아쉬움을 준다. 이 작품을 현대극으로 재해석된 「시집가는 날」을 실어 놓은 해냄 교과서도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 교학사(남)은 문학-4영역을 성취하기 위해 희곡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실어 놓았다. 이러한 구성은 가장 문학-4성취기준에 적합한 제재로 보인다. 이 작품은 일제의 침탈과 압박 속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은 민족적 투사 전봉준의 삶과 동학 혁명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낸 역사극이다. 기천석을 통해 전봉준의 정신이 계승됨과 동시에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정신적 승리를 암시하는 마지막 부분이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라는 노래의 상징을 통하여 민족적 수난과 의지를 암유(暗喻)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꼽히는 동학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1895년 3월 28일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혁명가 전봉준을 추종하는 수제자 기천석 오세정 두 사람(물론 허구의 인물이다)을 통하여 개인과 조직의 관계를 추구하면서 우리겨레가 걸어온 근세사에서 하나의 반성과 교훈을 얻으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위기 부분인 ‘제2부 5장’을 수록하고 있다.

희곡작품을 바탕으로 문학영역이 아닌 말하기-4영역의 활동을 위해 실어 놓은 희곡작품도 있다. 뮤지컬 「천상 시계」는 교학사(남)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조선시대 천체를 관측하는 기구인 간의를 만들어 이를 칭송하는 뮤지컬이다. 이때 교사는 교과서와 함께 제공되는 부록인 CD를 수업시간에 활용하여 교과서에 실린 뮤지컬을 직접 학교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는 희곡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지학사(방)역시 생활국어에 희곡을 실어 말하기-4영역의 학생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국어교과서에서

는 시나리오를 배우고 생활국어에서 희곡을 배워 극문학을 치우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교과서로 주목된다.

(3) 10학년 교과서의 단원 구성의 편성과 한계점

① 사회방언과 공연예술관련 단원 구성의 문제점

10학년 교과서 단원의 구성을 간단하게 유형화 하면 먼저 상, 하권 모두 작품만 수록한 교과서와 상권이나 하권 중에 작품과 비평문을 함께 수록한 교과서로 크게 유형분류를 할 수 있다. 작품만 수록한 첫 번째 유형은 총 16종 교과서 중 을 성취하기위해 구성한 단원과 매체언어 성취기준인 듣기-4를 구성한 단원의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교과서 종류와 해당 단원 수(16종 25단원)	세부유형	해당 교과서	통합 유형 번호
1. 작품만 수록	14종 24단원	① 상, 하권 각 각 듣기-3, 4를 구현(혹은 한 곳에 듣기 영역 모두 구현)	교학사(조), 두산(우), 미래엔컬처(윤: 하권), 해냄(오), 비상(한)	1-①
		② 듣기 영역+문학 영역(문법영역)이 결합된 교과서	금성(윤), 좋은책(민), 천재(박), 지학사(조),	1-②
		③ 듣기-4만 구현.	중앙(박), 천재(김종철), 창비(문), 지학사(방), 더 텍스트(김)	1-③
2. 작품과 비평문 함께 수록	1종 1단원		디딤돌(이) (상): 듣기-4 (하): 쓰기	2유형

[표 8] 10학년 국어 교과서의 교과서 단위 유형

1-①, 1-②유형으로 극문학 제재가 활용된 단원은 상권에서는 14개의 단위, 하권에서는 총 11개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 드라마 대본 혹은 시나리오를 수록한 단원은 7개의 단위 뿐이다. 나머지 18개의 단위에서 희곡과 전통 가면극을 제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중학교 7, 8학년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영화의 특징, 드라마 대본의 특징을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과도하게 실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과정에서 지나치게 확장한 시나리오와 드라마 대본의 매체언어 영역으로 인해 고전문학을 미처 신지 못한 부주의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야 지나치게 몰아 실은 우려도 보인다.

다른 학년과 달리 10학년은 전통 가면극인 「봉산탈춤」과 「양주 별산대놀이」로 듣기-4를 성취하고자 했다. 공연예술의 소통 방식과 표현특성을 위해 우리 전통 고전을 선택하여 단원을 구성한 교과서는 교학사(조), 금성(윤), 중앙(박), 디딤돌(이), 미래엔컬쳐(윤), 좋은책(민), 비상(한), 천재(김종철), 천재(박), 창비(문), 해냄(오), 더 텍스트(김)로 총 12종의 작품이고 이 외의 작품인 시나리오 서편제를 선택한 두산(우), 마당극 「신 이춘풍전」을 제재로 선택한 지학사(방)로 총 2종이 다른 교과서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①유형과 1-③유형은 매체언어 관련 영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통극인 「봉산탈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특히 제 6과장인 양반춤과 7과장인 미얄춤을 제재 활용하여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서는 16종에서 10종이 선택하고 있으며 6과장과 7과장을 각각 7종, 4종이 선택하여 실고 있다. 「봉산탈춤」은 우리공연예술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방자형 인물인 말뚝이가 나와서 풍자를 이끌고 여기에 모자란 양반들은 해학의 미를 선사한다.

이러한 작품구조와 우리 전통극만의 특징인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어 함께 극을 만들어가는 예술의 미학 또한 성취기준과 잘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연제까지 「봉산탈춤」만을 우리 전통극으로 실어야 할지 아쉬운 부분이다. 여기에 금성(윤)은 가면극에 나타나는 우리의 언어문화적인 특성을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양주 별산대놀이」 작품에서 찾고 있다. 이 작품은 서울·경기지방에서 즐겼던 산대도감극³⁰⁾의 한 갈래로 춤과 무언극, 덕담과 익살이 어우러진 전통 가면극이다. 교과서에는 제7과정 1경 의막 사령놀이가 실려 있다.

여기 수록된 대목은 제 7 과장인 ‘샌님춤’ 과장의 앞부분으로 말뚝이가 샌님을 데리고 나와 친구 쇠뚝이와 함께 양반의 횡포와 무능을 폭로, 풍자하는 장면이다. 기존의 교육과정에 다뤘던 「봉산탈춤」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품을 단원으로 구성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금성(윤)은 문학-2의 성취기준에서 담화의 범위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수필로 지정한 것에 위배되는 희곡 「결혼」을 실은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10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매체언어 관련 성취기준을 위해 작품만을 수록한 단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유형인 디딤돌(이)은 유일하게 상권과 하권의 성취기준을 다르게 하여 상권에서는 작품 듣기-4의 성취기준을 위해 작품만을 다뤘고 하권에서는 작품과 비평문을 함께 실어 쓰기-5를 성취하고자 했다. 상권에서는 「봉산탈춤」의 제6과장 「양반춤」을 실었고 하권에서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비평문을 수록하고 있다. 상권은 다른 교과서와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하권은 영화에 대한 비평문을 실어 영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쓰기-5의 성취기준이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드러내는 비평문을 쓴다.’이다. 이 성취 기준은 예술 작품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반응을 글쓰기를 통해 타당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30) 산대놀음(탈을 쓰고 큰길가나 빈터에 만든 무대에서 하는 복합적인 구성의 탈놀음).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고, 자신의 인지적·정서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설정하고 있다. 예술 작품 읽기·보기의 교육적·개인적 가치와 의의는 작품에 대한 비평문을 쓰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비평문을 쓰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되, 특히 작품에 대한 평가와 심미적 경험을 예증의 방법을 통해 구체화, 타당화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 비평문을 수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생소한 비평문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극문학 제재를 바탕으로 실제 비평문과 그에 해당되는 작품을 실어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이 되도록 구현하고자 했다. 다른 교과서와 달리 극문학 제재로 다른 성취기준을 교과서에 구현했기에 비교할 수 없으나 극문학 제재를 바탕으로 매체언어성취기준을 위해 작품만을 실어 교과서 단원을 구성하는 것 보다 오히려 쓰거나 문법 등을 위해 극문학 제재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활동양상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10학년 교과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매체언어 관련 영역에서는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을 활용하지 않고 듣기-3영역에서 강조하는 사회방언을 이해하기 위해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을 제재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1-①유형 중에 매체언어 영역이 아닌 듣기-3성취기준인 사회방언을 공부하기 위해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을 이용한 교과서는 교학사(조) 하권, 두산(우) 하권, 좋은책(민) 하권, 지학사(조) 상권으로 총 4종의 교과서이다. 여기에 두산(우)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단원 구성이 총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드라마 대본을 대단원 통합하기에 따로 수록하고 있다. 앞에 소단원은 모두 설명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방언을 공부하기 위해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의 작품을 무작정 수록하는 것은 좋은 교과서로 보기 어렵다. 사회방언을 공부하는 이유는 언어의 사용에 관여하는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상대의 마음이나 집단 혹은 계층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교육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두산(우)교과서를 제외하고 다른 교과서들

의 제재는 드라마 『외과의사 봉달희』, 시나리오 『킹콩을 들다』, 청소년 드라마 『도시락 절도사건』으로 제재의 선택기준이 모호하고 중구난방이다. 그 시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매체를 선택하여 단원을 구성하려는 시도는 참신했으나 선택한 작품들은 과연 그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이다. 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 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특성을 알고 사회적으로 따라 달라지는 언어의 모습을 살피고자 드라마 제재나 시나리오를 택했다면 그 수많은 작품 중에 선택한 특별함이나 혹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몽땅 사라지고 작품만 덩그러니 놓여 있어 극문학 제재 활용이 지나치게 쓰인 예로 보인다. 『외과의사 봉달희』는 외과병동에서 일어나는 담화의 장면 때문에 수록했고 『킹콩을 들다』는 역도부원들의 집단의 특수성으로 실었다면 드라마나 영화의 제재가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오기 때문에 과도하게 극문학에서 제재를 살핀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우려 속에 두산(우)은 적절한 합의점을 찾았다. 앞의 소단원을 총 3개로 구성해 사회방언과 관련하여 설명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소단원은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들을 수록하여 장면에 따라 심리적으로 달라지는 표현을 찾고 다양한 표현방식을 이해하는 글로 담화 속에서 맥락을 파악하고자 했고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방언을 배우는 글로 마무리 하고 있다. 마지막 소단원은 듣기-3영역에서 확장하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방송으로 보도해 보는 글을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 소단원은 듣기-3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회 방언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고 활동을 권하는 글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대단원 통합하기에 실질적 작품인 드라마 대본 『베토벤 바이러스』를 실어 장면에 따른 인물들의 모습, 음악 하는 사람들이 쓰는 전문 용어 등을 통해 듣기-3 성취기준을 정리하고자 했다. 매우 체계적인 교과서로 볼 수 있다.

② 희곡 관련 단원 구성의 문제점 및 대안

해냄(오)은 특이하게 희곡 「결혼」을 통해 듣기-3을 성취하고자 했다. 희곡 「결혼」은 이 교과서 외에도 금성(윤), 천재(박)에서 각각 문학, 문법영역에서 선택되어 교과서의 단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해냄(오)에서는 인간의 문제 상황에 대한 문학적 해결 방안을 이해하고자 이 작품을 실었고 금성(윤)에서는 이 글의 주제의식, 서술 방식 등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개성에 주목하고자 수록하였다. 그리고 독특하게 천재(박) 교과서에서는 문법 영역에서 이 작품은 등장인물의 심리적 태도가 어떤 문법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는지 공부하기 위해 수록하고 있다. 해냄 교과서는 작품의 주제와 단원의 학습목표가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 작품은 다른 희곡과 달리 공연을 실현할 때 큰 무대장치가 필요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명과 음악이 따로 필요 없고 오로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극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학생활동에 있어 적합한 제재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소재는 '결혼' 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내용은 인간의 허식과 그 속에 묻혀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작품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한 번쯤은 권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천재(박)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다르게 문법 영역에서 희곡을 제재로 삼고 있다. 문법-3 성취기준은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로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설정되었다.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 어떤 발화가 어떤 기능을 드러내는지를 특히 심리적 태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해 봄으로써 국어 생활 속에서 언어가 기능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습활동에서 천재(박)는 심리적 태도의 개념을 다소 넓게 잡아, 구체적인 장면에서 화자가 일어나 상대 등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원근 표현³¹⁾, 부정 표현뿐만 아니라 피동 및 사동 표

현, 높임 표현 등, 구체적인 장면에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다루고 있다. 학습활동과 성취기준은 잘 부합하고 있고 희곡을 제재로 하여 보다 학생들이 담화 장면을 쉽게 인식하도록 했다. 어려운 문법 개념을 문학작품을 통해 배우도록 한 구성역시 위촉된 극문학교육의 새로운 의의로 극문학교육이 왜 계속 논의되고 필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로 보여준다. 극문학교육이 지나치게 연극성을 중점으로 교과서에 수록될 때 논의되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 극문학이 갖는 또 다른 의의는 빛이 바래졌다. 역지로 설정된 학생들의 구어 의사소통 장면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은 단편 희곡 등에서도 충분히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천재(김대행)는 문학 1을 구현하기 위해 「햄릿」을 수록하고 있다. 소단원1과 2에서는 소설과 시 고전소설을 차례로 수록하고 마지막 소단원에서는 희곡을 수록하여 문학-1과 관련해 문학 영역 중 시와 소설 그리고 희곡까지 수록하는 위엄을 보였다. 특히 희곡과 함께 외국소설까지 짧은 단락으로 학습활동에 옮겨나 막강한 학습량을 자랑하고 있다. 「햄릿」은 희곡 중에 고전이며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의 대사와 인물이 처한 사건이 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다가가기 힘든 작품이기도 하다. 또 작품을 이해하려면 인물 분석이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은 '햄릿'이 가장 깊은 고뇌를 하며 감정이 가장 극에 다다른 부분이다. 그러나 앞의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명한 고전을 실은 의의가 사라진다. 교과서에 수록된 줄거리는 7줄로 아주 간략하다.

덴마크의 왕자 햄릿은 숙부가 아버지를 죽여 왕위를 가로채고 어머니와 결혼까지 했다는 것을 아버지의 유령에게서 듣게 된다. 그러나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채 깊은 번민에 빠진다.

이 연극은 햄릿의 이러한 번민과 갈등을 중점적으로 보여 주면서 전개된다. 햄릿은 오픈리어와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그의 미치광이짓 때문에 그녀는 자살하고 만다. 이로 인해

31) 원근표현은 지시 표현에 대한 지도를 통해 수행될 수 있는데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도 고려되어야 한다.

햄릿은 오피리어의 오빠 레이티즈와 결투를 벌이게 되고 결국 햄릿이 죽는 것으로 이 연극은 막을 내린다.

물론 「햄릿」이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인물의 내면 독백과 갈등의 폭은 매우 깊기 때문에 많이 읽어봐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을 신는데 의의를 찾기 보다는 좀 더 편안한 작품을 검토해봐야 했을 것이다.

3) 작품 중복과 작품 성향의 문제점 및 대안

작품 중복이 가장 심한 경우는 각 학년 별로 매체언어관련 성취기준에 선택된 드라마 대본, 시나리오들이었다. 가장 문제가 심한 학년은 7학년으로 2010년 도입 7학년 교과서에서 읽기-5 관련 교과서 문제는 작품 선정에 그 문제점이 있다. 영화에 대해 설명하는 글만 수록한 교학사(남)를 제외한 22종 교과서는 읽기-5와 관련된 작품을 한 편 이상 수록하고 있다. 수록된 작품은 대개 시나리오이지만 경우에 따라 시나리오와 소설(주로 원작소설)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두 작품을 수록한 경우도 있고 예외적으로 단편 애니메이션 필름인 경우도 있다. 천재(박)는 애니메이션 『그 여자네 집』의 스틸 사진을 수록하여 대강의 흐름을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실 문자텍스트로 구현된 시나리오 작품을 수록할 경우에도 필름의 일부나 주목할 사진을 병행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그 여자네 집』처럼 처음부터 스토리보드에 가까운 그림 대본을 신는 경우는 없었다. 참신한 시도로 파악되지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읽기 영역으로 복합적인 읽기(이른바 ‘보기’)를 인정한다고 해도, 대사와 지문의 읽기가 근본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성취 기준의 달성에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아무리 인근 장르라 해도, 별도의 미학적 형식적 특징이 내재하기 마련인데, 현재 상태의 이 교과

서는 이러한 차이와 주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이다.

작품의 편정 문제도 지적해야 한다. 시나리오 작품으로 한 번 이상 수록된 작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말아톤』 10번 (1번은 활동만, 1번은 관련 감상문), 『집으로』 7번 (1번은 감독 인터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5번 (희곡으로 수록된 것 까지 합하면 6번), 『아홉 살 인생』 4번, 『꽃 피는 봄이 오면』 4번, 『열세 살, 수아』 2번, 『초승달과 밤배』 2번, 『빌리 엘리어트』 2번(한 번은 감상문)이다.

각 학년 각 영역 각 성취 기준에 적합한 작품을 고르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주변에 상당수의 작품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까다로운 수록 기준과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는 작품은 드물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도입 국어과목 교과서에서 시나리오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의 폭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말아톤』이 전체 교과서 관련 단원 1/4, 『집으로』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전체 교과서 관련 단원의 각각 1/8 가량(합치면 1/4)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독창성의 부족과 편중된 체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작품의 중복도 문제이지만, 작품 성향의 동일성도 문제이다. 2번 이상 수록된 시나리오 작품들은 대부분 어린이의 성장과정과 관련이 깊다. 『말아톤』의 주인공 초원은 비록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이의 순수함과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는 어린이라고 볼 수 있다. 『집으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아홉 살 인생』, 『열세 살 수아』, 『빌리 엘리어트』의 주인공 역시 다소 나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 작품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작품들은 학교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거나,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에 특징점이 있는 작품들이다. 따라서 유년기의 성장과정을 그린 성장영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성장영화를 읽기-5의 텍스트로 선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다. 문제는 23종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성향과 문제의식을 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려 있는 희곡 작품 중 유일하게 눈에 띄는 작품은 금성 교과서에 실린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이다.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실렸던 작품을 벗어나 새롭게 논의된 작품으로 그 의의가 있다.

8학년의 경우 드라마 대본들은 『반올림』에서 에피소드들을 선택하여 실은 교과서는 총 15종 중 10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의 작품들은 단편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교과서들이었다. 청소년드라마는 현재 방송 드라마에서 굉장히 성과가 부족하다. 청소년 드라마를 잇는 계보는 학교-반올림-최강 올엄마 정도이니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질을 논할 것이 아니라 논의할 양이 적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반 드라마가 아닌 청소년 드라마를 제재로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학생들도 한 번쯤은 봤을 작품으로 그 친근감이 높다. 오히려 길이만 길고 공감할 수 없는 희곡을 바탕으로 말하기-4의 성취기준인 반언어와 비언어의 차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수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 유일하게 단편영화를 실은 교과서 금성(윤)의 『달리는 차은』은 매우 신선한 작품이다. 그러나 생활국어에 연계되는 활동이 없어 좀 더 심도 있는 활동이 부족해 보인다. 작품선택에는 빛이 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희곡을 살펴보면 역시 실린 작품의 성향이 매우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희곡 「맹 진사 댁 경사」는 희곡으로, 뮤지컬로, 시나리오로 똑같은 작품이 각각 다른 장르로 실렸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같은 출판사에서 보인 모습이 아니라 각각 다른 교과서에서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한 교과서에서 희곡을 바탕으로 뮤지컬로시나리오로 각색한 장면을 비교하여 교과서 단원을 구성했다면 장르의 차이도 손쉽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학년에서는 공연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전통극인 「봉산탈춤」을 가장 많

은 교과서가 선택하고 있다. 16종에서 11종이 선택하고 있으며 6과장과 7과장을 각각 7종, 4종이 선택하여 신고 있다. 「봉산탈춤」은 우리공연예술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방자형 인물인 말뚝이가 나와서 풍자를 이끌고 여기에 모자란 양반들을 해학의 미를 선사한다. 이러한 작품구조와 우리 전통극만의 특징인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어 함께 극을 만들어가는 예술의 미학 또한 성취기준과 잘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봉산탈춤」만을 우리 전통극으로 실어야 할지 아쉬운 부분이다. 여기에 금성(윤)은 「양주 별산대놀이」를 신고 있다. 추후에 작품 분석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작품으로 매우 그 의의가 있다. 두산(우)은 공연예술을 이해하고자 시나리오 『서편제』를 넣었다. 영화 속에서 판소리를 공연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나라 공연예술을 이해하고자 함이 독특하다.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은 이미 배워온 학습개념이기 때문에 큰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실렸다. 그러나 이 영화를 통해 우리 공연 예술의 특성인 관객과 소통하는 장면을 얼마나 학생들이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출시된 모든 교과서가 당면한 문제는 매체언어 성취 기준으로서 극문학 작품을 다루는 경우와 문학 작품으로서 극문학 작품을 다루는 경우를, 교과서 체제로 분별하고 교과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일이다. 극문학 장르 관련 매체언어 성취기준은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취 기준 혼용과 내용 편중 현상, 즉 극문학 작품 축소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나마 10학년의 경우 극문학 제재를 매체언어영역이 아닌 문법영역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위축되었던 희곡교육을 반드시 연극성 수업으로 확장하여 수록하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제재활용한 점에 의의가 있었다. 하지만 7학년과 8학년에서는 성취 기준 혼용과 내용 편중 현상, 즉 극문학 작품 축소 문제가 심각하다.

국정 교과서를 따르지 않고 검인정 교과서를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교과서의 출현과, 다양한 교육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적어도 매체언어와 관련된 단원들은 이러한 애초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각 학년별로 매체언어의 성취 기준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연령과 성장과정을 고려한다고 해도,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대본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출간될 9학년에서도 주의해야 할 문제점이기도 하다. 앞으로 출간될 국어과목 교과서에서는 작품의 중첩과 작품 성향의 동질성이 가급적 줄어들고, 다양한 차별화가 가능한 작품들이 각자의 개성적인 방식으로 선별되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2. 극문학 작품 분석 및 학습활동 양상

각 학년별로 교과서 속 가장 많이 쓰인 극문학 장르는 시나리오와 드라마 대본이었으며 이것은 앞으로 매체가 중시되면서 비중이 더욱 늘어나고 앞으로 더 다채롭게 실릴 극문학 장르이기도 하다. 따라서 많이 쓰인 『말아톤』 분석하며 각 교과서들 마다 학습활동에서 차이점과 의의는 없는지 역시 함께 논의될 것이다.

희곡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줄고 있음에도 새롭게 등장한 작품들을 이번 개정 국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다.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과 「양주 별산대놀이」인데 이 두 작품의 학습단원을 살펴보고 유의미한 학습 방향이 설정되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 실려 있는 지문의 인물의 양상, 주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한다. 그리고 기존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논의한다.

1) 『말아톤』 : 성장서사의 영상화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매체언어로서의 극문학 제재는 영화 『말아톤』이었다. 『말아톤』은 자폐아 초원이가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성장영화이다. 이 『말아톤』을 제재로 중학교 7학년 교과서에서 총 11종이 제재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11종을 바탕으로 『말아톤』을 소단원으로 제시한 교과서와 학습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	수록 단원	대단원 학습 목표
교학사(김)	2학기 6단원 영화 속 이야기와 인물 (2) 말아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의 서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영화를 보고 인물의 성격과 형상화 방식을 알 수 있다. • 영화 속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금성(윤)	2학기 7단원 영화 속의 인물 (2) 말아톤	· 영화의 특성과 이야기 구조를 안다. ·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교(박)	2학기 4단원 영화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1) 말아톤	· 영화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등장인물의 성격과 인물의 형상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대교(왕)	1학기 5단원 작품 속 인물을 찾아서 (3) 말아톤	·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해결 과정을 파악한다. ·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미래엔 켈쳐(이)	1학기 5단원 이야기 속의 인물 (2) 말아톤	·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영화 속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롬(권)	2학기 2단원 작품 속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2) 말아톤	· 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해결 과정을 파악한다. ·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웅진(이)	1학기 6단원 갈등을 넘어서 (2) 말아톤	· 소설과 영화에서 인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갈등의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영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영화 감상 능력을 기른다.

[표-9] 『말아톤』을 소단원으로 제시한 교과서와 학습목표

위의 표는 국어 교과서에만 시나리오를 수록한 출판사를 학습목표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시나리오는 읽기-5에서 구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목표에 모두 공통적으로 영화의 특성+영화 속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파악하는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하여 모두 『말아톤』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은 생활국어에 『말아톤』을 선택한 교과서들이다.

교과서	수록 단원	학습 목표
금성(윤)	2학기 7단원	국어 교과서와 같음
두산(우)	2학기 2단원	·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디딤돌(이)	1학기 4단원	· 영화 속의 인물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감상한다.
천재(노)	2학기 5단원	· 영화 속 인물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냄(오)	2학기 3단원	·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표 10] 생활국어에 『말아톤』을 선택한 교과서와 학습목표

생활국어에서 『말아톤』은 금성(윤)을 제외하고 국어 교과서와 차별된 작품으로 실려 있다. 실려 있는 부분은 매우 짧고 다른 작품과 연계되어 있기에 학습활동 문제를 따로 논의할 수 없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작품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말아톤』은 교과서마다 실려 있는 장면이 다르다.

장면의 중심 내용	교과서	유형
* 마라톤 코치 정욱은 초원의 끈기를 통해 가슴이 뭉클해져 성의 없이 훈련했던 지난날을 접고 서로 마음을 열어 훈련에 매진	대교(왕)	①
* 경숙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초원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됨	대교(박), 금성(윤), 미래엔컬쳐(이)	②
* 초원은 동호회 사람들을 따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함	새롬(권), 교학사(김)	③
* ①+②+③	웅진(이)	④

[표 11]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말아톤』의 장면 유형

장면은 교과서 마다 다르지만 다른 사건이 시작되기 위해 인물들의 갈등이나 내면의 변화가 찾아오는 장면들을 위주로 교과서에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웅진(우)은 독특하게 ①, ②, ③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중요한 장면과 대화만 추려 짧은 단락으로 구성하여 총 23개의 장면으로 수록하고 있다. 마지막 ③은 초원이가 '마라톤에 참가할 것이다.'만 암시하고 교과서를 끝내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볼 법한 매우 간략하지만 영화의 스토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학습활동과 함께 연결 지어 생각한다면 그 장점은 단점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것은 교과서별로 학습 활동에 따른 비교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1) 교학사(김)

이 교과서는 단원 전체가 영화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아톤』은 소단원(2)에 배정되어 있다. (2)단원의 학습 목표는 <영화를 보고 인물의 성격과 형상화 방식을 알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대단원 통합 학습으로 영화에 나타난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대해 토론해 보고, 어떻게 영화를 감상하면 더욱 효과적인지 공부하는 활동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교학사(김)에서 특징적인 것은 소단원 활동에 앞서 대단원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 학습자가 반드시 익혀야 할 명제적 지식을 제시하고 있는 '원리 학습' 부분이다. 이 단원의 주된 학습 내용은 영화와 인물이기 때문에 영화의 서사 구조와 인물의 형상화 방법을 먼저 배우게 된다. 이러한 학습 활동 구성은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 및 내용을 학습자로 하여금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본격적인 소단원 활동은 '읽기 전에(읽기 전 활동) - 본문(읽기 중 활동) - 학습 활동(읽기 후 활동)'³²⁾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전에'에는 1. 우리 주변

에서 장애를 극복한 감동적인 사례를 이야기해보자 활동으로 이것은 『말아톤』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활동이 된다. 주변 째 활동은 마라톤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이 영화에 중심 소재에 다가가는 활동으로 꾸며져 있다.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마라톤과 이 영화에서 인물들이 뭉쳐지고 주인공의 성장에 극적인 역할을 하는 마라톤과 비교, 대조를 이뤄 읽기 전 흥미를 충분히 유발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교과서에 실린 주된 내용은 유형 ③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본문에 수록하고 있다.

S#112. 운동장/ 낮

땀에 흠뻑 젖은 초원을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경숙, 아들이 멀쩡한가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다시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입을 맞춘다. 중원도 초원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를 바라보는 정육도 눈물이 글썽하다.

초원: 갔다 왔어요. 초원이 갔다가 돌아왔어요.
 경숙: (흐느끼며) 그래, 고마워. 이렇게 돌아와 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에게 뭔가를 주는 초원. 그것은 손에 들고 여지껏 달려온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뭉개져 완전히 가루가 되어 있다.

경숙: 먹지. 왜 가져왔어?
 초원: 실컷 먹었어요. 이제 먹기 싫어.

경숙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초원을 찬찬히 바라본다.

경숙: 그래 초원아, 싫은 건 하지 마.

32) 7차 개정 국어 교과서의 읽기 중 활동 부분에서 눈여겨 볼 것은 '맥락 읽기'와 관련한 것이다. 7차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맥락 범주의 신설'이다.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활동을 하는 것이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읽기 중 활동에 '맥락 읽기'라고 하는 부분을 수록한 개정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모든 교과서마다 맥락과 관련한 활동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맥락 읽기가 구성된 교과서를 통해서 극문학 속 상황을 파악하고 글 제재를 읽는데 있어서 학습자들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맥락 읽기는 학습자들에게 수월성을 제공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개정 교과서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장면은 초원의 도전으로 초원을 둘러싼 사람들의 긴장과 갈등이 극복되며 극적인 화합을 꾀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장면을 바탕으로 읽기 중 활동을 교학사(김)의 경우 '사실-추론-평가-감상'으로 날개 질문³³⁾이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가 단순히 시나리오를 읽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주인공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아톤』을 세부적으로 인지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게 질문을 구분해 두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핵심적인 날개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사실) 정욱은 왜 사회봉사를 받게 되었는가?

(평가) 정욱이 대하는 초원의 태도는 어떠한가?

(추론)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완주'란 무슨 뜻일까?

(감상) 내가 초원이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읽기 후 활동에 해당되는 '학습 활동'은 일반적으로 '내용 학습- 목표 학습- 적용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학사(김)의 경우에는 '작품 이해하기(내용 학습)', '영화의 서사 구조 파악하기.',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목표학습)', '통합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		활동 내용	학습 효과
내용 학습	1. 작품 이해하기	길 찾기 게임을 변형하여 갈래 길마다 작품의 중심 사건을 찾아 길을 따라가면 완성	영화의 중요 사건을 주인공 시점에서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읽은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다. 또 길 찾기 게임으로 변형하여 흥미로운 활동이 될 수 있다.
목표 학습	2. 영화의 서사 구조 파악하기	(1) 각 장면은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지 써 보자. (2) 사건의 순서대로 정리해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갈등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33) 길잡이 문제의 성격으로 교과서에 있는 글을 학생들이 좀 더 포괄적이고 능동적으로 읽게끔 길잡이가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문. 일반적으로 글 제제와 함께 제시된다.

		보자.	
습	3. 인물의 성격과 형상화 방식 파악하기	초원의 대사, 소품, 행동 등을 수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초원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는 활동	주인공의 성격을 파악하고 영화가 인물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한다.
적용 학습	4. 통합 학습	코치와 어머니 각각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대해 토론하기.	이 영화에서 가장 대립적인 두 인물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토론하며 비판적인 생각은 무조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보아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배운다.

[표 12] 교학사(김) 학습활동 양상

교학사(김)의 학습활동은 대체적으로 학습 목표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고, 학습량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영화의 서사구조를 이해하거나 인물을 이해하고자 할 때 충분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학습활동을 구성(길 찾기 게임, 영화 속 장면)한 점이 의의가 있다. 그러나 '2. 목표학습에서 (2) 활동'은 '1. 내용학습'과 중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건의 순서를 알아야 길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활동에서 이미 사건의 기본적 줄거리는 충분히 익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2)활동은 중복된 활동으로 여겨진다.

(2) 금성(윤)

금성(윤)은 다른 교과서와 달리 국어 교과서에 영화에 대한 제시문과 함께 『말아톤』 (부분)을 수록했고 생활국어에서는 『말아톤』의 다른 부분을 수록하여 장애인 차별에 관한 논술 활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한 편의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이해

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학습 분량을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아도 수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소단원(2)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의 학습목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고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로 읽기-5영역의 성취기준이기 때문에 학습목표는 동일하다. 이 교과서는 단원을 시작하기 전 활동으로 6칸의 만화를 통해 학습자가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중심 내용을 은유적으로 배운다. 두 명의 소녀가 나와서 춘향전의 인물 중 이 도령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월매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이 만화는 인물에 대한 상반된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든 소설을 읽든 항상 생겨나는 일상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다룰지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본격적인 소단원 활동은 교학사(김)와 마찬가지로 '준비활동(읽기 전 활동) - 본문(읽기 중 활동)-학습 활동(읽기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활동'은 『말아톤』의 포스터를 보며 얼룩말과 초원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을지 상상하는 활동으로 시작한다. 만약 이 작품을 몰랐던 학생이라면 마라톤과 얼룩말, 주인공 이 셋의 관계를 궁금해 할 것이고 이 작품을 본 학생이라면 얼룩말을 좋아하는 초원을 떠올리며 가장 유명한 대사인 '초원이 다니는 백만 불짜리 다리'를 연상해 낼 것이다. 준비학습으로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아도 포스터 한 장으로 궁금증과 함께 '우리는 영화를 배울 것이다.'를 단 한 번에 나타낸 셈이다.

본문에 수록된 장면은 ②유형을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고 학습활동의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를 성취하기 위해 ②유형 장면보다 훨씬 이전의 장면인 초원의 행동으로 오해가 생겨 파출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작으로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읽기 중 활동'을 돕기 위해 역시 날개 질문을 수록하고 있다. 교학사(김)와 다르게 '사실, 추

론, 평가, 감상'이 제시되지 않고 본문 옆에 중간 중간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예) 파출소에서 만난 여자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추론, 평가, 감상'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것은 교사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즉 학생들에게는 '사실, 추론, 평가, 감상'으로서 날개 질문을 했기보다는 크게 '맥락 읽기' 형식으로 질문을 수록하였다. 이것은 날개 질문에 '사실, 추론, 평가, 감상을 붙인 것이 효율적인가', '붙이지 않은 것이 효율적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 모두 맥락 읽기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날개 질문을 붙이기 시작한 개정 국어 교과서 편찬 취지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읽기 후 활동에 해당되는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		활동 내용	학습 효과
내용 다 지 기	1. 작품 이해하기	1) 영화의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카드를 배열하기.	영화의 중요 사건을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읽은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다.
		2) 주요 장면마다 등장인물의 말에 담긴 생각을 적어보기.	인물들의 속 대사를 생각하며 영화 속 인물들의 성격을 정리할 수 있다.
목 표 다 잡 기	2.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변화 정리하기	인물들의 심정 변화의 계기를 중심으로 인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변화 살피기.	인물의 심정 변화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인물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3. 인물 비판하기	주인공 엄마와 초원의 자폐로 인해 오해한 여성의 대화를 통해 각 인물들의 가치관을 정리하고 두 사람의 갈등을 파악하기.	인물을 비판할 때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발판을 제공한다.

생각 키우기	4. 생각 키우기	주인공 어머니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대해 토론하기.	인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토론하며 비판적인 생각은 무조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따져보아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배운다.
--------	-----------	------------------------------	---

[표 13] 금성(윤) 학습활동 양상

금성(윤)은 학습활동이 '인물'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용학습'에서 영화에 대한 구조를 충분히 학습했다고 보고 그 이후 활동에서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학습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습활동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도록 유도하며, 스스로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교사로 하여금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학습활동은 일차적으로 학습 목표를 뒷받침해야 하지만, 다양한 영역 다양한 제재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금성(윤)은 지나치게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오히려 영화만의 특성을 배울 수 있는 활동은 없어져 버렸다. 교학사(김)에서는 '초원의 대사, 소품, 행동 등을 바탕으로 초원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는 활동'을 통해 영화라는 특별한 장르에서 인물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금성(윤)은 적용학습으로 가는 단계를 지나치게 염려한 듯 목표학습 2번부터 시작해 적용학습 4번으로 연계성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오히려 목표학습의 '3번 인물 비판하기'를 적용학습에 묶어 토론하기 전 인물에 대해 비판할 거리를 정리해보고 토론하는 활동으로 구성했어도 좋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3) 대교(박)

이 교과서는 읽기-5와 관련하여 『말아톤』이 소단원(1)에 수록되어 있고 학

습목표는 다른 교과서와 비슷한 양상으로 '영화의 특성을 알고 인물의 성격과 형상화 방식을 이해하기'로 되어 있다. 대교(박)에서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하는 활동은 배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대사나 행동뿐 아니라 표정이나 목소리 및 영상이나 소리, 음악 등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단원의 길잡이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간략하게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수록하고 있다.

주인공이 나타날 때 마다 흐르는 음악이 좋아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러 간다는 대화를 통해 영화는 문학, 음악 등 여러 예술 분야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임을 정의하며 단원을 시작하고 있다.

본격적인 소단원 활동은 '읽기 전에(읽기 전 활동)- 본문(읽기 중 활동)- 학습 활동(읽기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전에' 활동은 금성(윤)과 마찬가지로 영화 포스터만을 수록하며 이 포스터를 보고 영화의 내용이 어떠할지 추측을 하는 활동으로 꾸며져 있다. '읽기 전에' 활동 다음에는 학습 주제인 『말아톤』을 수록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앞서 언급한 <② 경숙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초원이를 혹사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됨> 이 부분이다. 특히 병실에 초원이 어머니인 경숙이 누워서 남편에게 지난날을 얘기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속내를 보여주는 장면은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갈등과 어머니의 괴로운 심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S# 93 병원 병실/ 밤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경숙, 옆에 앉은 희근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경숙: 이왕 이렇게 세상에 태어난 이상 뭐 하나라도 즐길 수 있는 거 살아 있다는 기분 느낄 수 있는 거 하나쯤 엄마가 만들어 주고 떠나자. 근데 어느 날 보니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고 꿈꾸고 위로받고 있는 거였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멋대로 굴러 가면서…….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어. 그럼 난 살 수가 없을 거 같았거든.(눈물을 떨구며) 애가 기억하더라고. 옛날에 동물원에서 잃어버렸던 걸……. 사실은 말야. 그때 내가 초원이를 버렸던 거야. 사람들 틈에서 손을 놓았지. 도저히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저 살

자고 애를 버렸던 엄마가 이제 또 제가 살려고 애를 그렇게 한평생 못살게 군 거야.

이 장면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수록한 것은 대교(박)가 인물의 성격과 형상화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이때 경숙의 대사와 목소리 톤, 흐르는 음악, 얼굴 표정을 통해 경숙의 몸과 마음이 지쳤음을 단지 대사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읽기 중 활동'을 돕기 위해 역시 날개 질문을 수록하고 있다. 교학사(김)와 다르게 '사실, 추론, 평가, 감상'이 제시되지 않고 본문 옆에 중간 중간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예시) 경숙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러한 효과는 앞서 금성(윤)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읽기 후 활동에 해당되는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		활동 내용	학습 효과
내용 학습	1. 작품 이해하기	1) 장면마다 등장인물과 중심내용 정리하기.	영화의 중요 사건을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읽은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다.
		2) 이 글을 읽고 느낀 점 말해보기.	『말아톤』에 대한 자신만의 감상을 정리함.
목표 학습	2. 등장인물의 성격이 드러난 장면을 찾아 정리하기.	경숙과 정욱을 바탕으로 각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장면을 찾아 성격을 정리.	인물의 심정 변화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며 인물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3.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행동 중에서 공감이 가는 점은 무엇인지 또 그렇게 느낀 이유를 정리	경숙, 정욱, 중원을 통해 각 인물 중 공감이 가는 생각이나 행동을 정리하는 활동	인물의 행동에 염두하며 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내면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하기.		
	4. 시나리오의 특징 알기	1) 내가 감독이 되어 필요한 영화의 요소를 정리하기. 2) 영화 『말아톤』을 보고 쓴 글을 통해 영화의 특성을 말해보기.	영화예술의 기본적인 특징 을 배운다.
선 택 학 습	4. 생각 키우기	1) 포스터 다시 꾸미기 2) '초원'역을 맡았던 배우의 인터뷰 글을 읽고 '초원'역을 연기할 때에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기.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줄거 리 파악, 인물분석을 넘어 서서 자신만의 감상으로 포 스터를 다시 만들어 보는 활동은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마지막활동인 배우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읽은 '초원'이와 배우의 생 각은 어떻게 다른지와 영화 에서 한 인물을 창조하는 배우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 해서도 배울 수 있다.

[표 14] 대교(박) 학습활동 양상

대교(박)는 적용학습이 아닌 선택학습으로 이름을 달리하고 있을 뿐 결국 기본활동에서 벗어나 지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활동으로 봐도 될 것이다. 대교(박)의 활동은 앞서 분석한 교과서와 달리 그 활동의 양이 많은 수준이다. 먼저 '작품 이해하기'는 교과서에 수록한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줄거리를 정리하여 마무리는 이 영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식의 기본적인 감상문틀을 제시했다.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으로는 가장 고전적인 활동이다. 다음으로 학습목표를 중점으로 이해하는 목표 학습은 '인물'과 '영화 속 인물의 형상화'에 맞춰 총 3가지의 활동으로 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활동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세 번째 활동인 시나리오 이해에서 '2) 영화 『말아톤』을 보고 쓴 글을 통해 영화의 특성을 말해보기.' 활동은 지나치게

학습량이 초과되었다고 판단된다. 앞의 활동에서 내가 만약 영화감독이라면 무엇이 필요할까? 를 통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산만하지 않게 나온 의견을 묶어 학생들과 절충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 영화에서 필요한 것, 시나리오에 구현되는 것을 비교하며 마무리 짓는다면 이미 충분히 영화에 대한 특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2)번째 활동은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보기 힘들다.

마지막 선택학습에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다시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것은 참신한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앞의 읽기 전 활동에서 실제 영화포스터를 보았고 이제 영화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알았으니 새롭게 자신들만의 언어로 포스터를 만들어보는 활동은 흥미로운 활동이 될 것이다. 포스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사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느낀 영화에 대한 감상,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장면이 결합되면서 포스터가 만들어 질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앞의 내용학습과 목표학습에서 배웠던 일련의 지식을 총괄하는 활동으로 주목된다. 그리고 그 다음 활동인 주연배우의 인터뷰를 읽는 것은 영화 속에서 새로운 인물을 창조할 때 배우의 가치관도 창조된 인물에 녹아 있음을 배우게 된다. 영화 안에서 인물의 형상화 방식은 음악, 소품, 대사를 넘어서서 배우의 신념과 가치관도 포함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영화는 종합예술이다.'를 더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이라 여겨진다.

(4) 대교 (왕)

이 교과서에서 『말아톤』은 소단원 (3)에 실려 있다. 학습목표 역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의 길잡이를 통해 문학작품 중 소설이나 연극, 영화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그 인물은 여러 사건들 속에서 갈등을 겪음

을 밝히고 작품의 갈등 구조 이해하기, 작품 속 인물과 갈등의 해결 과정 이해하기, 작품 속의 인물에 대한 비판적 태도 기르기로 단락을 나누어 단원에 들어가기 전 전반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설명문의 형식으로 꽤 길게 수록하고 있다. 다른 교과서는 짧게 만화로 제시하거나 혹은 임의로 설정한 담화내용을 수록하여 단원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교(왕)는 굉장히 친절하게 앞으로 배워나갈 학습목표를 나눠 각각 목표마다 핵심적인 내용, 명제적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학습자가 무엇을 배울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문학작품에서 갈등구조를 파악하는 것의 의의,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을 굳이 설명해가며 작품을 살펴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줄이고 지루한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자칫 지루하고 심적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크다.

본격적인 소단원 활동은 '읽기 전에(읽기 전 활동)- 본문(읽기 중 활동)- 학습 활동(읽기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전에' 활동은 금성(운)과 마찬가지로 영화 포스터만을 수록하며 이 포스터를 보고 영화의 내용이 어떠할지 추측을 하는 활동으로 꾸며져 있다. '읽기 전에' 활동 다음에는 학습 재인 『말아톤』을 수록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앞서 언급한 <①마라톤 코치 정욱은 초원의 끈기를 통해 가슴이 뭉클해져 성의 없이 훈련했던 지난날을 접고 서로 마음을 열어 훈련에 매진> 이 부분이다. 이 장면은 코치 정욱의 내면심리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장면으로 초원의 순진성과 끈기가 어우러져 학생들에게 앞으로 초원과 코치의 돈독한 관계를 기대하게 하는 장면이다.

S#60 구민 운동장, 낮

정욱: (기가막힌 듯) 하, 100바퀴를 채우겠다고? (멀어져 가는 초원을 보며) 저거 진짜 로봇이네? 그래. 마저 돌아라. 100바퀴 짹 짹 채워.

정욱, 멈춰 서서 팔짱을 끼고 초원을 바라본다.

정욱: (시계를 보며) 세 시간 반.

트랙을 돌아 정욱 쪽으로 달려오는 초원, 지친 기색이 역력하지만, 억지로 뛰는 것 같지는 않다. 초원의 얼굴엔 약간의 미소마저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정욱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드디어 마지막 바퀴를 마저 채우는 초원.
땅바닥에 안장 숨을 몰아쉬고 있는 초원에게 다가가는 정욱.

정욱: 100바퀴 다 뛰니까 좋아?

초원: 네.

정욱: 뭐가 좋아? 힘 안들어?

초원,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있다.

정욱: (놀라며) 왜 그래? 가슴 아파?

가쁜 숨을 내쉬며 말없이 정욱을 올려다보는 초원. 갑자기 정욱의 손을 잡아 자기 가슴에 대어 준다. '쿵쿵' 격렬하게 박동하는 초원의 가슴(E).
전기에 감전된 듯 놀라는 정욱의 얼굴, 한동안 마주 보는 두 사람.

이 장면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수록한 것은 대교(왕)가 인물의 성격과 형상화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이때 정욱의 대사와 목소리 톤, 흐르는 음악, 얼굴 표정을 통해 정욱의 심리 변화를 더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읽기 중 '활동'을 돕기 위해 역시 날개 질문을 수록하고 있다. 교학사(김)와 다르게 '사실, 추론, 평가, 감상'이 제시되지 않고 본문 옆에 중간 중간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예시) 경숙이 초원에게 마라톤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이러한 효과는 앞서 금성(윤)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읽기 후 활동에 해당되는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		활동 내용	학습 효과
바탕 학습	1. 말아톤의 내용을 정리 하자.	1)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내용정리	영화의 중요 사건을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읽은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다.
		2) 주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 하기	
	2. 등장인물 중 갈등이 두드러지는 두 인물 찾기.	주요인물 중 가장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인물을 선택하여 갈등의 양상을 정리해 본다.	인물의 관계를 생각하며 영화 속 인물들이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주인공 초원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게 된다.
돋움 학습	3.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정리하고 친구들과 토론하기.	경숙과 정욱의 대화를 통해 각각 인물의 생각을 들여다보기.	경숙과 정욱이 초원을 대하는 태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둘 중 누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먼저 인물을 평가한 후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다.
		4. 영화 『말아톤』을 보고 시나리오와 비교하기.	1) 시나리오와 영화 장면 비교하기 2) 시나리오 용어 배우기
선택 학습	5.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학습내용다지기 활동으로 앞의 소단원 모두를 정리하는 문제를 수록함. 이 중 6번 문제는 『말아톤』과 관련해 정	앞의 내용 학습과 돋움학습을 총괄하는 활동으로 학습 목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리하는 문제로 수록.	
--	--	-------------	--

[표 15] 대교(왕) 학습활동 양상

대교(왕)는 바탕학습-돋움학습-선택학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선택학습은 학습내용다지기 활동으로 앞의 소단원 모두를 정리하는 문제를 수록하고 있다. 이 중 『말아톤』은 6번 문제로 수록되어 있다. 대교(왕)의 학습활동을 보면 역시 학습활동의 양이 상당하다. 이미 내용학습에서부터 내용을 정리하고 인물의 관계를 설정하는 활동은 문제는 두 문제이지만 총 4문제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특히 인물의 성격을 말하고 거기에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두 인물을 따로 추려 그 갈등양상을 파악하는 활동은 인물-갈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나치게 중복된 활동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돋움학습을 통해 또 다시 정욱과 경숙의 갈등을 확인하고 이 둘의 갈등이유를 확인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두 인물의 갈등이유만 여러 번 확인하는 학습활동이고, 내용학습에서 더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돋움학습의 다른 활동으로 갑자기 커다랗게 영화라는 장르를 공부하는 활동이 등장한다. 오히려 이 활동을 나누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이 영화에서는 인상적으로 다가온 장면이 있는지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로 문제를 재설정해 수록한다면, 선택학습에서 영화에 대해 더 이해하기 문제로 시나리오 용어나 『말아톤』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낼 때 영화의 특성을 잘 활용한 장면을 말해 보는 활동으로 나뉘었다면 중복되는 활동을 줄이고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되었을 것이다.

(5) 미래엔컬처 (이)

이 교과서는 소단원(2)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단원의 학습목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 구조를 파악하고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로 읽기-5영역의 성취기준이기 때문에 역시 학습목표는 동일하다. 이 교과서는 단원을 시작하기 전 활동으로 각 소단원의 작품명만 제시하고 있을 뿐 아무런 설명글이나 대화하는 장면 등이 전혀 없다. 아주 간략하게 각 작품의 학습목표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구성은 학습 활동이 중요해 보인다.

본격적인 소단원 활동은 교학사(김)와 마찬가지로 '준비활동(읽기 전 활동)-본문(읽기 중 활동)-학습 활동(읽기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활동'은 다양한 영화의 스틸 컷을 수록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을 떠올려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영화의 스틸 컷은 꽤 유명한 작품으로 『마음이』, 『아홉 살 인생』, 『웰컴 투 동막골』의 한 장면을 수록했다. 꼭 이 영화 말고도 교사의 재량으로 학생들이 본 영화중에 인상 깊은 인물이 등장한 영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 충분히 영화와 인물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본문에 수록된 장면은 ②유형을 중심으로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읽기 중 활동'을 돕기 위해 역시 낱개 질문을 수록하고 있다. 교학사(김)와 다르게 '사실, 추론, 평가, 감상'이 제시되지 않고 본문 옆에 중간 중간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예) 중원의 속마음을 어떻게 생각해보자.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추론, 평가, 감상'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것은 교사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즉 학생들에게는 '사실, 추론, 평가, 감상'

으로서 날개 질문을 했기보다는 크게 '맥락 읽기' 형식으로 질문을 수록하였다. 이 역시 금성(윤)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읽기 후 활동에 해당되는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		활동 내용	학습 효과
이해 학습	1. 영화를 감상하고 다음 빈칸을 채우자	1) 각각 인물의 정보를 정리하자.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학습.
		2) 가장 공감 가는 인물에 대해 말해보자.	
	2.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경숙이 왜 이렇게 대답한 것일까? 2) 초원이 결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인가? 엄마에게 훈련받은 습관인가? 의견을 말해보자.	초원이 마라톤에서 완주한 후 마지막 장면을 교과서에 수록하여 본문에서 배운 경숙의 속상하고 서러운 심정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를 유추한다.
	3. 이 영화에서 감동적인 장면과 이유 쓰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자신이 인상 깊었던 장면을 써본다.	감동은 사람마다 다른 장면에서 다가올 수 있다. 영화 『말아톤』에 대한 각자의 느낌을 정리하며 내용을 정리한다.
목표 학습	1. 이 영화의 흐름을 생각하며 문제 풀기.	보기가 주어지고 이 보기를 알맞게 빈칸에 넣어 스토리를 완성한다.	교과서에는 영화 『말아톤』이 다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줄거리를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학습 활동으로 전체줄거리 잡기 제시.
	2. 교과서 속 영화 장면이 아닌 다른 장면을 통해 인물 파악하기.	1) 경숙의 성격 유추하기. 2)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가?	학습목표에 성취를 위해 중심인물인 경숙의 성격을 대화 속에서 유추해 나가고 이것을 친구와 비

		3) 친구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한 방법을 비교해 보고 영화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리하기.	교해보며 영화 속에서 인물을 형상화 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경숙의 대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자.	1) 경숙이 초원을 기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경숙의 감정이 가장 폭발하는 신을 수록하여 경숙의 고민과 내면을 느껴 본다. 이러한 활동은 인물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2) 경숙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	
		3) <보기>로 제시한 경숙의 말에 대한 한 학생의 생각을 읽어본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4) '3)'을 바탕으로 토론하기	서로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눈다.
모둠 활동	4. 시나리오 낭독하기.	먼저 인물들의 행동이나 어투를 결정하고 배역을 나눠 실감나게 읽어보자.	충분히 앞의 문제에서 인물의 감정과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사를 했을지 고민하고 이해했다고 판단, 실제 낭독을 통해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표 16] 미래엔컬처 (이) 학습활동 양상

읽은 후 활동으로 내용이해를 중점으로 하는 이해학습, 그리고 학습목표를 전반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목표학습, 마지막으로 조별학습으로 학습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이 교과서는 인물의 가치관 이해와 비판적 수용을 초원의 어머니인 경숙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초점을 맞춰 꾸미고 있다. 본문에 실린 부분이 자폐아동을 기르는 경숙의 내면갈등이 가장 표출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학습활동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숙의 마음을 알기까지 학생들은 이해학습 1번에 1), 2)를 풀고 목표학습까지 도달하고 나서야 경숙을 똑바로 볼 수 있다. 거기다 목표학습 3)에 오면 경숙에 대한 어떤 학생의 글을 읽고 이것을 바탕으로 내 생각을 정리한 후 다른 친구들의 발표까지 듣고 나서야 초원엄마 경숙의 속마음, 인물을 바라볼 때 곁에 드러나는 대사만을 통해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목표에 어긋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한 방향만 보고 달려가는 양상이다. 정말 학습활동은 '말아톤'으로 만들어 버렸다.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 작품 속에서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다른 교과서와 달리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은 주었으나 이 수업은 배우수업이 아니다. 마지막에 시나리오 실감나게 읽기를 위한 준비활동처럼 보이며 다소 비효율적인 학습목표로 보인다.

(6) 새롭 (권)

이 교과서는 『말아톤』을 소단원(2)에 배정하고 있다. (2)단원의 학습 목표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로 되어 있고 역시 읽기-5의 성취기준으로 다른 교과서들과 같은 학습목표이다. 단원을 시작하며 이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나의 학습 계획'을 짜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할 학습목표를 먼저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점검하는 활동은 자신이 영화라는 장르에 대해 그동안 그냥 영화만을 본 건 아닌지, 영화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쯤 고민하고 염두 하는 활동은 대단히 신선하며 긍정적인 학습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공한다.

본격적인 소단원 활동은 '읽기 전에(읽기 전 활동)-본문(읽기 중 활동)-학습 활동(읽기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전에'에는 지금까지 본 영화 중 가장 흥미로웠던 작품을 떠올려 보고, 그 영화 속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활동으로 꾸며져 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영화 『말아톤』에 내용 공부에 앞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 교과서에 실린 주된 내용은 유형 ③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을 본문에 수록하고 있다. 읽기 중 활동을 새롭(권) 역시 다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사실-추론-평가-감상'으로 날개 질문이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고 교학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추론-평가-감상'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예시) 초원이는 왜 초코파이를 먹지 않았을까?

읽기 후 활동에 해당되는 학습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		활동내용	학습효과
영화의 매체 특징 이해하기	* 글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1. 영화의 특성 알기.	영화의 카메라 기법을 설명하는 설명문을 수록하여 영화가 가지는 특징을 이해한다.
		2. 카메라 기법 알기.	
영화의 서사구조 파악하기	* 각 장면에 따라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리하기.	주요장면을 통해 간략하게 사건을 정리한다.	본문의 줄거리를 다시 다지는 활동으로 중요한 장면의 줄거리를 정리해본다.
	* 한 장면을 소설로 바꾸고 이것을 바탕으로 영화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 알기.	시나리오 한 장면과 그 장면을 소설로 바꾼 두 개의 지문을 분석해보자.	영화와 소설은 사건을 다루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인물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이해하기	* 작품 속 경숙을 떠올리며 주어진 활동하기.	1. 각 장면에서 경숙의 심리상태를 정리하기 2. 초원에 대한 경숙의 태도변화를 써보기. 3. 마라톤 대회 날 경숙은 초원이를 말리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숙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알기	작품 속 인물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한다.
토론하기	주어진 지문을 읽고 활동하기.	1. 자폐증 초원의 처지를 고려하며 인물들의	작품을 정리하고 실제 사회와 연관 지어

		대사의 의미 파악하기.	토론해 보는 활동은 작품의 이해를 넓혀줄 것이다.
		2. 초원이 앞으로 가져야 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토론하기.	
		3. 초원과 같은 장애 친구들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 토론하기.	

[표 17] 새롭(권) 학습활동 양상

새롭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학습활동 구성이 다른 점을 파악 할 수 있다. 내용이해하기에서 목표학습 그리고 적용학습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학습 활동이 아닌 각 학습활동마다 내용이해와 목표학습이 섞여 있어 복합적인 활동을 기대하게 한다. 앞의 교과서들은 영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육 과정과 차이가 없는 학습활동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권)에서는 그 구성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학습활동을 구현하고 있다. 또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영화라는 장르의 특성을 알기 쉽게 아주 짧은 분량으로 카메라 기법의 설명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설명문을 분석하는 문제로 활동을 이어갔다면 많은 학습량으로 부담스러울 것인데, 설명문은 수록한 것으로 끝내고 『말아톤』의 한 장면을 넣어 이 장면은 카메라 기법이 어땠는지 생각해보는 활동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것은 영화의 매체 특성을 조 더 쉽게 다다갈 수 있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에서는 소설과 영화의 차이를 위해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소설로 바꾼 두 개의 지문을 실어 학생들이 직접 읽고 표로 그 차이점을 정리 할 수 있게 했다. 많은 장면이 아닌 초원이가 뛰는 한 장면만을 가지고 소설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분량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후 활동은 앞의 교과서에서도 보았던 활동들이다.

즉 새롭(권) 교과서는 학습활동을 기존의 교과서들과 차별을 두고 있고 그 효율성이나 참신성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7) 응진(이)

이 교과서는 『말아톤』을 소단원(2)에 배정하고 있다. (2)단원의 학습 목표는 <영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영화 감상 능력을 기른다.>로 되어 있고 역시 읽기-5의 성취기준으로 다른 교과서들과 같은 학습목표이다. 단원을 시작하며 이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나의 공부 습관이나 수준을 점검해보는 독특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예시) 영화를 볼 때 음악이나 시각 효과에 관심이 많다.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어떻게 갈등이 해결되는지 궁금하다

읽기 전 영화에 대해 배울 것인데 그 장르에 대해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하며 동기유발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배울 것을 넘어서서 더 배우고 싶은 것도 적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자 매우 노력한 교과서로 보인다.

본격적인 소단원 활동은 '읽기 전에(읽기 전 활동)-본문(읽기 중 활동)-학습 활동(읽기 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전에'에는 『말아톤』의 포스터를 꼭 실어놓고 이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고 어떤 내용의 영화일지 추측해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 실린 주된 내용은 유형④로 다른 교과서와 달리 중심사건을 담은 내용을 짧게 수록하여 영화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미고 있다. 그리고 날개 질문이 따로 없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영화 한편을 이해할 수 있는 구성이지만 이것은 학습 목표인 '영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영화 감상 능력을 기른다.'를 얼마만큼 성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영화를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시나리오를 통해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읽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영화읽기를 방해하는 구성인 것이다.

읽기 후 활동에 해당되는 학습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		활동 내용	학습 효과
이 해 학 습	1. 『말아톤』의 장면을 떠올리며 물음에 답하기	1) 인상 깊었던 장면 떠올리기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학습.
		2) 영화만의 요소를 정리하기	
목 표 학 습	2. 인물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1) 무엇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알 수 있을까?(예: 복장, 표정)	인물의 특징을 통해 영화에서 인물을 나타내는 형상화 알기.
		2)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기.	
	3. 대화의 장면을 통해 인물의 가치관을 생각하기.	1) 경숙과 정욱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장면마다 대립되는 인물을 통해 인물의 내면심리를 파악 할 수 있다.
		2) 중원과 경숙이 서로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적 용 학 습	4.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1) 칭찬하고 싶은 인물과 조언하고 싶은 인물 정하기. 2) 영화에 대한 나의 평가. (한 줄 평가, 별점주기 등)	그동안 학습한 활동을 통해 영화내용을 정리한다.

[표 18] 웅진(이) 학습활동 양상.

이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지나치게 평이하게 구성되어, 시나리오 체제를 학습하는 방식이 거의 변별되지 않았다. 교과서의 본문 구성에도 문제점을 노출하였고 학습활동에서 역시 기존의 학습활동과 큰 차이 없이 평이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구성은 영화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수록한 의의가 반감될 것이다.

2)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 새로운 희곡의 등장

이 작품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새롭게 등장한 창작 희곡이다. 현재 대학로에서 실제로 공연도 하고 있는 이 작품은 현재 5년 동안 쉬지 않고 공연하고 있으며 2003년 연극협회에서 올해의 우수연극으로 선정되었고 제 40회 동아연극상 희곡상을 받아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희곡은 연극 공연을 전제로 한다. 연극은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므로, 희곡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인물 간의 갈등이나 그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는 대사와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실제로 이 작품은 공연도 하고 있고 기존의 교과서에 실렸던 희곡과 달리 분량도 짧은 편이다. 또한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다루다 하나의 중심사건을 계기로 극의 변화가 전 후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수록할 때 기준점을 잡기 편한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작품과 달리 현대극이어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따로 필요 없고 작품 속 인물들의 대사도 지금 우리가 쓰는 말투와 같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쉬운 작품이다.

(1) 작품 들여다보기

① 작품의 줄거리 및 주요 내용 분석

이 작품은 오아시스 세탁소에서 일어나는 일화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에 젖은 사람들의 의식을 꼬집은 희곡으로 주요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동네 어디에나 있는 허름한 세탁소인 오아시스 세탁소가 있다. 그곳엔 대를 이어 세탁소를 하는 주인 강 씨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부잣집 할머니가 죽기직전 유산에 대한 언급을 하며 죽었고 그 유산이 세탁소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퍼진다. 그래서 그 돈에 눈 먼 할머니의 자식들과 할머니를 간병하던 간병인을 포함해 주변 사람들이 세탁소를 습격한

다. 세탁소 주인 강태국은 그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 하던 할머니가 맡겨둔 보물 아닌 보물을 찾게 된다. 그것은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놓은 수의였다. 강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옷 보따리를 챙겨 사람들 앞에 선다. 사람들은 그것이 보물인지 알고 짐승처럼 서로 으르렁 거린다. 사람들은 강 씨에게 몰려가 서로 밀치고 잡아당긴다. 강태국은 재빨리 그 옷 보따리를 세탁기 안에 넣고 사람들은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세탁기로 몰려 들어간다. 강태국은 얼른 세탁기 문을 닫고 고민 후에 작동 단추를 누른다. 이윽고 세탁기는 돌아가고 다 작동이 끝난 뒤 사람들이 어느새 흰옷을 입고 빨래집게에 꽂힌 채 빨랫줄에 걸려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세탁된 사람들은 유쾌하게 웃으며 극이 끝난다.

오아시스 세탁소는 3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동네 사랑방과 같은 공간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다양한 소시민들의 사연과 시간이 담겨 있다.

전반부에는 어수룩한 광대 세탁배달부 염소팔, 40년 전에 어머니가 맡겼던 세탁물을 찾아 희망을 갖게 되는 어느 불효자, 멀쩡한 옷을 찢고 문양을 넣은 신세대 여학생, 명품 매니아 나가요 아가씨, 항상 무대의상을 빌리고자 하는 가난한 연극배우 등 다양한 인물들이 극 초반에 등장하며 서로의 이야기에 에피소드처럼 풀어 나간다. 그들이 옷을 빌리고 옷을 찾아가면서 관객은 그들의 일상과 삶을 듣게 된다. 그러다 갑자기 이 작품은 어느 부잣집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세탁, 세탁소'를 남기고 떠나자 큰 소용돌이에 휩쓸린다.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극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할머니가 죽어가며 유언을 남길 때 간병인과 할머니의 자식이 함께 듣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간병인은 이러한 사실을 세탁소 주인의 부인에게 말하고 이 사실을 안 아들은 세탁소를 뒤져야 하기에 할 수 없이 그 보물을 찾게 되면 50%를 주겠다고 말하고 아들 식구들과 간병인, 주인공 강태국의 아내와 딸은 밤중에 몰래 세탁소로 침입해 숨는다.

어두운 무대에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움직인다. 어둠 속을 누비는 불빛들, 강 씨의 부인과 아이,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 딸, 그리고 간병인이다. 곡예를 하듯 옷과 옷 사이를

누비고 숨으며 각기 결심을 피력한다.

할머니 가족들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한 내용을 주고받듯 속삭인다.

며느리: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듯) 50%가 뉘 집 에 이름이야?

아들: 그러다 몽땅 가지고 도망가면 또 어떡해?

며느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지!

...(중략)...

간병인: 나도 팔자 한번 바꾸어 보자고! 누가 좋다고 똥, 오줌 귀저기 빨았나? 남들이라고
눈이 셋이고 팔다리가 열씩이라 자가용타나!

강 씨 부인: (이를 악물며) 나도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이야. 이젠 다 하고 살 거, 아야!
아우, 헉 깨물었다.

강 씨의 아이: (짜증내며) 엄마가 하고 싶은 일에 왜 나까지 끌어들여! 진짜 짜증 나!

강 씨의 부인:(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어학연수 보내 달라며? 너 하고 싶은 일에 왜
부모는 끌어들여?

...(중략)...

어둠 속에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욕망의 불빛들. 작은 전등을 입에 물고 머리에 달고 손에
들고 옷과 옷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누비는 불빛들. 전등 불빛에 드러나는 옷들이 마치 귀
신 형상처럼 보인다.

할머니의 유산에 탐이 난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망으로 이끌거린다. 이것을
그들이 비추는 손전등을 통해 상징화 하고 있고 그들이 옷 사이를 헤매며 다
닐 때는 한 마리의 짐승처럼 지시문에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옷을 마
구 던질 땐 그 옷들을 귀신의 형체로 보이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것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강 씨: 뭐야? 왜 이래? 누구 있어?

사람들: 야옹

강 씨: 가라, 가 (솔로 옷을 던다.) 우리 마누라 알뜰해서 너 먹을 것 없다. 어디 보자.
(상자 속에서 옛날 아버지 잠기장을 꺼내 읽어본다.) 이 법은 옷에 묻은 물건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 되는 맛 가진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아버지 생각에) 아

버지!(코를 훔치고 다시 읽는다.) 가령 사탕이 묻었으면 매운 무나 생강으로 빨고, 그 반대로 매운 고춧가루 같은 것이 묻은 때는 단 설탕으로 빨아라. …(중략)…

제가 세탁소 좀 하면서 살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도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짓인가요? 이 '때' 많은 세상 한 귀퉁이 '때' 좀 빼면서 그거 하나 지키면서 보람 있게 살아 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돈이 뭔데요? 돈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런 겁니까? (러닝셔츠 팔뚝에 눈물을 닦고) 아버지, 나 괜찮아요(코를 풀고) 나요, 세탁소 합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좋아요. 아버지만 알면 돼요. 그럼 됐지.(세상에 대고 말하듯) 네놈들이 다 몰라 줘도 나 세탁소 한다. 그게 내 일이거든 (다시 일어나 일을 하며 흥얼거리려 외운다)이 법은 옷에 묻은 물건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맛 가진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

이 장면은 주인공 강 씨가 아버지의 노트를 보며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부분이다. 강태국의 대사에서 우리는 주제를 짐작 할 수 있다. 그는 이 세상에 '때'가 끼있는 곳이라면서 자신의 일은 사람들의 옷에 묻은 '때'를 제거하는 보람된 일임을 전달하고 있다. 즉, '때'는 이 세상에 물질만능주의로 얼룩진 사람들의 마음이며 깨끗한 옷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도 정화되기를 바라는 주인공의 바람도 담겨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때'를 제거할 땐 반대되는 맛으로 제거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후 갈등 해소에 복선이 된다.

강 씨가 사람들 사이에 널브러진 시체 같은 옷들을 주워 든다. 분노에 찬 강 씨.

강 씨: 이게 사람의 형상이야? 뭐야? 뭐에 미쳐서 날뛰다가 제 형상까지 잊어버리는 거냐고?(손에 든 옷 보따리를 흔들며 보이며) 김순임, 이것 때문에 그래?

강 씨 부인: (감격해서) 여보!

강 씨의 아이: 엄마, 아빠가 찾았다!

아들: (다가가며) 이리 줘!

강 씨: (뒤로 물러서며) 못 줘!

며느리: (거만하게 포기하듯이) 아저씨, 여기요 50% 줄 테니까 이리 줘요!

강 씨: 에이, 나쁜 사람들, (옷 보따리를 가지고 문으로 향하며)나 못 줘! (울분에 차서) 이게 무엇인지나 알아? 나 당신들 못 줘. 내가 직접 할머니 갖다 드릴 거야.

…(중략)…

강 씨: 안 돼. 할머니 갖다 줘야 돼. 웬지 알아? 이건 사람 것이거든. 당신들이 사람이면

주겠는데 당신들은 형상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짐승들에게 사람의 것을 줄 순 없어.

사람들 강 씨를 향해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뿌리치며 간다. 세탁기로 밀리는 강 씨. 재빨리 옷 보따리를 세탁기 속에 넣는다. 사람들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세탁기로 몰려 들어간다. 강 씨가 열린 세탁기 문을 닫고, 놀란 사람들, 세탁기 문을 두드린다. 강 씨, 작동 단추 앞에 손을 내밀고 망설인다. 사람들, 더욱 세차게 문을 두드린다. 강 씨, 작동 단추에 올려놓은 손을 부르르 떤다.

강 씨: (주문을 외우듯) 이 법은 옷에 묻은 물건의 맛에 따라 그와 반대되는 맛 가진 물건으로 빼는 것이니 사탕이 묻었으면 매운 무나 생강으로 빨고, 그 반대로 매운 고춧가루 같은 것이 묻은 때는 단 설탕으로 빨아라.

강 씨가 버튼을 강하게 누른다. ... (중략) ... 강 씨가 주머니에서 글씨가 뺄뺄하게 적힌 할머니의 눈물 젖은 옷고름을 꺼내어 들고 무릎을 꿇고 앉는다.

강 씨: 할머니 비밀은 지켜 드렸지요? 그 많은 재산, 이 자식 사업 밀천, 저 자식 공부 뒷바라지에 찢기고 잘려 나가도, 자식들은 부모 재산이 끝없이 샘솟는 화수분인 줄 알아서 할머니를 거지를 만들어 놓았어도, 불효자식들 원망은커녕 형제간에 의상할까 걱정하시어, 끝내는 혼자만 아시고 아무 말씀 안하신 할머니의 마음 다 압니다. ... (중략) ... 그럼 안녕히 가세요! 우리 아버지 보시면 꿈에라도 한번 들러 가시라고 전해 주세요. (옷고름을 태운다.)

음악 높아지며 할머니의 혼백처럼 눈부시게 하얀 지마저고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세탁기 속에 있던 사람들도 어느새 흰옷을 입고 빨래집게에 꽂힌 채 빨랫줄에 걸려 있다.

사람들: (유쾌한 목소리로) 마음 세탁 끝! 하하하, 호호호.....

주인공과 주변일물들의 감정이 가장 극적으로 마찰하며 극의 긴장감이 가장 최고조에 도달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눈여겨 볼 대사는 강 씨의 대사이다. 할머니가 맡겨 둔 옷 보따리를 찾아와 너희는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소리친다. 이것은 현재 돈에 집착하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강 씨의 입을 빌어 작가는 주제를 가장 극적인 순간에 터뜨리고 있다. 사실 이 보따리에 들어 있는 것은 할머니의 유산이 아니라 죽

을 때 입는 '수의'였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마리의 짐승처럼 무작정 달려든다. 강 씨는 더러운 '때'로 얼룩진 옷도 세탁기에서 나오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깨끗해지길 소망하며 세탁기버튼을 누르는 일련의 장면들은 문학적 장치이며 이것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하게 한다. 사람을 세탁하는 이 장면은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에서 가장 의미 있고 하이 라이트 장면이 된다. 이 후 강 씨는 할머니의 눈물 젖은 옷고름을 태우며 혼백을 위로하는 행동을 취하고 세탁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전 부 흰옷을 입고 나와 '마음 세탁 끝!'을 외친다. 인물들의 갈등이 순식간에 사그라지고 해결되어 행복하게 마무리 되는 결말은 이 작품을 다소 밋밋하게 만드는 단점으로 보일 수 있으나 세탁을 통해 얼룩지고 꾸겨진 오늘을 지우고 다시 내일을 꿈꾸자는 상징은 기존의 충, 의 등을 강조하는 희곡 작품보다 학생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흥미롭게 다가올 것이다.

②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의 사람들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총 7명이다.

가. 세탁소 주인 강 씨: 자상한 아버지이며 대대로 내려오는 세탁소의 일을 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가장이다.

나. 강 씨 부인: 억척스럽게 세탁일을 돕다가 할머니의 유산이야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심이 꿈틀댄다. 남편을 만류하며 사람들과 함께 돈을 찾기 위해 전전 궁궁하게 된다.

다. 할머니의 간병인: 할머니의 똥 귀저기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주며 근근이 살아가는 인물. 역시 할머니의 '유산' 이야기에 그동안 보살핀 값을 더 받아야 한다며 돈을 찾기 위해 세탁소를 습격하는 일에 가담한다.

- ④ 할머니 가족들: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인간의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면을 보인다. 특히 할머니의 아들과 딸은 할머니의 이름조차 모르는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노부모를 대하는 예의 없고 비인간적인 자식들을 꼬집고 있다.

며느리: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야지!

딸: (오빠에게) 정말 김순임 맞아?

아들: 맞다니까, 주민 등록증 확인했어.

이 작품에서 정상적인 인간은 주인공 강 씨이며 간병인과 할머니 가족들은 모두 돈의 욕심으로 사로잡힌 인간들로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 강 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억척스럽지만 평범한 주부였으나 돈 이야기에 결국 내면에서 욕심의 마음이 폭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짧게 등장한다. 그들은 본격적인 인물들의 갈등을 보여주기 이전에 등장하여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고 깨끗한 옷을 찾아 마음의 치유를 받고 사라지는데 이러한 장치는 앞으로 극이 진행되면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 역시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리라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

(2) 교과서에 실린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이 작품은 7학년 금성(윤) 국어 교과서와 생활국어에 실렸고 8학년 디딤돌(이) 생활국어에 수록되어 있다.

7학년에서는 <문학-1>를 구현하기 위해 이 작품이 실렸고 8학년에서는 <말하기-4>를 위해 생활국어에 아주 짧게 실렸다.

먼저 국어 교과서에 [절정-위기-결말]까지 수록한 금성(윤)을 대단원의 목표와 소단원 학습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단원 학습목표	소단원 학습목표
1학기 8 단 원 (2)	국어 교과서	1.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갈등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2. 갈등의 해결 과정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1. 희곡에 나타나는 갈등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2. 희곡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해결 과정과 인물의 심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생활 국어	1.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갈등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2. 갈등의 해결 과정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연극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비판적 생각 논술하기

[표 19] 금성(윤):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의 학습목표

금성(윤)에서는 생활국어에도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을 수록하여 작품의 이해를 넓히고자 했다. 생활국어에서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의 인물을 좀 더 심도 있게 비판하는 활동으로 확장하고 있다.

내용 이해와 관련하여 ‘희곡의 갈등’에 대한 제시문을 미리 수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극문학의 특성을 선행학습하고 실제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러한 안내는 극문학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관련 성취 기준(문학-1)에서 요구하는 갈등과 심리 상태를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점을 발휘한다.

소단원 준비학습으로 실제로 공연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사진에서는 이 작품의 갈등 장면인 할머니의 옷 보따리를 가지고 몸싸움을 하는 장면으로 수록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통해 본문을 학습하기 전 희곡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관계를 먼저 살피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읽는 중 활동으로 날개 질문을 중간 중간에 수록하여 인물들의 대화나 사건의 맥락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		활동 내용	학습효과
내용 다 지 기	1. 내용 학습	1) 작품의 배경은 어디인가? 2) 등장인물 성격 정리하기. 3) 주요장면을 사건의 순서대로 재배열하기. 4) 이 작품의 주제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작품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인물의 성격을 정리하여 작가가 이 희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알 수 있다.
목 표 다 잡 기	2. 갈등에 유의하며 활동하기	1)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 파악하기. 2) 인물간의 갈등관계를 파악하기. 3) 갈등의 해결과정에 따른 강 씨의 심리상태 파악하기.	이 활동을 통해 갈등양상과 인물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하나의 희곡작품을 이끌어가는 사건도 파악 할 수 있다.
생 각 키 우 기	3. 작품의 확장 학습	1) 작품의 이름을 왜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으로 지었는지 추측하기 2) 할머니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기 3) 등장인물 중 한 명을 골라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글 쓰기.	내용파악과 인물들의 갈등양상을 파악한 후 좀 더 작품을 심화하여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직접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해본다. 이것은 작품의 이해를 높인다.

[표 20] 금성(윤):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의 학습활동

학습활동을 보면 기존의 학습활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활동을 점차 심화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학습활동은 기존의 교과서와 큰 차이가 없다. 평이한 학습활동 구성이다. 그러나 새로운 작품을 검토하고 교과서에 수록한 것에 큰 의의가 있음은 분명하다.

8학년 교과서 디딤돌(이)에 실려 있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은 국어 교과서가 아닌 생활국어에 실려 있다. 실려 있는 성취기준은 말하기-4영역이고 매우 짧은 단락만 실려 있다. (강 씨 아내와 강 씨가 세탁 편의점에 대해 갈등하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 인물의 말투나 표정 등을 상상하며 반언어

비언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희곡과 시나리오, 드라마 제재가 혼용되어 실렸고 이것은 극문학을 ‘문학’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영역에서도 매우 복잡적이고 생동감 있는 담화 자료(텍스트)로 제시하는 좋은 예로 보인다. 극문학 전문을 신고 이에 해당하는 수업모델을 제시한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주어진 성취기준에 맞는 적절한 분량의 극문학을 실어 국어 교육이 지향하는 전체적인 교육목표로 부합하도록 하는 방식이 활용되어야 한다.

3) 「양주 별산대놀이」: 전통 가면극의 재인식

「양주 별산대놀이」는 고등학교 10학년 교과서 공연 예술을 이해하는 성취기준으로 선택되어 실려 있는 제재이다. 「봉산탈춤」 제6과장과 제7과장이 주로 실렸던 과거의 교육과정과 달리 새롭게 나타난 우리 전통 가면극 제재이다. 산대놀이란 중부지방의 탈춤을 가리키는 말로 「양주 별산대놀이」는 서울·경기지방에서 즐겼던 산대도감극의 한 갈래로 춤과 무언극, 덕담과 익살이 어우러진 민중 놀이이다. 놀이는 전체 8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계승, 몰락한 양반, 무당, 사당, 하인 및 늙고 젊은 서민들이 등장하여 현실을 풍자하고 민중의 생활상을 보여준다.

제1과장은 개장 의식무인 상좌춤이, 제2과장은 움중과 상좌놀이, 제3과장은 목중과 움중놀이, 제4과장은 천령과 지령을 나타낸다는 연잎과 눈썹찍이가 나와 거드름춤을 추고, 제5과장 팔목중은 제1경이 팔목중들의 염불놀이이고, 제2경은 침놀이, 제3경은 애사당북놀이이다. 제6과장 노장은 제1경이 파계승놀이로 대사 한 마디 없이 노장이 소무와 더불어 파계하는 과정을 춤과 몸짓으로만 보여주는 장면이다. 제2경은 신장수놀리로 신장수가 노장에게 신을 팔고, 돈 받으러 원승이를 보낸다. 제3경은 취발이놀리로 취발이는 노장의 파계를 꾸짖고, 소무를 빼앗아 사랑놀이 끝에 아이를 갖게 된다. 제7과장 샌님은 양반놀리로 제1경은 의막사령놀이, 제2경은 포도부장놀리로 평민인 젊은 포도

부장이 늙은 양반의 소첩을 빼앗는다. 끝으로 서민생활의 실상을 보여주는 제 8과장 신할아버지와 미알할미놀이로 이어지고, 신할아버지의 박대로 미알할미가 죽어 지노귀곳을 한다. 상좌춤으로 시작하여 지노귀곳으로 끝나는 과정은 주술종교적인 의례에서 출발하여 연극으로 옮겨온 가면극의 내력을 말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봉산탈춤」의 대사가 비교적 운문역양을 고집하고 있는데 비하여 「양주별산대놀이」의 대사는 일상회화조의 대사이다. 취발이와 말뚝이 대사가 백미로서, 특히 취발이나 말뚝이 대사는 민중을 대변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어 관중의 흥미를 끌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은 제7과장 1경인 '의막 사령놀이'이다. 이 과장의 명칭은 쇠뚝이가 양반이 거처할 의막을 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를 의막사령이라 부른데서 생겼다. 하인인 말뚝이가 섯님, 서방님, 도련님을 모시고 등장하여 의막을 정할 것을 명령한다. 말뚝이의 친구인 쇠뚝이는 명령을 받고 돼지우리를 임시 거처로 정한다. 그래서 양반들은 돼지새끼로 야유를 받고, 말뚝이와 쇠뚝이는 양반들에게 온갖 모욕을 주며 농락한다. 「봉산탈춤」에서 말뚝이와 달리 이 작품에서 말뚝이는 양반에 대한 언어적 희롱을 보이지만 신분간의 상하 관계를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말뚝이는 쇠뚝이로부터 모욕을 당한 섯님에게 대신 치죄를 당하는 곤욕을 치르는 무력함도 보인다. 또 쇠뚝이³⁴⁾라는 인물은 말뚝이보다 적극적으로 말뚝이의 상전인 섯님 일행을 의막이랍시고 돼지우리로 몰아넣어 양방 계층에 대한 적대감과 복수심을 드러낸다.

34) 조선 후기 외거노비는 신분으로 상징되는 쇠뚝이는 노비지만 신분적 구속력이 약하고 부지런하며 양반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광산 및 상공업에 종사하여 부를 축적해 갔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갔다. 또한 이들은 사회동향에도 민감하여 신분해방에 보다 일찍 개안할 수 있었기에 새로운 세 시대를 이끌어 갈 제 3계층으로 형성되어 갔다. 따라서 외거노비로 상징되는 쇠뚝이는 양반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말뚝이와 달리 주목해야 할 인물로 보인다.

말뚝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덕 샌님, 서방님, 도련님께서 과일이 당도해 과거를 보러 올라오시다가 산대굿 구경에 미쳐서 해 가는 중 모르고 의막하나 못 정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강근치친이 없고 아는 친구 없이 이 변화지사에서 너를 만나니 참 불행 중 다행이다. 허니 너는 나를 봐서라도 의막하나 정해다오

쇠뚝이: 애, 그놈들이 그래 구경하는데 미쳐서 의막을 못 정했던 말이지. 그리고 보니 네가 참 웅색하게 되었구나. 그럼 내가 의막을 정해주마.(장내를 이리저리 돌고는 말뚝이에게 간다)

말뚝이: 그래 어떻게 정했느냐?

쇠뚝이: 암 정했지.

말뚝이: 어떻게?

쇠뚝이: 혹시 그놈들이 담배질을 하더라도 아래위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래위 칸을 만들고 뽕뽕 돌아가면서 말뚝을 돌려 박고 띠를 두르고 문을 하늘 높이 냈다.

말뚝이: 그럼 돼지 새끼들 같겠구나

...(중략)...

쇠뚝이: 제기랄, 양반의 자식인 줄 알았더니 양반의 자식은 커녕 잡종들이더라, (중략)내가 보니까 화랭이 자식들이 분명하더라

말뚝이: 아니다. 너 모르는 소리다. 우리 덕 샌님은 분명한 양반이시다. 우리 덕 샌님께서 집안이 빈한하여 세물전에 가서 세를 내 얻어 입고 와서 구색이 맞지 않아 그렇지 분명한 양반이시다.

쇠뚝이: 옳겠다, 집안이 간고해서?

...(중략)...

이 장면을 통해 쇠뚝이와 말뚝이가 양반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쇠뚝이는 말뚝이 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양반을 모욕하고 있다. 말뚝이도 양반을 조롱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봉산탈춤」처럼 조롱과 회화화에서 그치고 있다. 쇠뚝이와 같이 모욕적인 단어를 통해 직접적인 희롱은 하지 않는다.

금성(윤)에서는 읽는 중 활동으로 날개질문을 통해 좀 더 「양주 별산대놀이」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했다. 특히 말뚝이와 쇠뚝이의 대화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묻거나 어떤 방식으로 조롱하고 있는지, 우리 공연예술의 특징을 이해하는 질문 등으로 꾸며져 있다. 이는 글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고 동시에 부족한 학습활동을 보충 할 수 있는 학생활동으로 의의가 있다.

읽기 후 활동으로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활동		활동 내용	학습효과
내용 다 지 기	1. 내용 학습	1) 보기를 통해 이야기 흐름 구성하기. 2) 인물의 탈을 보여주고 인물간의 관계성 파악하기.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작품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인물의 성격을 정리하여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알 수 있다.
목 표 다 잡 기	2. 우리 공연예술의 특징 이해하기	1) 관객의 반응을 수록한 지문을 통해 어떤 장면인지 유추하기 2) 단어를 통해 사회방언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기	이 활동을 통해 우리 공연예술의 의의와 우리 전통극에서 만 쓰이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생 각 키 우 기	3. 작품의 확장 학습	1) 마당놀이 「놀부전」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공연예술에 대한 의견 나누기.	마당극의 극본을 통해 전통극이 현대에 와서 다르게 향유되고 있음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논지를 가지고 있는 세 명의 학생들의 의견을 읽고 나의 의견을 정리한다.

[표 21] 「양주 별산대놀이」의 학습활동 양상

이 활동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마지막 '생각 키우기'활동에 있다. 우리 전통 가면극을 지문에 실어 공연예술을 이해하는 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현대에 와서 고전을 바탕으로 '마당극'이란 장르로 바뀐 형식을 통해 전통극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의견을 제시하여 각자가 생각하는 전통극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기존의 활동은 큰 차이점은 없으나 기존의 「봉산탈춤」 제재에서 새로운 제재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마당극 제재까지 확장한 모습은 극문학 교육에 있어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중 매체언어관련 영역의 성취기준에서 극문학 제재와 새롭게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극문학 제재를 중심으로 작품 분석과 학습활동양상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기존의 학습활동과 큰 차이가 없는 상투적 전개와 평이한 활동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지만 김인정 교과서체재를 통해 나타난 의미 있는 결과도 있었다. 작품 수는 매우 적지만 이 작은 발걸음이 다음의 극문학 교육에 있어서 큰 걸음임에는 분명하다. 기존의 작품 안에서 제재를 활용하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작품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

3. 극문학 수록의 특징과 의의

극문학은 희곡과 드라마 대본³⁵⁾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극문학 교육은 서정문학이나 서사문학 교육과 다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먼저 언어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화체로 된 진술체계라는 점이다. 대화체는 구어적 소통방식을 통한 직접적인 전달 기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의 장르는 구어적 소통방식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분야가 되는 것이다.³⁶⁾ 또한 수업 여건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배역을 분담하여 직접 말하기를 해봄으로써 학생들의 의식과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삶을 읽고 행동하면서 심리적 체험을 하게 되는 모방적 행위를 통해 나를 둘러싼 세계를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극문학은 그 자체가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참가의 동기가 유발되어야 한다는 특징은 극문학만의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된다.

결국, 극문학 교육은 학습자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극문학 학습에 참여하여 극문학의 중심 원리를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꼭 공연화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다만 극문학 장르 중 희곡은 문학적 요소와 연

35)극예술로서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주로 문학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경우 2006년 문학 연구와 방송 연구의 통섭을 목표로 열린 학술회의를 전후로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한 극예술적 관심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학술회의를 통한 드라마 텍스트의 다각적 접근은 드라마를 심미의 대상으로, 즉 실용에서 예술로 자리 이동을 하게 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고 7차 개정교육과정에 이르러 매체언어로 그 제재활용이 활발해 졌다. 물론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르라는 점에서 희곡과 시나리오에 비해 축적된 성과는 미약할 수밖에 없으나 드라마 텍스트는 텍스트 자체보다 텍스트가 생산하는 맥락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드라마는 실제보다 더한 실체로 현존하면서 자신을 주축으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간다. 때로는 웃음과 울음을 그칠 수 없게 하고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폭력성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의 성격은 따라서 그 어떤 대중문화 텍스트보다도 진지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문제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교과서에 실릴 때 철저한 검증을 통해 청소년 드라마 위주로 텍스트가 선택된 모습을 보여준다.

36) 서종문, 「희곡문학 교육의 문제」 pp. 251~252, 2002.

극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희곡의 이중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 종합해 볼 때 극문학 교육은 학습자 활동중심의 교육이므로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이끌어 내기가 가장 쉬운 단원이 될 수 있다. 극문학 텍스트만의 독특한 구성은 극적 인물의 행동, 극적 언어의 사용, 주제를 유용하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효과음,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음악, 빛 등) 등은 다른 문학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없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다양하게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극문학 교육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영상에 담거나 공연으로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연출, 연출가, 배우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문학에서 말하는 허구란 가짜, 거짓말이 아닌 우리에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공해 주는 의미 있는 경험을 안겨 주며 이런 점에서 극문학은 실제와 가상을 통합하여 삶의 총체성을 인식하게 하는 의의를 가져다준다. 또 문자 텍스트에 대한 의존성이 시나 소설에 비해 학습자들의 상상력이 더 많이 개방적으로 허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시나 소설은 문자 그 자체가 텍스트의 성격을 대변하지만 극문학은 장르의 특성으로 학생 혼자 글을 읽기 보다는 독서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교사와 학습자 간의 질문과 응답, 소집단 내부의 토론과 토의가 이루어지면서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텍스트를 읽는 경험과 상상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때문에 텍스트 속 인물의 심정을 지시문과 함께 염두하며 말하거나 독서하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 자체가 이미 학습자에게 한 번 걸러진 텍스트로 변환된다. 이것은 새로운 텍스트로 의미를 창출하는 의의를 가지며 극문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학습자들 사이에 텍스트를 읽는 경험과 상상의 상호작용이 더욱 입체적인 텍스트로 변화시키는 셈이다. 따라서 극문학 수업은 활력이 넘쳐야 하고 학생들의 상상력을 허용하되 구조적이어

야 한다.

문학교육에서 교과서가 지니는 일차적인 의미는 문학 현상에 대한 '선형적 인식'을 준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과 작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대표성이나 규범성을 얻게 된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특정 작품에 대한 '강렬한 인상'은 고스란히 평생의 문학관으로 자리 잡게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운명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사적 독서'를 통해서보다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 독서'가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교과서의 의미는 보다 강화된다. 교과서에 제시된 목표나 활동 하나 하나는 잠재적이라 할지라도 한 학생에게는 평생의 감수성이 되기도 하고 인식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교과서의 작품 선택이나 접근 방향 설정, 지식의 진술 등은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IV. 결론

본고는 극문학을 시나리오와 드라마 대본, 희곡으로 나누어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매체언어 성취기준의 도입 현상에 따라 중첩, 배제, 소외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보았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극문학 작품도 분석해 보았다.

1997년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매체언어가 국어과 교육과정에 편입된 이후,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매체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시행해왔다. 그 결과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6개 영역 못지 않은 비중으로 매체언어를 다루게 되었다. 매체언어는 실상 7번째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매체언어가 도입되었지만 그 교육적 적용에 대해 지금도 완전히 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 교육계는 매체언어의 개념과 범주조차 온전하게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2007년 개정 국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한계점들은 어쩌면 매체언어를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계에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결과일 것이다.

매체언어가 수용되면서 매체언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극문학의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당초 예상되었다. 본론에서 II장에서 살펴 본 대로 매체언어의 성취 기준 중에서 절반은 극문학 장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 빛을 내지 못했던 극문학이 교육과정에서 정당한 위상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교과서 집필과 체제 배치에서 이러한 기대와 예상은 빛나갔다. 교과서에 따라 정도와 편차는 있기 하지만 교과서마다 부분적으로 적절한 작

품을 수록한 경우도 있고, 적절한 학습목표를 제시한 경우도 있으며, 적절한 구성 방식을 선보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습활동과 이를 위한 교과서 체계에서는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체언어, 좁혀서 말하면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극문학 제재를 수록하고 이를 교과 내용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구태의연함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다. 비록 희곡에서는 새로운 작품 나왔지만 한 학년마다 겨우 약 두 작품에 불과하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은 새로운 작품은 대거 출현했지만 시나리오의 태반이 『집으로』와 『말아톤』, 8학년은 각 교과서 집필진들이 담화 수준과 범위의 제약 때문에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에서 에피소드를 추출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러한 형태는 새로운 교과서 편찬의 의의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드라마나 영화는 새롭게 텍스트가 들어와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고 다양한 작품 검토의 시간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각 학년에 실려 있는 희곡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지질 않았으며 늘 똑같은 작품 선정은 과거 교육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던 국가 이데올로기를 위한 선택들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현재 출시된 7학년, 8학년, 10학년 국어과 교과서가 당면한 문제는 매체언어 성취기준으로서 극문학 작품을 다루는 경우와 문학 작품으로서 극문학 작품을 다루는 경우를 분별하고 교과 내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일이다. 극문학 장르 관련 매체언어 성취 기준은 넓은 범위에 이르고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7학년 교과서에서 발생한 성취 기준 혼용과 내용 편중 현상과 더불어 희곡 축소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7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문제점이 8학년 교과서에도 해소되지 않아 8학년들은 텔레비전 드라마를 극문학의 전부로 여기며 학습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2010년 도입 국어과 교과서는 매체언어에 대해 교수 학습 방법을 제대

로 실현하지 못했고 극문학 장르에 대한 이해에도 전반적인 보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먼저 문학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5대 장르에 대해 고르게 안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희곡을 각각 그 자체로 존중하여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과 다르지 않다. 성취기준으로 인한 극문학 영역의 위축문제는 개정 교육과정에 와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이 되어 버렸다. ‘문학 영역으로서의 극문학작품’과 ‘매체언어 관련 극문학 작품’을 분리하여 인식해야 하고 두 개의 다른 성취 기준을 균등하게 반영하는 교과서를 산출해야 했고 교수, 학습 시에도 교과 내용을 조절하여 안배했어야 했지만 이런 점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두 개의 성취분야는 엄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혼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상태에서 극문학을 ‘문학’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영역에서도 매우 복잡적이고 생동감 있는 담화자료로 제시되어야 한다. 먼저, 극문학을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의 영역과 연결시키는 교육 방법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극문학 전문을 신고 이에 해당하는 수업모델을 제시한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주어진 성취기준에 맞는 적절한 분량의 극문학을 실어 국어 교육이 지향하는 전체적인 교육목표로 부합하도록 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희곡을 순수한 문학예술의 일부, 공연예술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이 여전히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희곡은 시, 소설과는 다른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화자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시각과 청각이 두루 활용된다는 점에서, 다매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가까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매체 활용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극문학은 무대화 관객의 직접적인 만남, 대화 상대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보여주는 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담화자료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다음, 매체언어 교육의 본질과 효과에 대해 정밀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체언어의 개념규정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매체언어에 대한 교육적 성취를 위해서라도 학문적 교육학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매체언어 교육을 위해 매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다른 매체에서 일어난 언어활동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 교과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작품을 수록하고 그 작품의 내용 이해를 위해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과 교육과정 편성에 관련 전공자와 학자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 희곡교육 내지는 영상언어교육은 전공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가 매체언어는 전공자가 드문 상태에서 교육과정에 중요한 일부로 편입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자의 확대와 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아울러 교사들의 매체언어 관련 재교육과 학습이 요구된다. 과거의 교과서에서 실제 활동은 일상생활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 연극에서도 실생활의 매체들은 흥미로운 교육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편적인 상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만으로도 수업 내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체언어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 증가하면서 과거와 같은 안일한 교수 방법은 수업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될 것이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매체와 매체언어에 접근하겠다는 교사와 교과서 집필자의 생각이 사라질 때 초 중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적절한 수업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고의 연구 주제는 탐구할만한 가치를 갖는 매우 의미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며 이 분야에 있어서의 추가적 연구들에 자극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자 료>

『중학교 1학년 국어(1,2학기)』, 교학사/금성/대교/두산동아/디딤돌/미래엔컬쳐/박영사/비유와상징/새롬교육/좋은책신사고/웅진씽크빅/유웨이중앙교육/지학사/창비/천재교육/해냄에듀/ 2009.

『중학교 1학년 생활국어(1,2학기)』, 교학사/ 금성/대교/두산동아/디딤돌/미래엔컬쳐/박영사/비유와상징/새롬교육/좋은책신사고/웅진씽크빅/유웨이중앙교육/지학사/창비/천재교육/해냄에듀, 2009.

『중학교 2학년 국어(1,2학기)』, 미래엔컬쳐/교학사/지학사/천재교육/대교/디딤돌/비유와상징/좋은책신사고/금성/창작과비평/새롬교육/해냄에듀, 2010.

『중학교 2학년 생활국어 (1,2학기)』, 미래엔컬쳐/교학사/지학사/천재교육/대교/디딤돌/비유와상징/좋은책신사고/금성/창작과비평/새롬교육/해냄에듀, 2010.

『고등학교 국어(상,하)』, 금성/교학사/디딤돌/더 텍스트/ 두산동아/미래엔컬쳐/비유와상징/좋은책신사고/유웨이중앙교육/지학사/창작과비평/천재교육/해냄에듀, 2010.

『2007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200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2007.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2007.

<단행본>

윤여탁 외,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

김예니, 『국어 교과서와 국가 이데올로기-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교과서 구현 양상』, 『글 누림』, 2007.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 대학교출판부, 2000.

<학술 논문>

김만수, 「국어 교육과정에서 극 텍스트 활용 양상: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 3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0.

김남석,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영화관련 매체언어의 성취 기준에 관한 연구: 2010년 도입 7학년 국어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 3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0.

한귀은, 「국어과에서의 희곡과 연극 교육의 방안」, 국어교육 제 130호, 한국어교육학회, 2009.

김대회, 「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에서의 매체언어 교육의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국어교육학회, 2008.

강진호 외 『반공주의와 한국문학』, 상허학회, 2007.

박혜령, 「중학교 희곡교육의 개선을 위한 제언」, 교육논총 제5집2호,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김동환, 이도영, 염은열, 서유경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 연구소, 2000.

최병우, 이채연, 최지현, 「매체언어와 국어교육」(연구보고서 2000-6), 서울대학교 교육종합 연구원 국어교육 연구소, 2000.

김재석,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재 희곡의 현황과 희곡읽기의 한 방법」, 문학과 언

어학회, 문학과 언어 제 21집, 1999.

유민영, 「홀대와 미숙의 희곡 교육」, 이응백 박사 고회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고회 기념 논문집』, 한샘, 1992.

서종문, 「희곡문학 교육의 문제-중, 고교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회, 1991.

서종문, 「희곡문학 교육의 문제」, 한국어문학회, 2000.

이광국, 「국어 교과서에 실린 희곡작품에 대하여」, 배달말교육, 배달말교육학회, 1985

<학위 논문>

최선영,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서 '매체' 단원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석사논문, 2010.

김남희, 「교육연극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교수 학습방법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노은희 외,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 미학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박준일, 「중학교 교재수록 「육체미 소동」을 활용한 드라마 구조교육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김순자, 「희곡 창작 및 극화 수업지도 방법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희라, 「공연 중심의 희곡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우미숙, 「해방이후 중등 국어교재의 희곡작품 고찰」,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Abstract

Dramatic literature contained in the 7th revision of language textbooks

Ko, Su-jin

Major: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7th revised curriculum development as well as the Language Arts curriculum changes were welcomed. In fact, the 7th Language Arts Curriculum Revised performance standards associated with the media has a very broad language that is included.

This looks a lot of drama in the flow was changed. Appeared mainly play courses and different scenarios of the past, drama scripts, carrying conspicuous place points. The print media to this effect, the visual media, Internet media, use of language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how to increase capacity and production of media discourse, writing in the language environment is changing significantly as the environment gradually changes the configuration information for Language Education has to be due. But the drama of the work actually appeared in textbooks and the bias is very severe problems are visible. Scenarios, and drama scripts that utilize a very wide

range of sanctions appears. Literature in the area without stopping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grammar, carrying over to the sanctions that are expanding. An entire section of the learning activities are implemented or until the pieces are taken to see that. In addition, drama scripts and scenarios, which contained an even wider world of work is diverse.

But the play that much different circumstances. If a term appearing in two films a lot of work, a very small number of fully analyze the significance of the play is not enough to be. Theatre staged a play on the goal, but the conditions of the classroom, and situational disadvantage of days and the number of works by relatively few practical reality. If so, the works have appeared in textbooks that called for days and can cover them or need to look at the work. Plot analysis of the work in the classroom environment, people and events, focusing on structural analysis plays a unique form of education still can not sav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e textbooks seem to properly. In this paper 23 species of the newly created language textbooks for 7th grade language textbooks for Grade 8 and 15 species, 16 species analyzed in the language textbooks for Grade 10 textbooks published in samgo will watch the drama with higher status.

In chapter II, 7th on the basis of this fact in the revised curriculum to emphasize the achievement standards associated with media, language training during the sanctions, he takes the most drama scripts, scenarios, and learn of the work consists of learning objectives that focus on what will be analyzed. Play as well as the existing literature, education achievement standards and how it is configured according to the learning objectives focus will be analyzed.

To be more meaningful analysis that were not covered in the existing curriculum and achievement standards and definitions of unfamiliar language media organizations and systems covered. But first,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should be followed to check. And this is based on language-related achievement standards established media to look at a process. New configur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paper to study this process through the 'media language'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will determine the significance.

In section III, 7th works of dramatic literature published in the revised

curriculum based on the media focused on the language achievement after analyzing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learning activity is meaningful, in terms of work orientation and in-depth analysis of topics will. In particular play, divided into the membrane and a large part because the textbooks published in the unloading cut. Actually, this time to move on the part of textbook is well organized, should be consulted. If the advent of new dramatic works and analysis of the work should be done. At the same time as the media language achievement standards and sanctions of the works written drama scripts and scenarios, the more wonder of the work looks too much overlap. Most of the works found in published works mainly textbooks for each learning activity and its significance in the differences will be discussed along with the sure, too. Based on these results point to an alternative is presented in Section IV.

This study will show the current status of drama education, which is the significance of the findings will be.